

#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황치성·정완규

신문사 NIE의 대표 상품이라 할 수 있는 NIE 지면이 특화되지 못하고 교습 및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대학 입학'이라는 단기성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연구서 2012-04

#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황치성 · 정완규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연구서 2012-04

책임연구 황치성(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정완규(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보조연구 김민정(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발행인 이성준

편집인 선상진

발행일 2012년 11월 30일 초판 제1쇄 발행

###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33 프레스센터 12층

전화 (02) 2001-7745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http://www.kpf.or.kr)

편집·제작 / 커뮤니케이션북스(주)

121-8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001 팩스 (02) 736-5047

[www.commbooks.com](http://www.commbooks.com)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ISBN 978-89-5711-336-3

책값은 표지에 있습니다.

## 차례

- 01** 연구의 배경 ... 1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 2. 연구의 구성 ... 4
  
- 02** 한국에서의 NIE 전개과정과 현황 ... 6
  - 1. 한국의 NIE 개요 ... 6
  - 2. 학교 NIE 현황 및 최근의 교육 환경 변화 ... 7
  - 3. 신문사 NIE 현황 ... 16
  
- 03** 외국의 NIE 동향과 사례 ... 21
  - 1. 일본 ... 21
  - 2. 미국 ... 38
  - 3. 세계신문협회 ... 54
  
- 04** 한국 신문의 NIE 운용실태와 문제점 ... 67
  - 1. 신문사 NIE 지면의 내용 ... 67
  - 2. 지면 외 NIE 프로그램 ... 86
  - 3. 조직 및 인력 운용 ... 90
  - 4. 학교 NIE 현황 및 교사들의 신문사 NIE에 대한 인식과 평가 ... 94
  - 5. 한국 신문의 NIE 운용실태와 문제점 요약 ... 138
  
- 05** 결론 및 제언 ... 150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 150
  - 2. 결론: 신문사 NIE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57
  
- 부록: 'NIE 이용현황 및 환경 조사' 설문지 ... 165
- 참고 문헌 ... 175

## 표 차례

〈표 2-1〉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서 NIE 활용 여부 ... 8
〈표 2-2〉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서 NIE 실시 빈도 ... 9
〈표 2-3〉 NIE 주로 하는 시간 ... 9
〈표 2-4〉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 영역 ... 12
〈표 2-5〉 NIE를 실행하는 신문사(2012년 6월 기준) ... 18
〈표 3-1〉 미국 신문의 교육용 신문 구입비용 조성 방식 ... 42
〈표 3-2〉 학생 시절의 신문접촉 경험이 미래 신문 구독에 미치는 영향 ... 49
〈표 4-1〉 ‘생글생글’의 주요 내용 ... 73
〈표 4-2〉 신문사 NIE 면의 기사 수 ... 77
〈표 4-3〉 NIE 면에서 다루는 내용 ... 78
〈표 4-4〉 NIE 면의 제작 주체 ... 79
〈표 4-5〉 NIE 면의 주요 대상 ... 80
〈표 4-6〉 신문사 교육면 현황 요약 ... 81
〈표 4-7〉 신문사 교육면의 기사 수 ... 82
〈표 4-8〉 교육면에서 다루는 주제 ... 83
〈표 4-9〉 ‘대학입시’에 관한 기사에서 지향하는 대학 ... 84
〈표 4-10〉 교육면에서 다루는 기사의 주요 대상 ... 85
〈표 4-11〉 교육면 기사의 주요 취재원 ... 86
〈표 4-12〉 중앙 일간지의 지면 외 NIE 프로그램 ... 88
〈표 4-13〉 지역 일간지의 지면 외 NIE 프로그램 ... 89
〈표 4-14〉 NIE 추진 부서와 외부 인력 활용 여부 ... 91
〈표 4-15〉 신문사의 NIE 예산 확보 방식 ... 92
〈표 4-16〉 신문사의 학교 교육용 신문 지원 규모 ... 93
〈표 4-17〉 학교 교육용으로 지원하는 신문 구독료 부담 방식 ... 93
〈표 4-18〉 설문조사 방법 개요 ... 95

〈표 4-19〉 응답자 구성 ...	96
〈표 4-20〉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는지 여부 ...	98
〈표 4-21〉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영역(1순위) ...	99
〈표 4-22〉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영역(3순위까지 중복응답의 합) ...	101
〈표 4-23〉 수업에서 신문활용 빈도 ...	103
〈표 4-24〉 NIE 관련 지면 구독 정도 ...	105
〈표 4-25〉 NIE 지면 구독이 NIE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	106
〈표 4-26〉 NIE 지면 구독이 NIE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	109
〈표 4-27〉 NIE 지면 구독이 NIE 소식·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	110
〈표 4-28〉 소재지역별 신문사의 NIE 예산 확보 방식 ...	112
〈표 4-29〉 교실에서 사용하는 신문 구입비 부담 ...	113
〈표 4-30〉 NIE 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문 부수 ...	115
〈표 4-31〉 인지된 NIE 유용성 ...	117
〈표 4-32〉 NIE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NIE 연수 경험 유무 ...	119
〈표 4-33〉 NIE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19	
〈표 4-34〉 NIE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	120
〈표 4-35〉 NIE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0
〈표 4-36〉 NIE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1	
〈표 4-37〉 NIE가 교과 심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1
〈표 4-38〉 NIE가 논술·구술·면접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2	
〈표 4-39〉 NIE가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	122
〈표 4-40〉 NIE가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2
〈표 4-41〉 NIE가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3
〈표 4-42〉 NIE가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3
〈표 4-43〉 NIE가 정보탐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	124
〈표 4-44〉 NIE가 정보탐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4	
〈표 4-45〉 NIE가 인성·가치관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	125

〈표 4-46〉 NIE가 인성·가치관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5	
〈표 4-47〉 NIE가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 126	
〈표 4-48〉 NIE가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연수 경험 여부 ... 126	
〈표 4-49〉 NIE가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7	
〈표 4-50〉 NIE가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연수 경험 여부 ... 127	
〈표 4-51〉 NIE가 사회 현실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 127	
〈표 4-52〉 NIE 교육의 바람직한 조건 ... 128	
〈표 4-53〉 NIE 교육의 실제 현실 평가 ... 130	
〈표 4-54〉 NIE의 부문별 환경 ... 132	
〈표 4-55〉 NIE 교육에 사용되는 종이신문과 전자(디지털)신문의 차이점 ... 134	
〈표 4-56〉 NIE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개선희망사항(오픈문항) ... 137	



## 그림 차례

- 〈그림 3-1〉 아사히신문 まなあさ의 초기 화면 ... 33
- 〈그림 3-2〉 학생 시절 신문관여도에 따른 성인 리더십 비율 ... 48
- 〈그림 4-1〉 신문 구입 방법 ... 111
- 〈그림 4-2〉 신문 유료 구입시 적정 할인율 ... 114
- 〈그림 4-3〉 NIE 교육의 부문별 유용성 ... 118
- 〈그림 4-4〉 NIE의 부문별 환경 ... 131
- 〈그림 4-5〉 NIE 교육에 사용되는 종이신문과 전자(디지털)신문의 차이점 ... 133



# 01

## 연구의 배경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에서 신문활용 교육, 즉 NIE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8년째를 맞고 있다. 외국에 비해 출발이 늦긴 했지만 그간의 NIE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NIE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IE를 실천하는 학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NIE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 1회 개최하는 NIE 학회의 대주제가 ‘한국의 사례에서 배운다’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확인해 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NIE의 강국인가? ‘그렇다’라고 하고 싶지만 뭔가 허전하다. NIE의 성장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그러한 불균형이 NIE 활성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균형의 한 주역이 바로 신문사다. ‘NIE의 미래는 곧 신문의 미래’라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문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급선무’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NIE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는 NIE 선진국인 핀란드나 일본의 사례와 뚜렷이 대비되는 부분이다.

NIE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미국보다 30년 늦게 NIE를 시작한 핀란드는 1964년을 기점으로 사회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현장에 NIE를 확산시켰고 이에 교육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NIE를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 지원을 펼쳤다. 이에 부응하여 핀란드신문협회는 1985년부터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조직체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예산 투입하는 등 NIE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황치성, 2007, 122쪽).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 신문이 독자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도 핀란드는 인구 1천 명당 신문보급 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462부에 달하고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51%가 신문을 정기구독할 정도로 신문강국을 자랑하고 있다(WAN & IFRA, 2010).<sup>1)</sup> 핀란드 학생들이 지난 십수년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PISA) 수준을 갖게 된 것도 바로 NIE의 활성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sup>2)3)</sup>

미국이나 핀란드보다 훨씬 늦게 NIE를 시작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신문사가 주도해서 NIE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처음 NIE를 시작한 일본은 신문협회가 주축이 되어 NIE 재단을 설립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NIE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일본은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천 명당 신문보급 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458.3부이며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3명 중 1명(33.6%)이 매일 신문을 읽을 정도로 탄탄한 신문 리더십 기반을 구축했다.<sup>4)</sup>

---

1)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신문보급 부수는 317.3부이며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중 신문을 매일 읽는 청소년은 17% 수준이다.

2) 한국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자기관리능력(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교화능력(창의적 사고력)은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 반해 핀란드 학생들은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핀란드신문협회와 지바스킬라대학교(the University of Jyväskylä) 교육연구소는 신문 읽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황치성, 2007, 124쪽).

일본 신문협회가 거둔 성과의 백미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신문읽기와 NIE를 공식화한 것이다.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의 교과에서 종이신문으로 지도 혹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일본의 전체 교육체제에서 필요한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신문협회에서 주도한 NIE 20년의 성과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핀란드와 일본의 성공사례는 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이미 사양길에 접든 신문과 그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정부 혹은 신문사가 그토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는가’하는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NIE란 본래 신문사들이 신문의 배포범위를 교육현장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미래 독자를 유치한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전략적 차원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 속에서 NIE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교육현장과 결합시킴으로써 교습 및 학습자 원으로서 신문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아 왔다(황유선·박진우·김위근, 2011).

학생이나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신문의 장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점은 ‘교과서를 넘어 현실과 관계 지어 생각하는 힘’과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압축하면 ‘창의력’과 ‘배려’인데,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21세기 인재상으로 가장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핀란드나 일본이 NIE를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NIE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듯 크기 때문에 신문사의 소극적 자세로 그

---

4) 일본 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pressnet.or.jp>) ‘調査データ:新聞と読者’(2011) 참조.

성장동력이 약화될 경우 신문 자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NIE 활성화를 위한 신문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지만 원론 수준의 당위론적 논의만 풍성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내 신문사의 NIE 운용 현황과 함께 소극적인 자세 이면에 작용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심층 진단함으로써 신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2. 연구의 구성

한국 신문의 NIE 운용 현황 분석과 함께 신문사 주도의 방법론과 정책 방안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이 연구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한국 NIE의 역사와 전개과정’으로,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에서 NIE 발전과정과 함께 학교와 신문사의 NIE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최근 교육 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신문사 NIE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서술했다.

둘째는 외국 신문의 NIE 동향과 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 NIE에 관한 과거의 외국 사례연구가 시의성이 떨어지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번 외국 사례 연구에서는 세계신문협회와 일본, 미국의 NIE 활동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한국 신문이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한국 신문의 NIE 운용실태를 심층 진단한 내용으로 먼저 내용

분석을 통해 ‘NIE 지면’과 ‘지면 외 NIE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신문사 내의 NIE 조직과 인력 현황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NIE 담당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현재의 신문사 NIE 지면 및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NIE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는 NIE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신문사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넷째는 결론 및 정책적 제언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전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함의를 바탕으로 신문사NIE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 방법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 02

### 한국에서의 NIE 전개과정과 현황

#### 1. 한국의 NIE 개요

한국의 NIE는 한국신문협회 기관지인 신문협회보가 1985년 9월 각국의 NIE 사례를 소개하면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각 신문에서도 NIE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95년 이후 중앙일보가 NIE 지면을 만들면서 신문사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중앙 일간지 9개사, 지방 일간지 13개사 등 22개 일간지가 다양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신문들이 독자 감소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신문독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NIE 활동을 전개하는 신문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신문사도 적지 않아 NIE를 하는 신문사의 부침이 거듭되고 있다.

그 대신 학교 현장에서 NIE는 확산 일로에 있다. NIE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지만 이후로 학교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학교 현장에서의 NIE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소재로서 뿐만 아



니라 창의적 사고력 증진, 인성 및 가치관 함양,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면 실시, 주5일 수업제 실시, 진로교육 강화 등의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교육 및 학습 자원으로서 신문의 활용가능 영역은 더 확대되고 있다.

## 2. 학교 NIE 현황 및 최근의 교육 환경 변화

학교에서의 NIE는 1994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당시 교육부에 NIE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부가 학교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설규주·김명정·이봉민, 2011, 77쪽). 교육부는 신문편집인협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했으나 NIE에 대한 이해 부족과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미비로 인해 논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학교 현장에 NIE가 알려진 것은 중앙일보가 1995년 3월 국내 최초로 교육면에 NIE 코너를 마련하고서부터다.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도 NIE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중앙일보가 2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학교 현장에 확산되기 시작했다(강석우 외, 2004, 25~26쪽).

이후 제7차 교육과정에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NIE 수업 실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NIE는 교육과정에 공식 편입하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NIE는 학교 현장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2012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2,000개 가까운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NI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sup>1)</sup>

---

1)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NIE 거점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NIE 거점학교 사업은 연초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사연수, 신문제작 체험, NIE

## 1) 교실수업서의 NIE 활용 현황

NIE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2006년에 실시된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중고등학교 NIE 실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표 2-1〉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서 NIE 활용 여부 (단위 : %, N=640)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계
전체		35.2	64.8	100.0(640)
학교급	중학교	33.5	66.5	100.0(313)
	고등학교	36.7	63.3	100.0(327)

2006년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의 33.5%, 고등학교의 36.7%가 NIE를 활용하는 등 중고등학교의 35.2%가 다양한 형태의 신문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NIE를 수업에 활용한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10차시마다 한 번 정도'가 21.3%로 가장 많았고 '5차시마다 한 번 정도'가 19.8%로 나타났다. '매 시간마다 한다'는 응답은 2.2%로 낮은 편이었다. 통상 학교 수업이 1주일에 5차시 정도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NIE를 하고 있는 학교의 41.1%가 2주일에 1회 이상 NIE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강사 수업 지원 등 다양한 NIE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06년 한국언론진흥재단(당시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를 통해 추출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재단(2006), 『2006 한국의 NIE』'를 참조.

〈표 2-2〉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서 NIE 실시 빈도

(단위: %, N=225)

	매 수업 시간 마다	5차시 마다	10차시 마다	15차시 마다	기타	사례 수
전체	2.2	19.6	21.3	4.4	52.4	225
학교급	중학교	1.9	11.4	20.0	4.8	61.9
	고등학교	2.5	26.7	22.5	4.2	44.2

NIE를 적용하는 수업시간은 ‘정규교과’ 시간이 절반이 넘는 51.6%를 차지했으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이 각각 9.8%, 8.0%, ‘특기적성 교육’ 시간이 3.1%였다. NIE를 적용하는 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보다 ‘창의적 재량활동’(중학교 14.3%, 고등학교 5.8%)이나 ‘특별활동’ 시간(중학교 10.5%, 고등학교 5.8%)에 NIE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3〉 NIE 주로 하는 시간

(단위: %, N=225)

	통합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특기 적성	동아리	기타	사례 수 합
전체	51.6	9.8	8.0	3.1	0.9	26.6	225
학교급	중학교	47.6	14.3	10.5	1.0	26.7	105
	고등학교	55.0	5.8	5.8	5.0	1.7	26.7

## 2) NIE를 적용한 교수 학습방법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NIE 수업은 담당교사의 역량, 자료의 다양성, 학습자의 경험이나 참여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NIE 수업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최상희, 2010).

첫 번째 방법은 신문을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나 지식, 정보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지루해 한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관련된 신문 기사를 활용하면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특히 교과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신문을 활용한 주제 중심의 범교과 학습이다. 이 방법은 개별 교과목이 아니라 범교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교과서의 진도와 상관없이 토론과 발표 위주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별도의 수업 지도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

세 번째는 NIE 활동 중심의 수준별 수업이다. 이 수업은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그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하는 활동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일기형식의 신문 스크랩을 만들거나 테마 신문을 만들기도 한다.

네 번째는 NIE 토의학습이다. 이 수업은 신문에서 제시한 이슈와 주장을 중심으로 학생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활동을 이끌어 나가면서 학습의 사회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 국내외 경제 및 정치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대립 중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논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는 NIE 시뮬레이션학습이다. 이 수업은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가상적인 역할이나 상황을 부여하고 모의현장을 실제로 재현해 보도록 하는 일종의 역할놀이이다. 시뮬레이션학습은 특히 체험과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며 학생들의 즉흥성, 잠재력과 창의성을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여섯 번째는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이다. 즉 신문을 활용하여 현실생활과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수업에서 글쓰기의 유형이나 수준은 학생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이 많아 특히 고등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한 논술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일곱 번째, 신문을 활용한 가치관 교육이다. 이 수업은 신문기사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비교하고 학생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의 통합된 가치체계를 가진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신문에 나오는 감동적인 기사나 사진, 광고 등을 스크랩하여 돌려 보면서 학생 각자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게 하고 급우들 간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게 하는 방식이다. 이 수업은 인성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여덟 번째 신문을 활용한 직업진로교육이 있다.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분야를 탐구하며 자신의 진로가 정해진 학생의 경우 그 직업과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스크랩하고 탐구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역량을 미리 키워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수업의 경우 처음엔 교사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3) 교육 환경의 변화와 NIE

지금까지 교수 및 학습자원으로서 신문은 학교 현장에서 주요 과목의 보조 교재로 활용되는 것 외에 글쓰기와 논술·토론이나 창의적 사고력 증진, 인성이나 가치관을 배양하는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신문활용 교육의 적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2011년부터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표 2-4〉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 영역

영역	하위 목표	활동
자율 활동	각종 행사, 창의적 특색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활동 등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에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협동적 학습능력과 창의적 태도를 기른다.	- 학술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청소년 단체활동 등
봉사활동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 교내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자연환경 보호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흥미와 소질, 적성을 파악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등

(이하 ‘창체’)이다. 창체는 기존의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을 통합한 것이지만 단순한 통합이나 보완을 넘어 특별한 시간이 아닌 정규수업 시간에, 이수해야 할 최소시간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3)</sup>

창의적 체험 활동은 배당된 시간(단위)에 따라 학생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존 교육과정의 ‘창의적

3) 시간 배당은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의 경우 과학/실과 및 체육 과목과 동등한 것이고, 중학교의 경우 체육이나 예술(미술/음악) 과목(272시간)보다는 많고 수학 과목(374시간)보다는 적은 것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의 개별 이수 단위(15단위)보다도 많은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 교육과정 내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자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운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시와 관련하여 NIE가 의미를 갖는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 가운데 '자유 활동' 영역의 '창의적 특색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 영역의 '학술활동' 가운데 하나로 '신문활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NIE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배치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정현선·설규주, 2010).

창체의 더 큰 의미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현재의 삶과 경험으로서 학습에 참여하고 미래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 취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교육의 중심이 '학교와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 간 일종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정도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창체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다. 물론 진로 활동은 창체의 하위영역에 속해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5월 4일,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부상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진흥 책무를 명문화한 가운데 학교 내 진로교육 전담교사와 외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크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외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역할을 총괄하는 국가진로교육센터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황치성, 2012).

진로 활동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창체의 주요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효율적인 진로 활동은 이론이나 지식을 넘어 체험으로 이어지고 또 학생 개개인이 희망하는 직업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의 개별화된 직업체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습자원으로서 신문은 학교 현장에서 글쓰기와 논술, 토론이나 창의적 사고력 증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장점은 진로 학습 자원으로서의 가치다. 신문에는 거의 모든 직업영역을 포괄하는 정보와 롤모델들이 등장하며 매일 새로운 현장 정보가 실리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문을 활용한 진로 탐색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주도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계획과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 지속하면서 진로스크랩 등의 기록장을 만들면 대학 입학용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2012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첫째, 학생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 교육에서 지나친 학교 의존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과도하게 학교에 편중되었던 청소년 교육을 가정과 지역사회가 같이 공유함으로써 지나친 학력 강조 등의 폐단을 극복하고 교육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의 단순한 지식 혹은 기능 습득 중심의 학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자의 흥미, 관심, 의지에 의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체험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태도와 학습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5일 수업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sup>4)</sup> 첫째, 현재까지의 주5일 수업제는 과도하게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한다’는 주5일 수업제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토요프로그램 관리와 강의 등 추가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서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편중되어 있다. 교과부가 공정한 주5일 수업제 운영 매뉴얼은 학생들이 토요일에 수행할 활동영역을 ‘휴식과 여유로운 휴일 보내기’, ‘가족, 친지, 친구, 지역민과의 교류’, ‘독서, 등산 등 다양한 취미, 문화 활동’, ‘스포츠, 예체능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부족한 공부 보완’ 등을 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예체능 활동’과 ‘부족한 공부 보완’에 한정되어 있다. 이 역시 과도한 학교 중심의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5일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주5일 수업을 포함, 최근의 교육 환경 변화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력 배양’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관된 학습을 수행,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의 주5일제에서는 학교에서 부여하는 한정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up>5)</sup> 또 창의적 사고는 사회현실과 다양한 접촉과 체험을 통해 잘 구현될 수 있는 데 반해 학교 중심의 운영 체제로 인해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

4) 황지성(2012).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대응방안: 신문활용 진로탐색 프로그램. 『오늘의청소년』, 7~8월 호, 4~5쪽에서 재인용.

5) 성태모(2003)는 “NIE가 교육 혹은 학습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신문에서 정보를 찾는 선택행위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적인 지식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시간 차를 두고 별개로 진행됐지만 서로를 관통하는 공통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현실과 접목된 통합적 사고와 체험’, ‘진로교육 및 진로학습의 중요성’이다. 이것은 일종의 인재상의 변화이자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정규교과는 물론 비교과 활동을 위한 학습자원으로써 신문의 활용영역을 넓혀 준 것이다.

### 3. 신문사 NIE 현황

#### 1) 신문사 NIE 현황

국내에 NIE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5년 무렵이지만<sup>6)</sup> 실제로 NIE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1994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신인 한국언론연구원은 서울 소재 50여 개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NIE 연수를 실시했으며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NIE 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언론연구원, 1994). 또 5월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학교 교육에 NIE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을 교육부 장관 앞으로 보냄으로써 NIE 도입을 위한 국내의 움직임은 차츰 본격화되었다.

NIE 프로그램이 지면으로 나타난 것은 1995년이다. 국내 신문 중에서 가장 먼저 NIE를 지면에 게재한 신문은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1995년 3월에 NIE 고정지면을 발간하는 외에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했다(황유선 · 박진우 · 김위근, 2011).

---

6) 신문협회는 1985년 한국에서도 NIE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초 자료조사 차원에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협회보 9월 15일자에 게재했다.

이어 1996년에는 『강원일보』가 NIE 지면 발행을 시작했고, 1997년에는 『소년한국일보』, 1998년에는 『소년조선일보』와 『소년동아일보』, 2000년에는 『경향신문』이 그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역 일간지들이 참여하면서 신문사의 NIE 활동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3년에는 『매일경제』, 『경남신문』, 『전북도민일보』, 2006년에는 『경북매일』, 『전북일보』, 2007년에는 『한겨레』, 『서울신문』, 『대전일보』, 그리고 2008년에는 『조선일보』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9년에는 『한라일보』가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라는 지면을 발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 NIE가 점차 위기상황으로 인식되는 종이신문의 미래를 담보해 주는 효율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국내 신문계 전반으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일간지 9개사, 지역 일간지 13개사 등 22개 일간지가 다양한 형태의 NI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9년(13개)과 비교하면 9개사가 늘어난 것이지만 2010년(26개사)과 비교하면 4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신문사 NIE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신문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이상현, 2009; 김기태 · 이연 · 허병두 · 이소현 · 고은희, 2010).

이 중에서 NIE 지면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는 종합 일간지 6개사, 경제지 2개사, 전문신문 1개사, 지역 일간지 5개사 등 14개사다. 이는 전체 일간지의 약 13%<sup>7)</sup>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73%)<sup>8)</sup>이나 미국(63%)<sup>9)</sup>비교할 때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7) 2012 & 2013 전국언론인명록(한국언론진흥재단, 2012)에 등재된 일간지 수에 기초한 것이다.

8) 일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pressnet.or.jp>) ‘ヘンドライノ’ 참조.

9)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http://www.nwintimes.com/app/nie>) 참조.

## 2) 신문사 NIE에 관한 기존 연구

신문활용 교육은 신문과 교육이 만나는 곳에서 출발한 것으로 신문사와 학교 현장이 두 축을 이룬다. 이렇듯 신문사 NIE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교 현장의 NIE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신문사 NIE의 전반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나마 지금까지 이뤄져 온 연구도 인상 분석을 기초로 신문사 NIE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지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신문사 NIE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한국신문협회(2012)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신문사 NIE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문사 NIE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신문사 내에서 NIE 지면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업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NIE 지면을 제작하는 신문사의 절

〈표 2-5〉 NIE를 실행하는 신문사(2012년 6월 기준)

전국 일간지	지역 일간지
동아일보	강원도민일보
세계일보	강원일보
조선일보	경남도민일보
중앙일보	경남신문
한겨레	매일신문
한국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경제	부산일보
한국경제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제민일보
	중부일보
	한라일보
9개사	13개사

\* 각 신문사의 지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임.

반(50.0%)이 '1명 이하의 기자'만 배치했으며, 이런 인력 구조로 인해 NIE 지면은 외부 집필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NIE 지면을 만드는 신문사의 75%가 고정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NIE 지면 제작에서 관련된 콘텐츠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규와 심영섭(2010)은 '신문사의 경우 미래의 독자 확보를 위해 투자해야 할 당사자지만 신문 업계의 열악한 환경과 NIE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밖의 연구로는 신문사 NIE에 대한 각론 차원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인데,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대학입시와 논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면 제작 경향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김동규와 심영섭(2010)은 '신문사 NIE가 신문사의 장삿속에 의해 논술을 대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략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즉 NIE가 본래의 취지인 '인지능력 강화'를 벗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NIE 지면뿐만 아니라 교육면 혹은 교육 섹션에 대해서도 자주 제기되는 문제다. 조수선(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주요 신문들이 발간하는 교육 섹션의 콘텐츠는 뚜렷하게 학습, 영어, 유학, 입시 등에 치우쳐 있고 취재원이나 기고자의 경우도 학원 또는 사적 관계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혜·황하성·장윤재(2011)의 연구 역시 교육 섹션에서 대학입시 중심의 제작 경향을 지적하고 '대학입시가 독자들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라는 신문사 내부의 뉴스 선정기준이 크게 작용한 탓'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문기사의 질과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도 자주 제기된다. 예를 들어 황유선·박진우·김위근(2011)은 'NIE를 하는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신문 자체의 퀄리티 하락'이라고 지적하고 '그나마 사양길에 있는 신

문이 퀄리티마저 의심받는다면 학교 현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옥(2009)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면이 신문사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치중해 학력, 학벌 위주의 교육관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가 짙게 반영된 기사가 여과 없이 제공됨으로써 편향된 주장이나 의견을 하나의 사실로 믿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NIE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재단(2006)의 조사에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문기사의 편향성'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때 신문의 퀄리티나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03

## 외국의 NIE 동향과 사례

### 1. 일본

#### 1) 일본 NIE의 역사와 현황

독자 이탈을 중심으로 한 신문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나마 안정적인 신문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일본이 있다. 뉴미디어의 출현에 비교적 둔감했던 일본 신문시장 역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가구당 정기구독률이 0.88에 이를 정도로 안정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sup>1)</sup>

일본 신문이 이렇듯 안정된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한편에 일본 신문협회와 각 신문사들이 전개해 온 신문 읽기 및 NIE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역시 신문 발행 부수가 점진적으로나마 감소하고 있지만 1996년 NIE 사업을 처음 전개한 이후 NIE를 실시하는 신문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1월을 기

---

1) 일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pressnet.or.jp>) ‘調査データ’ 참조.

준으로 전체 신문 회원사 78개사 중에서 57개사가 지면에 NIE 고정 코너를 운영할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2)</sup>

일본에서 NIE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 신문협회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정부의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문자·활자진흥법」을 제정해 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에 개정해 2012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문읽기를 명문화했다.

이 장에서는 일본 NIE의 간단한 연혁과 함께 NIE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일본 신문협회의 NIE 사업과 각 신문사들의 NIE 사례 및 NIE와 관련된 최근의 제도·정책 등을 소개한다.<sup>3)</sup>

일본의 NIE는 메이지 시기에 ‘중등 교육과 신문지’(1905년, 메이지 38년)를 교재로 만들어 신문을 교육에 접목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에서 신문활용 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다. 일본 신문협회는 1986년에 해외 시찰을 통해 NIE의 사례와 방법을 습득하고 효과를 파악하고 1989년부터 전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NIE 실천 학교로 지정해 신문을 지원하는 등 일본의 NIE 기틀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NIE재단을 설립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또 1998년 3월에는 NIE 재단을 확대한 일본 신문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0년 10월에는 일본 신문의 발흥지라고 할 수 있는 요코하마시에 ‘NIE 전국 센터’를 개설했으며,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교육계, 신문계의 대표로 구성된 ‘NIE 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에서의 NIE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지면에 NIE 페이지를 고정적으로 운영하거나

---

2) 일본 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pressnet.or.jp>) ‘ヘッドライン’ 참조.

3) 이하 내용은 일본 신문협회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http://www.pressnet.or.jp/news/headline>)에 나오는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NIE 코너를 만들고 있는 신문은 57개사에 달한다. 이는 일본 전체 일간지의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2년 전(42개사)에 비해 136%가 증가한 수치다. NIE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중에서 43개사가 독립적인 제호를 가진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신문사 내에 교육계 출신의 NIE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신문사가 17개사(2년 전에는 13개사)였으며 유료 학습교재를 발행하는 신문사가 48개사였다(2년 전에는 37개사).

일본 신문협회는 또 신문읽기 확산을 위한 환경 구축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는데, 2011년 7월, 학교 내 NIE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을 포함, ‘모든 학교 도서관에 신문 비치와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했다. 문부성은 이에 화답해서 2011년 11월, 학교 도서관 정비계획 실행과 언어능력 및 인성 함양 차원에서 모든 도서관에 신문을 비치하도록 총무성에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2년부터 연간 15억 엔씩 5년간 75억 엔의 신문 구독료 예산이 확보되었다.

## 2) 일본 신문협회 NIE 활동

일본 신문협회는 산하에 NIE 위원회를 두고 신문 지원사업과 연구·PR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sup>4)</sup> 신문지원 사업은 신문협회와 각 신문사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신문 무료제공 사업은 1989년 초·중학교 각 1개씩 2개 학교를 지정하면서 실시됐는데, 1996년부터는 NIE 실천 학교로 확대되어 2012년의 경우 554개

---

4) 일본 신문협회는 산하에 11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박물관·NIE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동시에 또 하나의 독립 위원회인 미디어강화위원회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PR 활동을 주로 하면서 박물관·NIE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NIE위원회는 신문업계 종사자 외에 일선 교사와 교수 등이 함께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아사히신문』의 이이다 신야(飯田真也) 판매담당 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의 NIE 실천 학교를 지정, 운영했으며 2013년에는 604개의 실천 학교를 지정하여 신문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NIE 실천 학교에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각 지역에 소재한 NIE추진협회를 중심으로 기자들의 학교 방문 특강이나 학생들의 신문사 견학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진다.

NIE 실천 학교는 각지에 마련된 47개의 NIE 추진 협의회가 실천 지정 교 후보를 추천하고 신문협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천 학교에 대한 신문 제공은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교육용 신문 투입에 따른 신문사들 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사 간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신문 제공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

- NIE를 판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육 현장을 혼란시키지 않는다.
- 지역 추진 조직 내에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NIE 실천 학교에는 신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 교사들에게 NIE 수업방법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도 하는 NIE 어드바이저를 파견한다. NIE 어드바이저는 대부분 퇴직 교사들로 구성되는데, 교사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NIE 어드바이저는 지역별 NIE 추진협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신문협회는 지역당 5명 이내의 어드바이저를 두도록 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152명의 어드바이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 1회 전국 어드바이저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sup>5)</sup>

---

5) 박물관·NIE위원회는 2012년 7월 11일 회의에서 그동안 NIE 실천 학교에 지원해 왔던 신문 무료 제공사업과 NIE 어드바이저 활동 지원비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 신문사 단위의 NIE 활동을 촉구하고 NIE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

일본 신문협회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 외에 다양한 연구·PR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1996년부터 시행해 온 NIE 전국대회 개최다. 전국의 학교와 신문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NIE를 교류하는 이 행사는 강연회와 공개 토론을 통해 NIE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공개 수업과 실천보고회를 개최한다. 17 회째를 맞는 2012년에는 교사, 교육 행정가, 관련 학회 관계자, 신문사 관계자 등 1,780명이 참가했다.

신문교육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11월 첫째 주를 NIE 주간으로 정하고 각 신문사 및 지역별 NIE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NIE 주간에는 ‘우리 마을 신문 콩쿨’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제로 신문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카나가와현 NIE 추진협의회는 2012년 행사에서 NIE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요코하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미디어의 관점에서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 신문협회는 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신문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한 소감이나 새로운 제안을 담은 내용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함께 읽자 신문콘텐츠트’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신문협회 외에 문부과학성, 공익 사단 법인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단 법인 일본PTA전국협의회, 공익 재단 법인 문자·활자문화추진협의회, 일본NIE학회 등이 공동 주최 형태로 참여한다. 시상은 초·중·고 최우수상 각 1점, 심사위원특별상 1점, 우수상 30점, 장려상 123점, 학교 대상 특별상으로 나누어진다. 2011년의 경우 23,298점의 작품이 응모했는데,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관심 있는 신문 기사를 선택해서 고정 포맷으로 주어진 워크시

---

는 등 교사 중심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트에 오려 붙이고 그 밑에 기사를 선택한 이유를 기입한다.

-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자신의 감상과 의견, 예를 들면 그 기사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것, 감동한 것 등을 써 넣는다.
- 가족이나 친구, 동급생 등에 자신들의 기사를 읽어 달라고 부탁한 후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내용을 기입한다.
- 가족이나 친구, 동급생 등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후 자신의 의견 · 감상 · 제언을 기입한다.

일본 신문협회는 또 협회 홈페이지에 ‘읽어 두자(よんどく)’라는 NIE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개그맨이 등장하여, 신문 읽는 법이나 신문의 유용성 등을 중심으로 사이트 방문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일본 상지대학교 신문학과 3학년에 재학하면서 유명 TV 탤런트로 활약하고 있는 하루카 크리스틴이 등장해 신문읽기의 유용성과 자신만의 신문읽기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또 전국 종합 일간지, 경제신문, 지역일간지 등의 주요 신문 기사를 별도로 소개하고 해설하는 코너도 두고 있다(<http://www.readme-press.com/>).

일본 신문협회는 그밖에 전국의 NIE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계간 NIE 뉴스를 발행하고(1994년 11월 22일 창간) 2000년 이후에는 일본 신문박물관(뉴스파크) 뉴스도 게재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NIE를 실천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가이드북을 제작, 유료로 배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의 시행에 맞춰 신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수록한 중학생용 NIE 가이드북을 제작해 유료(350엔)로 배포했다.

일본 신문협회 내에서 NIE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는 박물관 · NIE위원회지만 협회 산하의 미디어강화위원회 또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미

디어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NIE 관련 사업은 ‘해피뉴스 경진대회’와 ‘대학 NIE 강좌 운영’이다. 해피뉴스 경진대회는 신문독자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또 교감을 넓히기 위해 2005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신문 기사를 읽고 행복해진 사례나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2012년도 대회에는 총 12,879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약 90%가 초·중·고등학생들의 작품이었다.

미디어강화위원회는 박물관·NIE위원회와 공동으로 신문읽기와 관련하여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도 신문읽기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학 NIE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13개 신문사가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사는 동경대학에 저널리즘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 기부 형태로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호쿠신문사는 미야기교육대학교에, 주니치신문은 아이치교육대학교와 제휴하여, 그리고 서일본신문사는 후쿠오카교육대학교에 NIE 교수능력 육성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시나오마이니치신문은 신슈대학교 교육학부와 제휴하여 ‘신문활용 교육 개론’ 강좌를 개설했고 나머지 신문사들은 교원 양성과정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 3) 교육용 신문 할인제도와 신문 저작물 이용

일본 신문의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각 신문이 자율적인 형태지만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용 신문에 대한 할인제도를 공식화하고 할인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은 조간신문의 경우 1부당 정가가 150엔이지만 교육용 신문에 한해 10부 이상 단체 신청할 경우 73%를 할인율을 적용한 40엔을 받는다.<sup>6)</sup> 요미우리신문은 1부당

6) 아사히신문 홈페이지(<http://digital.asahi.com/info/price/index.html>) 참조.

130엔 하는 조간신문을 교육용에 한해 10부에서 30부까지는 40엔, 31부 이상은 30엔의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다.<sup>7)</sup> 지방지인 주니치신문도 10부에서 20부까지는 40엔, 21부 이상은 30엔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지 역시 이와 유사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sup>8)</sup> NIE 실천 학교를 통해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신문 구독료 할인을 적용은 학생들의 신문 접촉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각 신문사들이 자율적이지만 많은 신문이 적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기사를 포함한 신문 저작물 무료 이용 서비스 제공이다. 학교에서 신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저작물 복제에 관한 저작권법」에 의해 ‘교내 수업용으로 사용할 때’,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 활동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시험문제로 사용할 때’에 한해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제작하거나 교사 연수를 할 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각 신문사들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학생들의 언어활동 향상을 위한 신문활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교재 제작이나 교사 연수 때도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을 포함 일본 전국에서 23개의 신문사가 이와 같은 협정을 통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며 미야자키 일일신문은 신문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했다.

---

7)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http://www.434381.jp/26>) 참조.

8) 주니치신문 홈페이지(<http://www.chunichi.co.jp/koudoku/>) 참조.

#### 4)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과 NIE

2011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던 일본의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이 올 4월 들어 중학교 학생에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NIE에 대한 관심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이 추구하는 방향에서부터 그 내용과 적용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신문의 중요성이 명확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NIE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http://nie.jp/study/>).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이 추구하는 핵심목표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육성’, ‘주체적인 학습습관 배양’, ‘언어활동의 충실’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 교육과정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수 및 학습자원으로서 신문의 의미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2012년부터 시행하는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과에서 종이신문으로 지도 혹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전체 교육체계에서 필요한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신문협회에서 주도한 NIE 20년의 성과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21세기를 ‘지식기반 사회’로 규정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며 신문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신문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 언어 및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써 학생들이 협동활동을 익히고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보의 정확한 읽기와 활용 능력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요 교육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각 교과별 해설서에  
서 NI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5, 6학년 ‘쓰기’ 교과에서 NIE의 적용

목표: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대상이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문장  
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한 후에 그에 부합한 글쓰기  
를 해 본다.

내용(언어활동 예):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의견을 기술  
한 다음에 학급신문의 특성에 맞게 편집해 본다.

해설: 학급신문 게재를 목표로 문장을 쓰고 편집해 보는 것은 일정한 목적  
하에 여러 문장을 동시에 표현해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  
어 자신의 의견이나 활동보고 내용을 문집, 책, 신문, 전단지나 팸플릿 등  
으로 편집한다고 가정하고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편집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 경우 실제의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의 편집형  
식에 맞춰 제목과 서문, 목차를 달아 보는 훈련을 한다.

둘째, 편집 및 기사 작성 방법을 알아본다.

셋째,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신문의 지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  
본다.

넷째, 신문이나 인터넷, 학교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비교, 검  
토한다.

다섯째, 논설과 보도 등에 담긴 정보를 비교하여 읽기 언어활동을 한다.

▷ 중학교 3학년 ‘읽기’ 교과에서 NIE의 적용

목표: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문장의 전개나 표현 방법 등을 평가하면서  
읽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독서를 통해서 자기 향상을 꾀하는 태도를 기  
른다.



내용(지도사항): 문장을 읽고 구성 및 배포, 표현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글을 읽고 인간, 사회, 자연 등을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설명: 여러 문장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은 문장의 구성과 전개, 표현 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장의 형식에 대한 특징과 효과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으로는 교과서나 책 등에 게재된 글이나 문장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광고, 팸플릿이나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또 각 문장에 대해 집필자의 의도와 표현 방법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신이 글쓰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언어활동의 예): 논설과 사실기사 등에 포함된 정보를 비교하고 읽는다.

해설: 논설은 사건이나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신문 문장의 한 형태다. 논설 집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논지를 전개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이나 잡지에 자주 나타나는 사실 기사에 대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 ▷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에서 NIE의 적용

목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전개를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지리적 조건과 세계의 역사와 연결, 현대의 여러 문제에 착안하여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 국제 사회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기른다.

내용: 현대 사회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사를 배우는 의의를 알게 한다.

해설: 사회와 경제가 복잡화된 현재의 시대상황에서,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해가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사건과 마주하면서 실제 사회의 과제를

해결해 본다. 이를 위해 근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측면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권, 환경, 정보, 국제 이해 등의 현대적인 여러 과제 외에, 신문 등에서 보도되는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흥미·관심을 가지기 쉬운 사회적 사건을 언급해 본다. 이를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의 당사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관점과 생활 감각에 맞는 의문을 장려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방법과 자료를 찾게 하면서 역사 공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집단 간 관계 및 대외 관계의 이해 불일치 등에 주목하고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기 위해 어떤 방법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나아가 학생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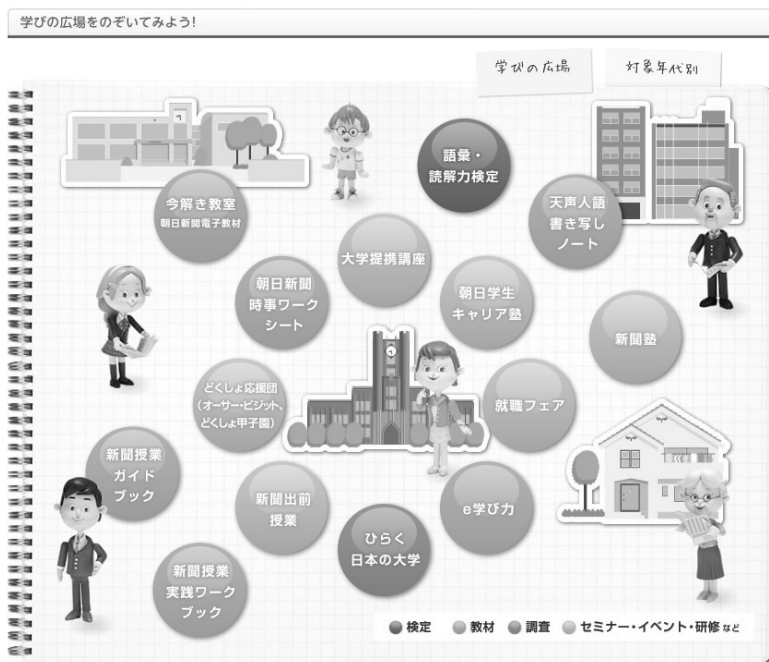
## 5) 주요 신문사의 NIE 실천사례

### (1) 아사히신문

일본 내에서 신문사 NIE를 선도하고 있는 아사히신문은 2012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에 맞춰 조직 개편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면과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3월 1일을 기해 교육종합센터를 개설했는데, 이 센터는 과거 교육사업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본부에 있던 NIE 사무국과 독서진흥 사무국, 그리고 기자학교를 포함한 대학협력부, 판매부의 취업지원 업무 등을 통합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또 6월 14일 교육종합센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 [manaあさ\(www.asahi.com/shimbun/edu.html\)](http://www.asahi.com/shimbun/edu.html)를 신설했다. 이 사이트는 젊은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한 사이트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트위터에는 교육과 관련된 기사와 이벤트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페이스북은 젊은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신문친화적 마인드를 확산시

〈그림 3-1〉 아사히신문 まなあさ의 초기 화면



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3-1〉은 마나아사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함께 별도의 NIE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사를 활용한 수업 예제(この記事を手がかりに)

학교 현장의 NIE 교사들이 최근에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NIE 학습방법과 요령을 알려주는 코너다. 예를 들면 2012년 6월 29일 자 아사히신문에 실린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립

학교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교실 에어컨 설치가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절전 및 예산 사용의 효율성 문제 등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주 1회 게재한다.

#### ② 노노창의 과학코너(ののちゃんのD O 科学)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과학적 상식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지도하면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코너다. 이를테면 그러한 의문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부터 과학적인 접근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많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도 제시한다. 올해 아사히신문의 이 코너에서 다룬 주제들은 ‘감기에 걸리면 왜 열이 나는가?’, ‘돌고래가 선보이는 묘기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비누 향은 왜 오래 지속되는가?’ 등이다.

#### ③ 신문교실 수업 참관기(しんぶん@教室 授業拝見)

신문을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의 교실이나 NIE 행사장을 찾아가 그 현장을 증계하는 코너다. 이 코너를 통해 신문활용 수업의 각종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와 연관해서 수업하는 장면 외에 신문으로 하는 진로 수업, 신문을 활용한 지진 대처방안 등 다양한 교실 수업사례를 보여 준다. 2012년 4월 들어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이 실시된 이후 ‘새로운 학습 지도요령에 맞춰 신문활용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한 참관기도 자주 소개했다.

#### ④ 노노창의 종합학습 코너(ののちゃんの自由研究)

신문활용 교육을 위해 아사히신문이 직접 제작한 기사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NIE 방법들을 제시한다. 내용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내용 해설 등을 제공하면서 생각의 나래를 넓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NIE 종합 학습자료인 셈이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스토리를 엮어 가면서 동영상 활용하여 대화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에는 이 코너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생각해 볼 점, 추가로 탐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 등을 ‘더 알아보기’란 코너로 제시한다. 또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사회 캠페인성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장단기 미래 액션플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한다.

아사히신문은 그밖에 NIE 활성화를 위해 창간한 NIE 메일 매거진을 1주 간격으로 발행한다. 주요 내용은 아사히신문사가 실시하는 교사용 이벤트 안내, 최신 아사히신문 지면 중에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사 등을 소개한다. 회원으로 등록(무료)하면 수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면 이미지 형태로 기사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수업에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해당 교과목은 사회, 국어, 이과, 수학, 보건체육 등이다. 영어수업용으로 『아사히 위클리』 기사도 활용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또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아사히신문 기사를 각 학교에 파견하여 최신 뉴스나 기자의 업무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고 연간 4회에 걸쳐 ‘교사를 위한 신문강좌’를 개최한다.

## (2) 요미우리신문

요미우리신문사는 편집국 내에 NIE 사무국을 두고 별도의 홈페이지(<http://www.yomiuri.co.jp/nie/index.htm>)를 통해 다양한 NIE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사용 가이드(先生用ガイド)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신문을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NIE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1개월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그 달의 시사성 이슈로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2012년 3월에는 ‘잊어서는 안 될 동일본 지진’을 주제로, 8월에는 2차대전과 관련하여 ‘평화를 생각한다’, 또 12월에는 ‘올 1년을 되돌아본다’는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NIE를 처음 접한 교사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방법이 쉬운 것이 특징적이다.

### ② 신기한 신문활용(わくわく新聞活用)

매달 시사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픽, 사진, 그림 등을 조합한 스토리 형태로 제시하고 그 이슈에 대해 이해와 다양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6월에는 런던올림픽에 맞춰 올림픽에 관한 특집 NIE를 다루었다. 이 코너에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이번에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를 시작으로 올림픽의 기원과 연혁, 근대 올림픽의 의미와 역사, 일본의 올림픽 참가 역사와 수상 실적, 올림픽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일본의 올림픽 참가 대표 선수들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코너를 구성하고 있다.

### ③ NIE 세미나(NIEセミナー)

요미우리신문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관한 소식과 정보를 게재한다. 연간 2, 3회 개최되는데, 주로 일선학교 NIE 담당교사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 기자나 소설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읽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 도쿄 본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매년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사 회의실에서 ‘NIE 토요살롱’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NIE를 실천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NIE에 관심이 있는 교사 및 교육관계자들이며 함께 스터디하고 토론토 하며 신문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에서 개최된다. 2009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요미우리신문의 NIE 기획디자이너가 진행을 담당한다. 매회 약 15명의 NIE 교사가 참가하여 NIE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현장 기자의 취재 이야기 등도 소개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자사 기자를 학교에 파견하여, 사회 및 정치 동향, 환경, 복지, 스포츠, 취재 방법, 기사 작성 방법, 신문제작 방법 등을 소개한다. 희망하는 학교가 희망일을 선택하여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직 경험이 있는 NIE 사무국 직원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수업 계획에 맞추어 실천적인 신문활용법을 지도한다. 희망하는 학교가 희망일을 선택하여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 (3) 마이니치신문

마이니치신문은 2012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 시행에 맞춰 '교육·신문본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별도의 NIE 홈페이지(<http://www.mainichi.jp/>)를 개설하고 있는데 다른 신문에 비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문을 교재로 활용하려는 교사,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매회 정해진 주제에 맞추어 기자가 취재 현장을 소개한다. 올림픽 취재 뒷이야기, 지진 재해 현장 리포트 등을 실제로 취재한 담당 기자가 직접 소개한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 신문문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교사가 다양한 사례 및 향후 제안을 교환한다. 2010년 4월부터 매월 1회(토요일) 개최하고 있다.

신문기자와 학교와의 교류를 위해 NIE 실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기자

를 파견하고 있다. 강연희망일, 시간, 주제 등을 신청 학교에서 결정하여 신청하면, 관련 기자나 논설위원 등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뉴스를 해설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신문의 구조, 신문기자의 업무, 신문 읽을 때의 마음가짐 등도 설명하는데 이는 현실 사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생각하며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제 해결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가 희망하는 주제에 맞추어 정치, 경제, 국제, 사건, 스포츠, 과학, 환경 등 관련 전문기자를 파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사는 2012년 8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출장수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서포터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사내 직원 중에서 전문분야가 있고 과거 파견 수업 경험이 있는 직원 95명을 1기 서포터로 임명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서포터에는 기자뿐만 아니라 광고 및 사업부서 직원 등도 포함된다. 서포터의 자격 기준은 사장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서포터 인증위원회에서 부여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해서 매년 지정된다.

## 2. 미국

### 1) 미국 NIE의 역사와 현황

미국의 NIE는 오랜 전통을 가지는데 그 시원은 170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동부의 메인주에 소재한 『포틀랜드 이스턴 헤럴드(The Portland Eastern Herald)』지는 1795년 6월 8일 자 사설에서 “...신문의 유용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져 왔지만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간과되어 왔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정에서 신문을 읽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효과다. 신문은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건과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다른 나라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습득하는 데 더 없이 싸고 좋은 학습자원이다...”라고 밝혔다.<sup>9)</sup> 당시 신문활용 교육에 대한 공식 명칭은 없었지만 이 지역의 학교에서는 『포틀랜드 이스턴 헤럴드』지를 교재로 학생들에게 지리와 경영법, 농촌과 도시의 생활상,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에 가르치기도 했다(김동규·심영섭, 2010).

이후 미국에서 신문의 교육적 유용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신문이 교수 및 학습자원으로서 학교 교실에 투입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였다. 1932년 미국 뉴욕시 소재의 학교 교사들이 뉴욕타임스에 교육용 신문을 요청했고 당시 발행인의 부인인 이피진 옥스 설즈버거(Iphigene Ochs Sulzberger)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신문과 새로 발행되는 신문을 섞어 무료로 교실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신문 제공과 함께 교사 연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명칭은 없었는데 1940년대에 들어 신문이 하루 단위로 신선한 교재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과서 프로그램(Living Textbook Program)’으로 불리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 교실에 신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신문사에도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신문발행인협회(Americ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ANPA)<sup>10)</sup>가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가면서 ‘신문활용 교실(Newspaper in the Classroom)’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11)</sup>

1960년대에 들면서 NIE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신문사가 지역 일간지를 포함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신문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원들도

---

9) The Daily Astorian 홈페이지(<http://www.dailyastorian.com/main.asp>) 참조.

10) 미국 신문발행인협회는 1992년 미국 신문협회(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NAA)로 명칭이 바뀐다.

11)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http://www.nwtimes.com/app/nie>) 참조.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지역 일간지에서 교실에 제공하는 신문은 대부분 무료였으나 일부 신문은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1965년에 미국 신문발행인협회는 교실에 제공되는 신문을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 NIE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신문사가 35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캐나다에도 확산되었다. 캐나다신문협회는 교육 자원으로서는 신문의 활용범위를 넓혀 갔는데, 단순히 교실환경을 넘어 학교 외 기관이나 조직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명제하에 이 프로그램을 ‘신문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으로 명명했고 미국 신문발행인협회는 1976년에 이를 공식 명칭으로 설정했다.

1980년에는 미국 신문발행인협회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육단체와 연대 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국제읽기협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와 제휴를 통해 매년 3월에 NIE 주간(NIE Week)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신문을 활용하는 학교의 영역이 유치원에서 대학 그리고 성인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병원, 형무소에도 적용범위를 넓혀 갔다. 또 학교에 제공되는 신문에 대한 기증이나 기부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NIE를 시행하는 신문사가 70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들어 신문 발행 부수가 점차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자 미국 신문 경영진들은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에 따라 NI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포함해서 청소년용 신문 콘텐츠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이와 함께 NIE용 콘텐츠를 신문의 고정 지면으로 편성하는 신문사도 늘어났다. 1990년대 말의 NIE 시행 신문사는 85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에 들어 95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미국 전체 공립학교의 40%에 가까운 학교에서 NIE 프로그램이 실행될 정도로 확대되었다.<sup>12)</sup>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종이신문에 대한 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미국 신문 역시 시련기를 맞고 있지만 NIE를 포함, 젊은 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NIE용 신문이 2000년만 해도 전체 일간지 발행 부수의 2.4%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7% 수준까지 늘어났다(NAA, 2011).

## 2) 교육용 신문 구독료 조성방법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는 신문 부수는 전체 일간지 발행 부수의 약 7%에 해당하는 315만 부 정도다(NAA, 2011).<sup>13)</sup> NIE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교육용 신문을 무료로 학교에 제공했으나 1960년대 후반 이후 학교에 제공되는 신문의 부수가 많아지면서 기부금 등 다양한 형태로 신문 구독 비용을 조성했다.

최근 미국 신문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신문사에서 학교 교육용 신문비용을 조성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모금(fundraising) 방식으로 전체의 28% 정도를 충당했다(NAA, 2011).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기업 기부(grants and/or sponsorships-advertisers)로 약 24% 정도를 충당했으며 그 뒤를 이어 휴가 기부(vacation donations, 21%) 신문사 자체 부담 17%, 학교 신문 구독료 예산(subscriptions, 8%) 등의 순이었다.

이 자료를 보면 미국 신문사에서 교육용 신문을 보급할 때, 자체 예산 약 17%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NIE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교

---

12)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http://www.nwitimes.com/app/nie>) 참조.

13) 이 수치는 미국 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naa.org/Trends-and-Numbers/Circulation>)에 나오는 2011년도 평일판 추정 발행 부수를 기초한 것이다.

〈표 3-1〉 미국 신문의 교육용 신문 구입비용 조성 방식

분류	비율(%)
모금(fundraising)	28
기부(grants and/or sponsorships-advertisers)	24
휴가 기부(vacation donations)	21
신문사 자체 예산(newspaper and/or parent company)	17
학교 구독료 예산(subscriptions)	8
기타(other)	2
계	100

육용 신문 지원'이고 이러한 사실을 신문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과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신문의 학교 교육용 신문비용 조달방식은 자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미국 신문의 학교 교육용 신문 구독료 조달방식을 자세히 소개한다.<sup>14)</sup>

## (1) 모금

미국 신문사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조달방식은 모금이다. 미국 신문에서 자주 활용하는 이벤트는 스포츠를 통한 이벤트, 복권 판매, 특정 상품

14)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언론연구원(2010)에서 발간한 보고서 *Guide to Newspaper Educational Programs*에서 발췌한 것이다. 미국의 신문잡지 발행 부수 조사 기구인 ABC가 2010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행 부수 분류체계를 개정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특히 두드러진 내용은 '세부 확인 부수'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다. 세부 확인 부수란 무료 배포지나 신문활용 교육(NIE) 등으로 정부나 학교 등이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매체의 발행 부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매체는 그동안 '기타'로 분류돼 왔지만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세부 확인 부수'에 적용돼 관리된다. 이 보고서는 신문사 NIE 담당자들이 새로운 개정안을 잘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을 구입해서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하는 것 등이다.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 모금활동이 스포츠 이벤트인데, 다음과 같은 광고문안은 신문사 사고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다.

“참가해서 골프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교실에 신문을 기부할 돈을 버세요! 가제트신문사는 7월 12일 그린힐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 경기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제트의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될 10달러를 포함한 100달러입니다. 화창한 햇살과 함께 골프 챔피언십을 즐기고 여러분 자녀의 교실에 신문을 제공해 주세요! 만약 기부하실 생각이 없으면 토너먼트 참가비 90달러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참가자가 100달러를 내면 10달러는 교육기금으로 적립된다. 또 특정인이 토너먼트에 공짜로 입장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홍보 팸플릿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100달러 전액을 기부하고 그 돈을 교육용 신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복권 판매에 의한 모금은 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신문사가 먼저 복권용 상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교육용 기금을 얹어서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때 신문사는 교육용 기금이 장당 얼마이고 교육용 기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 (2) 기업에 의한 기부

기업의 기부는 소매업자, 기업, 혹은 광고주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기금이다. 기업의 기부는 직접 현금기부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품 기부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신문사에 현금 대신 상품이 기부될 경우 신문사는 그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교육용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기업은 신문사와 기부 외의 어떤 다른 거래관계가 없이 신문사의 NIE 용 펀드에 돈을 기부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기업이 광고 구매 등과 같이 신문사와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면 NIE용 기부는 그 다른 거래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기부 중에는 광고 구매를 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NIE용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비가 250달러라면 광고주는 광고비 250달러와 별도로 50달러의 NIE용 후원금을 보태 300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 또 '2센트 프로그램'이란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소매업자가 신문사에게 교육프로그램 기부로써 팔리는 모든 신문에 2센트를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약정한 2센트는 명확히 선택사항이며 그 기부는 그들의 정상적인 사업 거래비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기부의 또 다른 방식은 상품 기부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과 기업 등 20개의 사업체가 각 25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교육적 기부 차원에서 신문사에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총액은 500달러가 된다. 신문사는 이 상품권들을 경매에 부치거나 재판매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어 교육용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매에 부칠 경우 일반적으로 액면가보다 낮은 액수에서 입찰이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 경매의 결과로 25달러짜리 상품권 20장을 400달러에 판매하고 남은 금액을 교육용 기금으로 예치한다.

교육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인 기부는 개별 소비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현금 혹은 상품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금 대신 상품이 기부될 경우 신문사는 그 상품들을 판매해서 교육용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별 기부자 역시 기업 기부자와 마찬가지로 기부는 그들의 정상적인 사업 거래비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휴가 기부다. 일부 구독자들의 경우 신문사에 전화해서 2주 동안 신문을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휴가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신문 배달을 유예하는 경우다. 그 때 신문사는 그 휴지기 동안의 신문 구독료를 되돌려 주는 대신 교육용 프로그램을 위해 기부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본다. 구독자가 동의하면 원래는 그들의 계좌로 청구되었을 금액이 교육 기금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조건은 첫째, 개인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교육용 신문을 위해 구독료 일부를 기부한다고 동의했을 때, 둘째, 구독자의 계좌에서 교육기금으로 옮겨진 돈의 액수가 신문사가 청구한 액수가 같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 구독이 만기로 종료되지 않을 때다.

개인 기부의 또 다른 형태로 구독 청구서나 구독계약 갱신을 통한 기부가 있다. 구독계약을 갱신할 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안내문을 통해 교육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52주에 100달러', '26주에 50달러', '13주에 25달러' 등의 보기를 제시하고 갱신하고 싶은 기간을 표기하도록 요청하고 그 아래에 교육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부난을 만들어 액수를 적게 한다.

그밖에 휴면계좌의 잔고를 활용한 기부도 있는데 이것은 신문사가 정기적으로 구독자의 휴면계좌에 있는 잔고를 확인시켜 주고 그 잔고를 교육용 프로그램을 위해 기부할 것을 요청하는 형태다. 당사자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위해 잔고를 기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돈은 기부금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기부자에게 명확하게 연락을 취했고 그 돈을 환급하는 대신 기부하는 데 동의했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 3)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과 그 사례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에서 신문활용 교육이나 신문 읽기 진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책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신문사나 관련 단체,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박동숙·

이경숙·정수영, 2010, 5~6쪽).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변되는 미디어환경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신문산업 또한 위축되고 있지만 청소년 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미국 신문계가 미래 리더십 기반 구축에 사활을 걸고 이유는 청소년 시절의 신문 접촉 경험이 성인 시절의 리더십에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일련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들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 신문협회가 2004년에 수행한 “성장하는 평생 독자들: 학생 시절의 신문 접촉 경험이 성인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다(NAA, 2005). 이 연구는 ‘신문의 리더십 패턴이 일반적으로 25세에서 30세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신문리더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미국 전체 인구 중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남녀 6,700만 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랜덤 샘플링(random digit dial sampling)을 통해 1,500명의 응답자를 추출했다.

이 연구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학생 시절의 신문에 대한 경험이었다. 이를 위해 2개의 신문 노출 지수를 개발했는데 하나는 ‘교실로 신문이 배포되었는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탐구나 읽기, 수학, 기타 다른 과목의 일부로 커리큘럼에 통합된 NIE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다. 이 두개의 노출지수는 ‘0’(전혀 해 본적이 없다)에서 ‘6’(각각의 학교급에서 두 형태에 모두 경험을 했을 경우)까지에 이르는 측정점수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노출지수를 바탕으로 고관여, 중관여, 저관여에 이르는 3개의 관여도 수준을 추출했다. 고관여 학생은 신문 관여도가 높은 학생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신문 참여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노출을 한 응답자군이다. 중관여 학생은 중간 정도의 노출을 한 응답자들로 전형적으로 신문이 수업시간의 커리큘럼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었



으나 교실로 신문이 배포되지 않았던 경우의 학생들이다. 저관여 학생은 공식 프로그램에 노출한 적도 없고 신문 자체를 교실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범주의 학생들이다.

신문 관여도 지수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을 구분한 결과 고관여 집단이 23%로 가장 적었고 중관여 집단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저관여 집단은 32%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초로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신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68%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의 신문 관여 경험이 성인이 됐을 때 신문구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관여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의 신문 정기구독률, 중관여 범주 응답자들의 신문 정기구독률, 그리고 저관여 범주 응답자들의 신문 정기구독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신문 관여와 성인이 됐을 때 신문 정기구독률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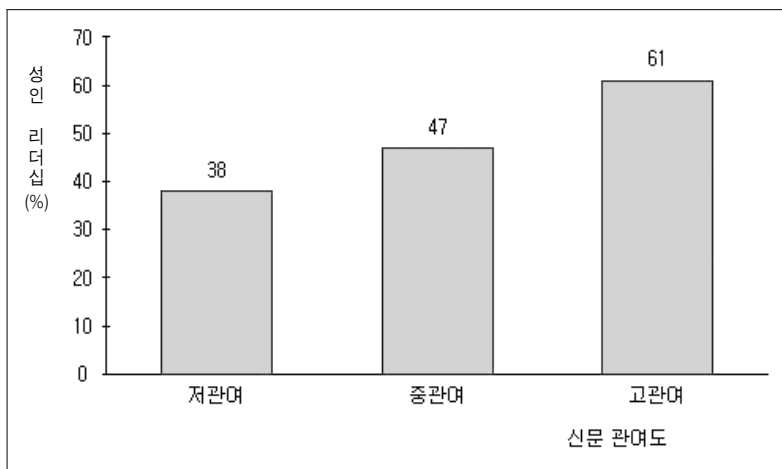
학교 시절에 신문 관여도가 높았던 응답자들은 61%가 성인이 되어서도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전혀 신문 노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신문 정기구독률 38%와 크게 대조됐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간 정도의 관여를 한 응답자들이 젊은 성인이 됐을 때 신문을 정기적으로 읽는 비율은 전체 평균치(47%)와 일치했다.<sup>15)</sup> 이 같은 결과는 교실에 신문이 배포되고 또 그 신문을 바탕으로 수업을 했을 때 성인이 되어 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다.

미국 신문협회에서 수행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연구는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용 신문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문구독에 어

---

15) 이 연구에서는 학생 시절의 신문관여도와 성인이 되었을 때 신문리더십 간의 상관관계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가구소득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이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분석을 실시했는데,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도 학생 시절의 신문관여도와 성인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학생 시절 신문관여도에 따른 성인 리더십 비율



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다.

미국 신문협회재단은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과 평생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콘텐츠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NAA, 2010).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 몇몇 신문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곤 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리를 확고하게 입증해 주는 그런 연구가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신문협회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성인에 대한 인터뷰를 기초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용 신문 콘텐츠를 접한 경험 여부가 미래의 신문 구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했다(NAA, 2006).

16) 노스웨스턴 대학의 리더십연구센터에 의해 개발된 독자행위 점수는 1부터 7까지의 점수 분포가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주중에 신문을 읽는 날, 신문을 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읽은 신문의 총량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는 지표다.

〈표 3-2〉 학생 시절의 신문접촉 경험이 미래 신문 구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전체 (평균)	둘 다 미구독	틴섹션만 구독	신문만 구독	둘 다 구독
표본비율	100	43	25	7	25
평일, 지난 주 신문구독비율	54	34	64	63	78
평일, 어제 신문구독비율	31	17	37	36	50
주말, 지난달 신문구독비율	58	37	64	70	81
주말, 지난주 신문구독비율	45	28	43	53	66
현 시점의 독자행위지수 <sup>16)</sup>	2.7	2.0	2.7	3.0	3.6

그 결과 학생 시절의 청소년용 신문 콘텐츠 구독은 훗날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시절에 신문의 청소년용 기사를 읽지도 않고 신문도 읽지 않은 응답자들은 전체의 34%만이 1주일에 최소 1번 신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학생 시절에 청소년용 기사 섹션을 읽지 않았지만 신문을 구독한 응답자는 63%가 젊은 성인이 되어 신문을 구독했고 학생 시절에 신문도 읽고 청소년용 기사 섹션도 읽은 응답자는 78%가 현재도 신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다른 표준화된 평균 신문구독을 포함하여 평일판 신문 및 일요판 신문의 신문구독 매트릭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시절의 신문 접촉 경험을 성인 리더십으로 이끄는 데는 개인적 관여(personal relevance)와 개인적 연결(personal connections)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개인적 관여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기사나 청소년이 직접 작

성한 기사와 관련된 것이며 개인적 연결은 기사를 직접 써 본 경험,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 그리고 기사를 쓴 기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미국의 개별 신문사들이 젊은 독자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세계청소년독자상 장기 기획 부문 특별상을 받은 ‘마시(The Mash)’가 그 대표적인 예다.<sup>17)</sup>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발행하는 마시는 시카고 지역 ‘틴에이저들을 위해, 틴에이저들이 만드는 일종의 멀티플랫폼’이다. 마시는 학생 기자팀이 문화적 토픽은 물론 오사마 빈라덴과 같이 무거운 토픽에 관한 기사와 피쳐 기사를 발굴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쇄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 등을 결합하여 완성한다.

마시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학생 집필진의 역할이다. 『시카고 트리뷴』의 전문 기자들이 일부 지원을 했지만 기사 내용은 철저히 학생들이 주도했다. 3년 동안 시장에서 마시는 75,000부의 인쇄판 신문 발행 부수를 기록했고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확보했으며 인근 지역 학교를 포함해서 시카고 지역은 수많은 학교에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틴에이저들을 위해 틴에이저들이 만드는 신문 사례들이다.<sup>18)</sup>

#### (1) 버팔로 뉴스(The Buffalo News)의 『넥스트(NeXt)』

『넥스트』는 12페이지짜리 타블로이드판 틴 섹션이다. 1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발행하며 약 50개의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뉴욕의 8개 카운티에 약 30명의 기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틴 섹션의 내용은 가끔 그 신문사의 정규 기자들과 통신원들에 의해 보완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의 대부

---

17) 세계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wan-press.org/nie>)의 ‘Young Reader’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18) ‘NAA(2006). Lifelong Readers: The Role of Teen Content’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은 틴 기자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틴 스태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버팔로 뉴스는 신문조합(길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넥스트』 스태프들은 프리랜서로 간주되며 기사당 10내지 50달러의 기사 게재료를 받는다. 기사게재료 수준은 그 ‘기사의 질’과 ‘그 기사가 어디에 게재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 신문사는 1년에 한 번 『넥스트』의 스태프 기자 선발을 위한 광고를 내보내며 학교 교사들에게도 공지를 보낸다.

## (2) 스테이트 저널 레지스터(The State Journal Register)의

### 『보이스(The Voice)』

『보이스』는 매주 수요일에 발간된다. 1면과 점프 페이지로 구성된 별도의 섹션 형태로 그 섹션의 남아 있는 부분은 TV 관련 뉴스로 채워진다.

때때로 고등학생들이 다루기 힘든 기사일 경우 『보이스』의 편집인을 포함한 전문 기자들이 일부 거들기도 하지만 기사는 주로 틴에 의해 쓰여진다. 틴 섹션은 보통 틴 기자와 틴 사진기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태프 멤버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기획 회의를 하면서 피자 등의 파티를 연다. 틴 섹션은 젊은 기자들과 사진기자들 위해 신문에 보내지는 모든 경품들을 얻는다. 스태프는 보통 20명 내외의 기자와 사진 기자로 구성되며 인근에 있는 15개의 학교에서 선발해 운용한다.

## (3) 스탠더드 이그재미너(The Standard Examiner)의 『TX』

『TX』는 1페이지 반 정도의 크기인 대판섹션으로 월요일자 정규신문의 일부로 제공된다. 『TX』의 내용은 45명으로 구성된 틴 기자, 틴 사진기자, 일러스트레이터 등에 의해 쓰여진다. 이 신문은 그 신문의 배포구역 내에 있는 15개 고등학교에서 대표성을 띤 학생 1명씩을 기자로 임명해서 활용한다.

틴 기자들은 프리랜서와 같은 대우를 받는데, 기사당 25달러에서 40달러까지 지급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1개의 일러스트당 35달러가 지급되며 사진작가에게는 사진 패키지당 40달러가 지급된다. 전형적인 주일의 틴 섹션은 3~4개의 기사를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스태프 멤버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6주일에 한 번 꼴로 기사를 쓴다. 『TX』는 1년에 한 번씩 기자 충원을 위한 광고를 한다.

#### (4) 캔사스 시티 스타(The Cansas City Star)의 『틴스타(TeenStar)』

『틴스타』는 주중인 수요일에 발간된 3페이지짜리 특별 섹션이다. 이 신문은 신문 내 자체 광고를 통해 스태프들을 모집한다. 『틴스타』는 때때로 100명이 넘는 신청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스태프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 섹션은 80명 이상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학생기자들에게 별도의 급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스태프들은 기사와 다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매달 세 번째 일요일에 간단한 다과와 함께 미팅을 가진다. 학생기자들은 이 미팅에서 다가오는 지면에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이슈나 기사감에 관한 제안을 한다. 그는 그 섹션에 대한 카피에 앞서 약 3주간 일을 한다. 학생기자들에게 저널리즘의 기초를 익혀 주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 (5) 리딩(The reading)의 『보이스(The Voice)』

『보이스』는 매주 화요일 본지의 삼지형태로 제공되는 20페이지에 달하는 타블로이드판 섹션이다. 섹션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프리랜서 학생 기자의 수가 100에서 200명까지 이른다. 기자들은 초기 트레이닝 섹션에 참가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 트레이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사당 10에서 25달러의 급료를 받는다. 학생 기자들이 톱 클래스의 급료를 받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

‘복합적인 소스’, ‘AP 기사 스타일의 정확한 사용’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 기자 1인당 평균 1년에 3개 내지 4개의 기사를 쓰지만 한 달에 1번 이상 기사를 쓰는 학생 기자들도 있다. 학생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틈 섹션에 모두 게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기사는 본지의 면이나 웹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한다.

보이스는 1년에 두 번 신입기자 충원을 위해 본지에 공고를 내는데, 자질 있는 학생 기자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구하기 위해 편집인 지역 내 고등학교와 기술학교를 직접 방문한다. 스태프들은 그 신문의 배포구역 내에 있는 18개의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로 충원된다.

#### (6) 트리뷴 크로니컬(The Tribune Cronicle)의 『페이지원(PageOne)』

1990년 초반에 처음 발간된 『페이지원』은 한 달에 한 번 일요판 신문에 삽지로 들어가는 8페이지짜리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다 2000년대에 들어 주간으로 전환되었다. 15명으로 구성된 틈 스태프들이 기사를 핸들링하고 사진, 일러스트 레이아웃에 웹디자인까지 관할한다. 페이지원은 학기 중에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널리즘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5W1H 원리에 기초해 다양한 타입의 뉴스기사 쓰기 그리고 저널리즘 윤리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이르기까지 저널리즘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진다. 『페이지원』의 학생 기자들은 이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10명 내지 12명의 학생 기자가 선발되는데, 이들은 주말 기획회의에 참여해서 기사 아이디어를 내고 기사를 직접 쓰기도 한다. 급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미국청소년기자협회(Youth Editors Association of America; 후에 미국 신문협회 재단의 산하인 청소년기자연맹으로 개칭)는 청소년들의 저널리즘 활동을 장려하고 신문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13세 이상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청소년기자상(Youth Content Awards)<sup>19)</sup>을 수여한다. 1996년부터 시행한 이 상의 참가자격은 13세 이상 고등학생으로 한정된다. 시상부문은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 피쳐기사, 스포츠 기사, 피쳐소설, 1인칭 소설, 인물 프로파일, 베스트 칠드런 라이팅, 리뷰, 일러스트 및 그래픽, 보도사진, 만화만평 등이다.

### 3. 세계신문협회

세계신문협회(WAN-IFRA)<sup>20)</sup>는 1991년 이후 인쇄매체에 대한 읽기를 장려하고 언론 자유의 기본 정신과 함께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읽기 및 뉴스리터러시 촉진 프로그램들(youth engagement and news literacy programmes)을 실행해 왔다. 이를 위해 세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 공유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면서 NIE 등 읽기 문화 장려를 위한 각종 자문과 조사연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세계신문협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 세계 신문사와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세계청소년독자상이며 2012년에 새로 신설한 마이드림 인터뷰 콘테스트(My Dream Interview Contest) 역시 세계 신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두 행사는 단순히 신문읽기를 장려하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즉각적으로 실행

---

19) 미국청소년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americanpressinstitute.org/Resources/Awards>) 참조.

20)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신문기술협회(IFRA)가 2009년 6월 25일 합병된 기구로, 정식 명칭은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and News Publishers'다. 총 120여 개국 1만 8,000여 개의 신문·통신사와 1만 5,000여 개의 온라인 사이트, 3,000여 개의 언론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미디어 경영 및 기술 관련 국제회의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파리와 다름슈타트 본부 두 곳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가능한 전략과 방법론을 담고 있어서 독자 감소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신문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1) 세계청소년독자상

세계신문협회가 1998년부터 시행해 온 세계청소년독자상(The World Young Reader Prizes)은 지난 24개월 기간 동안에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활동을 한 혁신적인 신문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청소년의 신문 이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독자들에게 신문친화적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해 시작한 이 상의 핵심 시상분야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sup>21)</sup>

편집전략상(Editorial strategie)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지 부록이나 특별 지면을 제작한 신문에 주어지는 상이다. 신문 콘텐츠에 부여하는 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과 결합한 온오프라인 겸용 콘텐츠 등도 포함된다.

청소년기자 프로그램 부문상(Making the News)은 젊은 사람들에게 프로페셔널 신문 저널리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인 신문에게 주는 상이다. 청소년 전용 지면과 청소년들이 만든 콘텐츠가 주요 대상이다.

NIE 부문상은 신문을 교육 혹은 학습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한 신문에 주는 상이며, 공공부문상(Public Service)은 청소년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거나 리터러시를 증진시킨 프로그램 혹은 시민활동 참여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신문에게 주는 상이다.

신문브랜드 부문(Brand)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적 촉진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한 신문에 수여하는 상이다. 해당 프로

---

21) 이하의 글은 세계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wan-press.org/nie>)의 'Young Reader'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젝트나 활동이 신문사 경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신문사 활동은 신문의 지속가능성, 매출 증대, 부수 증대, 구독률 증가, 신문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상 외에 모바일 부문상(Connecting with Mobile), 장기기획상(Enduring excellence), 디지털 NIE 교사상(Digital NIE teachers) 등 3개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모바일 부문상은 휴대폰 등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신문과 연계하여 젊은층에게 접근한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하고 장기기획상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장기 기획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수여하는 상이다. 디지털 NIE 교사상은 교실에서 온라인 신문 콘텐츠를 활용해 혁신적 접근을 개발한 교사에게 주는 상이다. 이밖에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특별상도 있다.

주최 측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혁신전략이다. 특히 그 전략이 해당 신문이나 해당 국가를 넘어 다른 나라, 신문에 적용될 수 있을 때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각 분야별로 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수상자는 1,000유로의 상금과 함께 세계청소년독자 콘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2012년 대회 시상식에서 인도의 아이넥스트 신문사(I-Next)는 올해의 세계청소년독자상 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밖에 부문별 본상에는 말레이시아 더 스타(The Star)가 편집전략상, 푸에르토리코의 엘 누베오 디아(El Nuevo Día)가 청소년 제작신문상, 스웨덴의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가 브랜드 부문상, 그리고 필리핀의 데일리 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 신문사가 각각 차지했다. 수상 신문사들의 수상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청소년독자상 대상과 공공서비스 부문 본상을 차지한 인도의 『아

이넥스트』(평균 발행 부수 272,385부)는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젊은이의 힘’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이 신문사의 알록 산왈(Alok Sanwal) 사장은 “인도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투표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정치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다”면서 “북인도 젊은이들이 보여 주는 놀라운 상황에 우리는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 상황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아이넥스트 신문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먼저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포괄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젊은이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 지향적인 ‘I-vote운동’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과거 선거 여론조사에서 46%에 불과하던 청소년의 투표율을 2012년 2월의 여론 조사에서는 60에서 64%대까지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심사위원들은 “아이넥스트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을 선거 현장으로 나오게 하고 투표에 참가하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11년에 공공서비스 부문 본상을 받은 노르웨이의 『글람달렌신문』(Glåmdalen) 역시 유사한 프로젝트로 수상했다. 이 신문은 14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선거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2011년 11월에 시행될 지자체 선거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선거참여 프로젝트’(Politiskpepper election project)’를 운영해 왔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직접 지면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4명 단위로 구성된 학생 편집팀이 정치면 편집인의 감독하에 직접 오피니언면을 제작하면 그것을 매주 수요일 신문의 ‘톡톡 쏘는 정치(Politisk Pepper)’면에 게재했다. 그리고 이 면은 비디오, 블로그, 페이스북 사이트를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다양한 층의 참여를 촉발시켰다.

이 신문은 이 프로젝트 발주 전에 사전연구를 통해 캠페인 체계와 내용을 잘 정립했고 6개월 후에 중간조사를, 그리고 실제 선거 이후에 추가조

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 TNS 갤럽조사에 따르면 글람달렌은 그 캠페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젊은층 구독률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르웨이에 있는 50개 신문 중에서 젊은층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신문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별도의 경비를 들이지 않고 청소년 기자들을 어떻게 신문 뉴스룸으로 끌어들이어서 그들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편집전략상 본상을 수상한 말레이시아 『더 스타』(일일 발행부수 300,000부)지는 16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신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양한 참여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신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까지 프로젝트를 확대시켰다.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8쪽 분량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백만 명에 가까운 방문자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웹 사이트 및 블로그 시리즈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독자층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다. 『더 스타』의 청소년 플랫폼은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을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셜 미디어에 연결시키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2011년에 편집전략상 본상을 수상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심층 탐사보도한 기사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은밀하게 어린이들을 트래킹하는가”를 시리즈로 게재했다. 웹상에서 아이들이 일방적인 트래킹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이 기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온라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인터랙티브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

기 위해 별도의 학생용 지면을 만들어 4,500개의 고등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2011년 5월 2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추적을 방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많은 사이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이 기사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몇 가지 의미를 부여했는데, 탐사보도의 영역이 정치나 범죄, 부패에 영역뿐만 아니라 아이들 문제, 가족문제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2012년도 청소년 제작신문상은 ‘청소년의 사고전력’을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기사를 본지의 주요 면에 게재한 푸에르토리코 엘 누에보 디아(El Nueavo Dia) 신문사에게 돌아갔다. 2011년의 경우 청소년 제작 신문 상은 포르투갈의 군소신문인 『조날 더 노티시아스(Jornal de Notícias)』(발행 부수 88,426부)와 『디아리오 더 노티시아스(Diário de Notícias)』(발행 부수 23,675부)가 공동 수상했다. 조날 더 노티시아스는 회사에 저널리즘 학습센터를 설치해 놓고 비판적 사고력 키우기, 글쓰기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저널리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저널리즘 학습센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참가한 학생들이 신문기사와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면 우수한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상에 게재해 왔다.

디아리오 더 노티시아스 신문사는 10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랩을 운영해 왔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워크숍 형태로 학생들에게 저널리즘의 기초를 가르치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시청각자료들을 활용하여 기사를 포함한 학생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 신문사가 온오프라인 형태로 그것을 게재했다. 웹 플랫폼에 만들어진 웹 툴을 이용해 학교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놓기도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매일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심사위원 추천 청소년기자 프로그램상은 독일 일간지 『헤일브로네 스티메신문(Heilbronner Stimme)』(발행 부수 92,000부)이 받았다. 이 신문은 ‘초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기사’를 콘셉트로 전 지구 어린이날인 2010년 9월 20일에 맞춰 9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이 직접 기사를 취재하고 편집해서 1면에 게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8월에 참여하는 200개의 학교로부터 5명으로 구성된 편집팀이 선정되고, 리허설을 한 후에 10월 19일날 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주니어 편집팀의 작품이 1면에 게재되고 기존 프로페셔널 편집팀의 1면은 3면으로 옮겨 갔다.

이것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시각과 관심사를 1면에 편집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놀랄 만한 아이디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뉴스에 대한 게이트키퍼는 기자들이 한다’는 통념을 깨고 뉴스에 대한 결정권을 어린이들에게 주는 매우 선구자적인 접근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편집은 그자체가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베이 결과 독자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활용 교육 부문의 본상은 ‘청소년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필리핀의 데일리 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 신문사가 차지했다. 2011년도 NIE 부문상은 ‘읽고 생각하기(Read & Think)’ NIE 프로젝트를 수행한 브라질의 일간지 가제타 포보(Gazeta do Povo, 발행 부수 60,000부) 신문사에 돌아갔다. 이 신문은 신문을 활용해 학생들이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이들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NIE 지면을 만들어 시행했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 교사들은 물론 대학의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신문을 가지고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브라질 국가시험인 IDEB(Index Basic Education Development)의 읽기, 이해하기 그리고 논리적 추론 등급평가에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도

했다.

2012년 브랜드 부문 심사위원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일일 발행 부수 354,000부)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대회(The Big Spell)’를 개최했다. 디지털 시대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맞춤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한 이 행사는 신문 외에 온라인 TV 채널과 포털과 연계한 크로스 플랫폼 형태로 진행되었다. 싱가포르 전역에서 약 1,200명 정도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이 신문사의 편집팀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좋은 영어 말하기 운동과 함께 게임과 단어 은행을 개발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신문은 과거 아이디어를 택해서 이것을 재미있게 만들었고 잘 관리된 멀티미디어적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과 쓰기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신문사 입장에서 발행 부수의 확대와 수익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장기기획상 본상은 폴란드의 폴스카프레세(Polskapress; 일일 발행 부수 370,000부) 신문사가 수상했다. 지역 일간 신문인 폴스카프레세 신문 그룹은 오렌지 재단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폭력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해 왔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폴란드 학교에서의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체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도구들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사연수, 이벤트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지원자료들을 동원했다. 심사위원들은 “왕따와 학교 폭력의 중요한 문제에 진정으로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편집부문 특별상은 대만의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United Daily News)(발행 부수 600,000부)의 주말판에 돌아갔다. 대만 최대 신문사의 하나인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는 지난 2년 동안 20쪽에 달하는 학생용 주

말판을 발간했다. 이것은 일반 기자들의 기사에 교사와 학생들이 쓴 기사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신문사 기자들은 일반 기사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골라 교육과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기사를 재작성했으며 교사와 학생들은 뉴스리터러시에 관한 기사나 학생들의 관심에 부합한 칼럼 등을 작성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쓴 기사를 정합을 거쳐 본 지면에 게재되었다.

각각의 지면은 학생들이 뉴스미디어에 관해 익힐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학생들이 그들이 쓴 기사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리닉 코너도 운영했다.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의 학생용 주말판은 이듬해부터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으며 대만 학교의 절반 이상이 이 신문을 구독했고 대만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 정기 구독으로 이어지는 성과로 나타났다.

## 2) 마이드림 인터뷰 페스티벌

세계신문협회 산하 청소년독자 개발위원회(Director of Young Readership Development)는 청소년들에게 신문친화적인 태도를 고취시키고 저널리즘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이드림 인터뷰” 페스티벌(“My Dream Interview” Festival)을 시작했다.<sup>22)</sup>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저명인사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들에게 인

---

22) 마이드림 인터뷰 국제 청소년 기자 축제는 요르단과 칠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칠레의 신문협회(Asociacion Nacional de la Prensa)는 2002년부터 전국적인 인터뷰 콘테스트를 시작했다. 신문협회는 6세부터 14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과의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과정을 통해 게재된 기사는 전국 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이 행사는 곧이어 신문과 잡지 읽기를 장려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 문화 예술위원회와 교육부에 의해 지원되었다. 한편 요르단에 있는 알가드(Al Ghad) 신문은 2011년부터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리즈로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세계신문협회가 이 아이디어를 원용하여 통합행사로 확대시켰다.



터뷰할 수 있도록 신문사가 중재 역할을 하고 그 인터뷰 결과를 지면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국가별로 개별 학교 단위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학교 대표팀에게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나 유명인, 롤모델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신문사는 제출된 아이디어와 질문지들 중 우수한 것들을 선정, 그들이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들을 지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 학생은 ‘인터뷰 대상을 선택한 배경과 목적’, ‘인터뷰할 내용’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이 행사에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에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신문사가 참가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어 및 스페인어로 인터뷰 기법 등에 관한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했다. 절차는 각 지역의 개별 신문사들이 행사 개최를 공지하고 학교 단위의 팀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주선하고 그 결과를 지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제철그룹인 아킨다(Acinder)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프랑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으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단이 심사했으며 시상식은 10월 29~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WAN-IFRA 세계 출판 엑스포에서 거행되었다.

세계신문협회 소속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록사나 머더코비츠(Roxana Morduchowicz) “신문사의 참여와 의견, 질문 및 제안은 이번 축제에 대한 대단한 흥미를 보여 주었고 모든 신문이 학생들과 교사 간의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수준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했다”면서 “2회부터는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이와 같은 효과가 더 확대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번 수상작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는 아르헨티나 라 나시온(La Nacion) 신문의 지원을 받아 ‘실종자 어머니들 대표’인 에스텔로 카를로토(Estela de Carlotto) 여사를 인터뷰한 산타페 중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인터뷰 대상자인 에스텔로 카를로토 여사는 1977년 당시 교사이자 한 학교의 교장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사정권의 탄압에 큰 딸을 잃고 둘째 딸과 남편마저 납치를 당해 실종이 된 이후 갖은 압박과 탄압을 받으면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사평 : 이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 선택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어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에 대해 용기있는 시선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읽기 쉽고 매력적인 인터뷰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카를로토 여사와 아르헨티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했고 독자는 냉정한 시선으로 이를 볼 수 있었다. 그 인터뷰 기사 속에는 어린 학생들의 시각도 잘 녹아있고 정확한 질문과 대답을 잘 정리했다. ‘그랜드머더’의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주었고 인터뷰를 한 사람에 의해 완벽하게 조절되었다.

교사의 소감 :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있는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집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토론을 하면서 탐구활동을 한 매우 생산적인 프로젝트였다.

스페인의 디아리오 나바라(Diario de Navarra) 신문사의 지원을 받은 아타라비아 중학교 학생들은 술한 가해 속에서도 용서를 실천한 이레네 빌라(Irene Villa) 여사를 인터뷰했다. 이레네 빌라는 12살 때 테러범들이 가족 차량을 폭격하면서 다리를 잃었지만 나중에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고 용서와 화해의 전설적인 상징이 된 인물이다.

심사평: “여기 우리에게 운명, 희망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인터뷰팀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그녀의 삶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영감이 충분한 소재였고 훌륭한 선택이었다.”

교사의 소감: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콘테스트는 완벽했다.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자각했다. 아이들은 신문 및 언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웠고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정말 특별한 사람의 내면까지 알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신문사 평: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신문사 차원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큰 보람을 느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한 기자들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작업 부담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수상을 해서 더욱 기쁘지만 설사 수상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 행사였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기자로서 항상 유념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해 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학생 소감: 우리팀이 인터뷰를 위해 선택되었을 때 모두들 큰 행복감을 느꼈다.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들 긴장했지만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강한 자신감을 느꼈다. 우리 팀원들은 회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으로 다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이레네 여사와의 만남은 매우 유쾌했다. 이레네 여사는 정말 친절했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이 원하고 사회가 필요

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학생들은 페리오디시모 재단의 후원을 받고 12개 신문사의 지원을 받아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을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가 성사되는 데는 페리오디시모 재단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 행사의 의미와 함께 대통령이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을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설득했고 또 볼리비아 내의 12개 신문사가 함께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참가 신문사들은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특별 표창을 받기도 했다.

# 04

## 한국신문의 NIE 운용실태와 문제점

### 1. 신문사 NIE 지면의 내용

#### 1) 개별 언론사 NIE 지면

##### (1)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신문과 놀자’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에 NIE 지면을 게재하고 있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기사는 신문기사와 관련 시사 이슈를 연결해서 생각할 거리와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이나 논술로 이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NIE 가이드 코너다.<sup>1)</sup> 학생들이 기사를 읽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력의 폭을 넓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6월의 경우 “범인 잡는 ‘과학’ ... 설록 흠즈가 되어 볼까요”(7일), “여왕 즉위 60년, 영국은 왜 열광할까”(14일), “정말 20년 후엔 치과 안 와도 되나요?”(21일), “1명을 구하려 8명이 목숨을 거는 까닭은”(28일) 등의 주제를 실었다.

이밖에 매주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뉴스 속 인물’, ‘동아일보 기사로 배우는 영어 한마디’, ‘만화 Newspaper Boy’, ‘나의 NIE’가 있다. ‘뉴스 속 인

---

1) 이 기사의 경우 코너명이 별도로 달려 있지 않아 필자가 NIE 가이드 코너로 명명한 것임

물'은 최근에 이슈메이커로 등장한 사람들의 근황과 최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는 코너이며 '동아일보 기사로 배우는 영어 한마디'는 『동아일보』에서 일주일 동안 게재되었던 기사 중에 영어 번역에 적합한 기사를 선정하여 '오늘의 중요 표현'을 2~3가지 정도 요약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사를 번역하는 형태다. '나의 NIE'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신문읽기 의미와 방법과 동기 등을 소개한다.

『동아일보』는 2012년 7월 1일을 기해 자체 교육법인인 (주)동아이지에듀를 통해 초등생을 위한 시사NIE(신문활용 교육)매거진 『신나는 NIE』(이하 신나니)를 7월 1일 창간했다. '신나니'는 교육전문기자과 현직교사가 직접 제작한 NIE 콘텐츠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월간 학습매거진이다. 단순히 시사이슈에 관한 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교과와 연계된 문제를 풀고 글을 써보면서 시사교양과 교과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존 NIE 교재에서 사용하는 시사뉴스는 성인 대상 신문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뒤 짧은 해설을 다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나니는 (주)동아이지에듀가 제작하는 『어린이동아』 소속 교육전문기자들이 초등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 직접 작성한다.

교과와 연계된 NIE 콘텐츠는 서울NIE연구회 소속 현직 초등교사가 직접 제작한다. 대표적 코너인 '신문 속 교과서'에는 최신 뉴스에 담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이슈를 초등 교과서에서 찾아내 교과와 연계된 문제를 담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슈퍼마켓(SSM) 영업 제한'이 주제라면 이에 대해 초등생의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한 뒤 해당 시사상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과 연계 문제와 토론논술 문제가 제시되는 형태다.

## (2) 『세계일보』

『세계일보』는 매주 월요일 자에 '교육입시·NIE' 주제의 3개면 발행하는데 이 중 마지막 면에 NIE용 논술을 게재하고 있다. 대입 논술에서 비교적

자주 제시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일보』 기사, 기출문제, 관련 글 등을 제시하고 사교육 업체의 논술 전문가가 논술의 작성 방향과 함께 예시답안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6월에는 ‘행복’(4일), ‘종교지도자의 비윤리성’(11일), ‘전자민주주의의 명암’(25일)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 (3)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두 가지 형태의 NIE 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은 선생님’이다. 매일 내보내는 고정 기사와 요일마다 달라지는 요일별 기사로 구분되는데, 고정 기사에는 ‘둘리 과학 여행’, ‘포켓몬 한자왕’, ‘어린이 명작 동화’가 있다. ‘둘리 과학 여행’은 두 컷 만화를 통해 상식을 다루고, ‘포켓몬 한자왕’은 만화 대사에 포함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어린이 명작 동화’는 영어로 명작 동화를 한 문단씩 읽어 주는 코너다.

요일별 기사는 월요일엔 ‘재미있는 과학’, 화요일은 ‘개념 쓱쓱! 수학여행’, 수요일은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동화를 써보세요’, 목요일은 ‘떠나요! 체험학습 세계 역사 문화 탐방’,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이미지로 생각해요 미술관에 갔어요’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진다. 수요일과 목요일 테마 기사만 격주로 게재되고, 나머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각 테마별로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삽화나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매일 지면 하단부에 ‘도전 창의 퀴즈왕’, ‘뉴스 속의 역사’, ‘상식 쓱쓱 역사 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매번 다른 주제의 기사를 통해 학생 독자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황유선·박진우·김유근, 2011)

『조선일보』는 ‘신문은 선생님’ 외에 매주 목요일 자에 별도의 NIE 면을 발행하고 있다. 6월의 기사에는 ‘생생뉴스 NIE 여행’, ‘NIE 사례 소개’, ‘사고 알립니다’ 등이 고정적으로 게재됐다. ‘생생뉴스 NIE 여행’은 신문기사

와 시사적인 이슈를 연결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NIE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6월의 경우 “한국, 20~50클럽 진입... 선진국 된다는 신호”(5일), “60년마다 임진년 ‘그날’을 기려요”(12일), “‘장보고기지’ 세월질 남극은 어떤 곳일까?”(19일), “‘브라질 리우에 세계 정상들이 모인 이유는?’”(26일)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홈페이지([www.chosun.com](http://www.chosun.com))에 별도의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화면 하단 교육 섹션을 클릭하면 ‘맛있는 공부’ 코너의 주제별 카테고리 중 교육뉴스가 나온다. 교육뉴스는 다시 ‘유아·초등’, ‘중등·고등’, ‘학부모’ 등의 코너로 나누어지며, ‘중등·고등’ 코너에는 NIE를 활용한 학생의 성공사례(진로탐색이나 학업성적 향상 등) 등이 게재된다. ‘학부모’ 대상 코너에서도 NIE를 활용해 자녀교육에 성공한 유명인사의 사례나 NIE관련 특강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게재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NIE의 장점과 함께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주제별 카테고리 중 학습자료에서는 한자, 영어, 창의력과 함께 NIE자료가 있는데 교과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과목의 NIE활동지가 게재되고 답안도 함께 제공된다. 활동지는 교과내용에 대한 배경지식과 그것을 활용한 문답형의 형식이며 관련교과 및 단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간격으로 일별 2개에서 4개 정도의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 (4) 『중앙일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NIE를 도입한 『중앙일보』는 매주 수요일 자에 NIE 지면을 게재한다. 『중앙일보』 NIE 지면의 내용은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NIE’, ‘신문 속 인물과 사건’, ‘NIE 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NIE’는 NIE를 원하는 학교나 학부모의 신청을 받고 중앙일보 NIE연구위원단이 찾아가 다양한 방법론을 지도하고 있다. ‘신문 속 인물



과 사건'은 최근에 『중아일보』에 보도된 기사의 이슈나 내용을 가지고 사  
고의 확장을 꾀하는 방식의 코너다. 'NIE 다이어리'는 주중에 나온 기사를  
선택하여 NIE 활동을 할 과제를 부여하는 코너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 (5) 『한겨레』

『한겨레』는 본지 지면이 아닌 '아하 한겨레'라는 섹션을 통해 NIE 지면을  
매겨진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한다. 이 섹션은 총 20여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겨레의 NIE는 논술 중심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  
되는 방식은 먼저 '길잡이'라는 코너를 통해 해당 이슈가 논란이 되는 배경  
을 간단히 설명하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을 설명해 준다.

두 번째는 '이슈' 코너로 『한겨레』의 관련 기사와 관련 배경지식을 제  
시한다. 여기서는 논란이 된 현실적 사례들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  
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은 '배경' 코너로 관련 이슈에 대한 『한겨레』  
의 심층기사와 배경지식을 소개한다. 다음은 '관점' 코너인데, 여기에서는  
『한겨레』의 관련 기사나 칼럼과 함께 상호 대립되는 관점을 소개하기도  
하고 상호갈등을 빚는 쌍방의 입장을 소개하는 기사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밖에 '심화' 코너가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이슈를 다른 각도나 심화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난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에서는 심화단  
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같다.

'아하 디베이트' 코너는 고등학교 논술과 유사한 단계로 진행되는데 '길  
잡이' 코너에서는 해당 이슈가 논란이 되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의견  
나누기' 코너를 통해 핵심 단어들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말해 보  
도록 한다. 나머지는 유사한데 관점 코너에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의 관점에 따라 그 근거를 핵심주장과 함께 기술하게 한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데, 학생 기

자들이 취재한 기사는 본지의 교육 섹션 ‘함께하는 교육’에 실리기도 한다.

#### (6)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매주 화요일에 1면을 NIE 중심으로 게재한다. 고정코너는 두 가지로 운영된다. 하나는 ‘나의 NIE’로 학생이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논술 형식으로 서술한 글을 소개하는 난이다. 나머지 하나는 ‘박기호의 테크닉 논술’로 학생이 서술한 글을 평가해 주는 난이다. 지면의 나머지에서는 교육신간이나 교육 단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실는다.

#### (7)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경제 일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NIE를 실행한다. 이 신문은 스페셜 섹션으로 제작된 ‘틴 매일경제’ 지면을 격주 수요일마다 게재한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섹션으로, ‘아하 한겨레’처럼 격주 발행인 대신, 약 24여 페이지로 발간된다. ‘NIE 논술’, ‘경제 이해력 테스트’, ‘만화로 보는 경제’, ‘커버 스토리’, ‘NIE 경제’, ‘직업의 세계’, ‘재미있는 과학’, 기타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매번 코너의 제목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구성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중의 주요 이슈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제시한 ‘금주의 신문 읽기’ 외에 ‘객원기자가 된다’, ‘수시 심층면접 전략’, ‘기업 현장’, ‘논술’, ‘English &’, ‘매경 TEST’, ‘NIE 경제 교실’,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코너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들 코너들의 순서는 매회 조금씩 달라진다.

‘금주의 신문 읽기’는 2주간 있었던 경제 이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사를 요약해 준다. 또 청소년 객원 기자들이 직접 신문 쓰기에 참여도 하며,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상세히 다루기도 한다. 『매일경제』가 경제 일간지인 만큼, 기업이나 경제 관련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

지만 논술 주제는 경제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매경 TEST’는 경제 지식에 관한 퀴즈 지면으로, 평균 5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황유선·박진우·김위근, 2011).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기사나 칼럼을 주로 작성한다.

#### (8)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은 매주 월요일에 24면으로 된 청소년 교육 섹션 ‘생글생글!’을 발간한다. 고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논술과 대학입시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주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틈 매일경제와 마찬가지로 학생기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에 관한 취재기를 다루기도 하나 대부분 시사 이슈에 대해 의견기사나 칼럼을 주로 작성한다.

〈표 4-1〉 ‘생글생글!’의 주요 내용

Cover Story	시사이슈 찬반토론	생글 논술 첨삭노트
Economic News	대입 멘토링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
Focus	논술 기출문제 풀이	Global Issue
세기의 라이벌	허시봉의 한자 이야기	Science
Special 기획	생글기자코너	논리로 푸는 수리논술
English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김희연의 자연계 논술노트
테셋 따라잡기	대입 적성검사	

### (9) 『강원일보』

『강원일보』는 지역 일간지 가운데 국내에서 NIE를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신문사 중 하나로 격주 화요일마다 NIE 지면을 발행한다. 이 지면은 크게 ‘생각을 키우는 NIE’, ‘NIE 칼럼’, ‘강원일보와 함께하는 리더십 NIE’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을 키우는 NIE’는 학교나 교육 당국의 모범적인 NIE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다. 강원일보와 함께하는 리더십 NIE는 『강원일보』의 기사를 읽고 다양한 생각이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기사를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NIE 관련 단신을 다루기도 한다.

한편 『어린이 강원일보』는 매주 목요일마다 NIE 지면을 제작·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문은 내 친구’ 그리고 ‘신문활용 교육’이란 두 지면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NIE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신문은 내 친구’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창의적 NIE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신문을 도구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문활용 교육’은 ‘NIE 칼럼’, ‘생각을 키우는 NIE’, ‘강원일보와 함께하는 리더십 NIE’ 코너를 통해 말 그대로 신문을 교육의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0) 『대전일보』

『대전일보』는 매주 화요일에 8면으로 발행되는 교육 섹션(에듀켓) 중 6면에서 NIE면을 발행한다. 가장 비중 있는 기사는 ‘신문은 내 교과서’ 코너다. 『대전일보』 기사를 논술의 지문 형태로 제시하고 ‘내용 요약하기’, ‘칼럼쓰기’, ‘창의성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시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예시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교과서에 나오는 미술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교과서 속 미술 여행’ 코너와 ‘음악여행’ 등을 돌아가면서 수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시사상식을 설명하는 ‘초등학생 시사상식 지수 UP!’ 등의 코너가 있다.

#### (11)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매주 수요일 자에 2개 면을 할애해서 NIE를 게재하고 있다. 첫 번째 면은 전형적인 NIE 면으로 ‘신문보고 생각 키우고’와 ‘자녀와 함께 행복찾기’ 등 두 개의 코너로 구성된다. ‘신문보고 생각 키우기’는 하나의 주제를 주고 일선학교 교사가 칼럼을 제공한다. 그 이후에 『부산일보』에서 게재한 관련기사와 연결해서 사고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행복찾기’는 자녀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칼럼형태로 제시하는 글이다. 이 코너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등 NIE 사이버지원단 교사들이 주관한다.

두 번째 면은 ‘청소년 기자광장’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이 교내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소식이나 의견을 기사 혹은 칼럼 형태로 제공하는 면이다. 참여하는 학생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된다.

#### (12)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는 매주 금요일 자에 중등 및 초등으로 나누어 2개의 NIE 지면을 발행한다. 중등용 NIE 면은 ‘지상논술’, ‘김판용의 학교이야기’, ‘김인수 박사와 함께하는 수학이야기’, ‘교육현장 뉴스’ 등 보통 4개의 코너로 이루어진다. ‘지상논술’은 학생의 논술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전문 교사가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김인수 박사와 함께하는 수학이야기’는 응용수학 혹은 수학과 현실생활을 연결한 내용으로 재미있게 풀어 가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초등용 NIE 면은 ‘최한경 선생님의 재미있는 창의과학’, ‘이길남 선생님의 즐거운 글쓰기’, ‘어린이 글짓기’ 등 3개의 코너로 이루어진다. ‘최한경

선생님의 재미있는 창의과학'는 창의적인 과학수업 모형을 실례와 더불어 제공하는 코너이고 '이길남 선생님의 즐거운 글쓰기'는 글쓰는 방법을 지도하는 코너다. 어린이 글짓기는 초등학생들이 보내온 시와 글짓기를 싣고 거기에 대해 간단한 평을 해 주는 코너다.

### (13) 『전북일보』

『전북일보』는 교육면 없이 매주 목요일 NIE를 1면으로 발행한다. '생각키우기'와 '학생글' 두 코너로 발행되는데, '생각키우기'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제공하고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형태로 게재한다. '생각 키우기'나 '생각 펼치기'는 이슈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생각 열기, 생각 나누기, 활동하기로 나누어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쓴 시나 산문을 보고 교사들이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달아 주는 코너도 있다. 6월에 다루어진 주제는 건전한 사이버 공간,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의 자세, 전력대란, 남북통일 등이다. '학생글'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의 글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한다.

## 2) 신문사 NIE 종합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신문의 NIE 지면 현황을 기초로 지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한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대상 신문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본지에 NIE 지면을 게재한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등 10개 일간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12년 6월 1개월 치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 1개월

〈표 4-2〉 신문사 NIE 면의 기사 수

(단위: 건)

구분	NIE 기사 수	신문사당 1주일 평균 기사 수
중앙 일간지(5개사)	51	2.6
지방 일간지(5개사)	67	3.4
계	118	3.0

치로 한정된 것은 대부분의 NIE 면이나 교육 섹션이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개월 치만 분석해도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단위는 해당 기간 내에 발행된 NIE 지면의 단위기사이며 주요 분석내용은 ‘NIE 면에서 다루는 기사 수’, ‘주제’, ‘지면 제작 주체’, ‘주요 대상’ 등이다.

먼저 6월 한 달간 NIE 지면에 게재된 기사 수는 중앙 일간지가 51개, 지역 일간지 67개 등 118개였다. 이를 1주일간 평균 기사 수로 환산하면 한 신문사당 3.0건이었는데,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로 구분하면 지역 일간지 1개사당 3.4건으로 중앙 일간지(2.6건)보다 다소 많았다.

신문의 NIE 면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게 분포했다. 이를 주제별로 보면 ‘공공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을 주제로 한 기사가 19.6%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학습방법 안내를 포함한 학습력 향상’에 관한 주제가 17.2%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신문 NIE 지면이 공공의식 함양과 학습력 향상이라는 두 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밖에 ‘사회 현실 이해’에 관한 주제는 11.8%, ‘교과연계나 교과 심화 학습’ 9.8%, ‘읽기 및 쓰기’ 8.6%, ‘논술 대응력 향상’ 8.6% 등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흔히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한다. 이는 신문을 통해 교과서에서 담고 있지 못한 생생한 현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과내용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이나 현재의 분석결과는 신문의 NIE

〈표 4-3〉 NIE 면에서 다루는 내용(중복응답)

(단위: 건)

	건수	비율(%)
읽기 및 쓰기	10	8.6
의사소통 능력 향상	6	5.1
교과연계 학습 혹은 교과심화 학습	12	9.8
학습방법 안내를 포함한 학습력 향상	20	17.2
통합적 사고 및 창의력 향상	3	2.5
시사에 대한 이해	9	7.6
논술 및 구술 능력 관련	10	8.6
진로 활동	7	5.9
동아리 활동	8	6.8
정보탐색 능력 향상	5	4.2
인성 및 가치관 함양	4	3.3
사회 현실 이해	14	11.8
공공의식 및 시민정신 함양	23	19.6
신문사 활동 고지	5	4.2
계	142	120.3

지면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로 활동’과 관련된 주제는 5.9%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창의적 사고력 향상’(2.5%)이나 ‘인성 및 가치관 함양’(3.3%) 등에 관한 주제는 드물었다.

한편 NIE 지면에 게재된 기사를 제작 주체별로 구분해 본 결과, 3개 중 2개 꼴(66.9%)로 외부 기고에 의한 기사가 많았으며 신문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18.6%, 자체 취재 기사가 14.4%였다. 전체적으로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NIE 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의 주요 대상을 알아본 결과 ‘학생’을 대상



〈표 4-4〉 NIE 면의 제작 주제

(단위: 건)

구분	NIE 기사 수	비율(%)
자체 취재기사	17	14.4
자체 제작 콘텐츠	22	18.6
외부 기고	79	66.9
계	118	100.0

으로 한 기사가 92.4%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사는 각각 5.1%와 2.5%로 적었다. 따라서 신문사의 NIE 면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생을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할 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사 33.1%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2.8%와 22.0%였다. 한편 학생들 대상으로 한 기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만 14.9%로 비교적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특정의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급별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NIE면이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학교급은 물론 학년별로도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결과는 현재 신문사에서 만드는 NIE 지면이 뚜렷한 목표 대상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깃 설정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NIE 지면의 주제 분류에서 ‘교과내용과의 연계가 적다’는 점, 그리고 ‘NIE 지면의 타깃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현재의 NIE 지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4-5〉 NIE 면의 주요 대상

대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학생	초등 1, 2학년	1	0.8
	초등 3, 4학년	2	1.7
	초등 5, 6학년	14	14.9
	초등학교 일반	19	16.1
	초등학교 계	36	33.1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	2.5
	중학교 3학년	1	0.8
	중학교 일반	23	19.5
	중학생 계	27	22.8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4	3.4
	고등학교 일반	15	12.7
	고등학교 계	19	16.1
	학생 일반	26	22.0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교사 일반	3	2.5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학부모 일반	6	5.1
계		118	100.0

### 3) 신문사 교육 섹션 분석

한국 신문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면 중 주요 면이 바로 교육면이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합 일간지가 매주 1면 이상 고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매주 8면을 할애한 섹션을 발행하는 신문도 5개에 이른다.

교육면은 NIE 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교육면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2년 6월 한 달간 교육면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23개 종합 일간지의 형식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내용은 ‘기사량’, ‘주제’, ‘주요 대상’, ‘지향하는 대학’, ‘주요 취재원’ 등이다.

〈표 4-6〉 신문사 교육면 현황 요약

(단위: 건)

신문	교육면 특징
경향신문	매주 화요일 교육면 2면 발행
동아일보	매주 화요일 교육 섹션 '신나는 공부' 8면 발행
세계일보	매주 월요일 교육면 '공부가 술술' 2면 발행
조선일보	매주 월요일 교육 섹션 '맛있는 공부' 8면 발행
중앙일보	매주 월요일 교육 섹션 'My Study' 8면 발행 6월 20일부터 '열려라 공부'로 명칭 교체
한겨레	매주 월요일 교육 섹션 '함께하는 교육' 8면 발행
한국일보	매주 화요일 교육면 2면 발행
경남신문	매주 화요일 교육면 1면 발행
경상일보	매주 금요일 교육면 1면 발행
경북매일	매주 월, 수, 금 교육면 1면 '교육·대학' 발행
광주일보	매주 화요일 교육면 1면 발행
국제신문	매주 화요일 '교육' 1면, '중고생' 1면 등 2면 발행
대전일보	매주 화요일 교육 섹션 '에듀켓' 8면 발행
매일신문	매주 화요일 교육 섹션 '에듀케이션' 4면 발행
부산일보	매주 수요일 '공부야' 2면 발행

신문	교육면 특징
영남일보	매주 월요일 교육매거진 'edu@u' 4면 발행
전남일보	매주 수요일 교육면 1면 발행
전북도민일보	매주 수요일 교육면 '에듀&캠퍼스' 2면 발행
중도일보	매주 목요일 교육면 2면 발행
중부매일	매주 수요일 교육면 1면 발행
중부일보	매주 금요일 교육면 '교육&입시' 1면 발행
충청일보	매주 화요일 교육면 1면 발행
한라일보	격주 목요일 'JDC와 함께 하는 논술학교' 1면 발행

분석결과, 종합 일간지는 신문사당 매주 평균 8.3건의 교육 기사를 고정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NIE 기사 수와 비교하면 2.7배에 이르는 기사량이다.

〈표 4-7〉 신문사 교육면의 기사 수

(단위: 건)

구분	기사 수	신문사당 1주일 평균 기사 수
교육면(23개사)	761	8.3
NIE 면 (10개사)	118	3.0

교육면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대학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가 213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적인 학습방법이나 학습력 향상'과 관련된 기사가 199건(26.3%)이었다. 그 뒤를 이어 많이 나오는 주제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사가 129건(17.0%), '일반적 의미의 진로 설계'에 관한 기사가 79건(10.4%)이었다. 여기에서 일반적 의미의 진로설계란 대학입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진로관련 기사를 말한다.

‘학습방법이나 학습력 향상’, ‘학교생활’, ‘일반적 의미의 진로설계’에 관한 기사는 ‘대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입시를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면은 대입 중심의 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학교 내 정서적 활동이나 관심사’에 관한 기사 역시 77건(10.2%)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대학입학이나 학업관련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주제는 극히 적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할 ‘청소년의 고민’(7건)이나 ‘취미·여가생활’(6건), 그리고 ‘교우관계나 이성문제’(2건)에 관한 주제는 모두 합쳐도 2.0%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표 4-8〉 교육면에서 다루는 주제(중복응답)

(단위: 건)

주제	건수	비율
대학입시	213	28.1
일반적인 학습력 향상	199	26.3
학교 생활 관련	129	17.0
일반적 의미의 진로 설계	79	10.4
학교 내 정서적 활동이나 관심사	77	10.2
가족생활	22	2.9
학생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관심사	16	2.1
왕따, 폭력 등 학교내 부정적 행태(극복 포함)	10	1.3
청소년의 고민	7	0.9
취미·여가생활	6	0.8
교우관계나 이성문제	2	0.3
기타	37	4.9
계	797	105.1

한편 ‘대학입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사만 골라 지향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주요대’가 65건(38.7%), ‘외국 명문대’가 9건(5.4%)로 전체의 44.1%가 명문대 중심의 기사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대학에 대한 차별적 용어일 뿐 아니라 학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강길호, 2001).

〈표 4-9〉 ‘대학입시’에 관한 기사에서 지향하는 대학

(단위: 건)

구분	기사 수	비율(%)
국내 주요대(명문대)	65	38.7
외국 명문대	9	5.4
대학 일반	88	52.4
기타	6	3.6
계	168	100.0

교육면의 주요 대상은 학생이 4명 중 3명꼴(72.7%)로 많았다. 이를 학교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생’ 8.3%, ‘중학생’이 10.3%, ‘고등학생’이 23.9%, 그리고 ‘학생 일반’이 30.2%였다. 교육면의 대상이 주로 학생인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 외에 학년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쓴 기사가 72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급별 학령 구분은 거의 없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사는 매우 적었다. ‘초등학교 교사’ 0.3%, ‘중학교 교사’ 0.1%이었고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사는 단 1건도 없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사는 총 183건(24.1%)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사가 46건(6.1%)은 ‘중·고등학교 학부모’(각각 1.8%, 0.9%)를 대상으로 한 기사

〈표 4-10〉 교육면에서 다루는 기사의 주요 대상

(단위: 건)

대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초등학생	초등 1~2학년	1	0.1
	초등 5~6학년	3	0.4
	초등 일반	59	7.8
	초등학생 소계	63	8.3
중학생	중 2학년	1	0.1
	중 3학년	3	0.4
	중학생 일반	74	9.8
	중학생 소계	78	10.3
고등학생	고 1학년	3	0.4
	고 3학년	72	9.5
	고등학생 일반	106	14.0
	고등학생 소계	181	23.9
교사	학생 일반	229	30.2
	초등학교 교사	2	0.3
	중학교 교사	1	0.1
	교사 일반	18	2.4
	교사 소계	21	2.8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46	6.1
	중학생 학부모	14	1.8
	고등학교 학부모	7	0.9
	학부모 일반	116	15.3
	학부모 소계	183	24.1
기타		3	0.4
계		758	100.0

〈표 4-11〉 교육면 기사의 주요 취재원(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기사 수	비율(%)
공교육 교사 및 교육 관계자	209	27.6
공공기관 교육 전문가	14	1.8
대학교수	47	6.2
사교육 업체나 사교육 전문가	295	38.9
학생	107	14.1
학부모	27	3.6
기타	136	17.9
계	835	110.2

보다 월등히 많았다.

교육면 기사를 쓸 때 어떤 취재원 의존도가 높은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교육 업체나 사교육 전문가’가 38.9%에 이를 정도로 많아 신문의 교육면이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교사나 교육 관계자’는 27.6%였으며 ‘공공기관의 교육 전문가’는 1.8%였다.

## 2. 지면 외 NIE 프로그램

NIE 지면 제작 외에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문사는 16개사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NIE 대회’를 비롯해 ‘리더스 콘서트’, ‘NIE 특집섹션 발간’, ‘저널리즘 아카데미 운영’, ‘NIE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신문사들의 대체로 유사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NIE 프로그램은 신문 관련 경진대회였다. 조선일보, 매



일경제, 한국경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등 8개사가 NIE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NIE 경진대회의 경우 대전일보가 ‘역사 속으로 떠나는 NIE 캠프’라는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나머지 신문들의 경우 ‘신문만들기’, ‘신문스크랩’, ‘수업 지도안 개발’과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만 강원일보의 경우 시상분야를 7개 분야로 다양화한 특징을 보였다.

신문관련 경진대회 외에 가장 많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NIE 관련 강의 혹은 교실 운영이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영남일보, 제민일보, 중부일보, 한라일보 등 8개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읽기 방법과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콘서트(리더스 콘서트, 다독다독 콘서트)를 운영했다.

이상과 같이 봤을 때 한국 신문의 지면 외 NIE 프로그램은 NIE 경진대회와 NIE 강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교적 단조로운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신문사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이 별지 섹션에서 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지가 아니고 학생들의 글 또한 의견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계를 가졌다.

〈표 4-12〉 중앙 일간지의 지면 외 NIE 프로그램

신문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조선일보	조선일보 NIE 대회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신문 만들기', '신문스크랩', '교육과정 개발' 부문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리더스 콘서트	각계 명사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문읽기의 방법과 즐거움 등을 주제로 특강 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NIE 특집섹션 발간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별지 특집으로 발행해서 학습용으로 제공
	NIE 교육센터 운영	강남구 대치동, 광화문, 제주 등 3개 지역에 교육센터 운영
	NIE 교사연수 실시	연 2회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실시
	저널리즘아카데미	글쓰기, 스토리텔링 등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 운영
	NIE 학생 강좌 운영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강좌 개설
중앙일보	NIE 지도사 양성	일반인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NIE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다독다독 콘서트	각계 명사들이 순회하면서 신문을 활용한 학습방법과 꿈찾기 등을 강의.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매일경제	경제 NIE 특강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이 국내 1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특강 형태로 강의하는 프로그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은행 후원
	매경 NIE 경진대회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논술(소감문) 및 경제교육 경진대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금융감독원, 푸르덴셜생명보험 후원
한국경제	생글 NIE 경진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신문 만들기', '시사경제 스크랩' 및 'NIE 경제과목 우수지도안' 경진대회 개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전자신문	정보과학 인재 양성 우수학교·교사 공모전	신문 및 첨단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한 우수학교와 교사 선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표 4-13〉 지역 일간지의 지면 외 NIE 프로그램

신문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강원도민일보	NIE 워크북 창의활동대회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NIE 워크북 우수활동 사례 경진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강원일보	강원 NIE 대회	'신문스크랩', '신문일기', '가족신문만들기', 'NIE 실천사례', '다문화', '고등부 포트폴리오', 'NIE 동아리신문 만들기'.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원도교육청 후원
경남도민일보	가족·학교 신문 및 NIE 경진대회	학교신문, 가족신문 만들기 학교별 NIE 우수사례 등 3부문으로 운영
경남신문	NIE 경진대회	'가족신문' 및 '주제신문 만들기'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광주일보	NIE 방과 후 학교	논리적인 글쓰기와 사고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강좌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대전일보	역사 속으로 떠나는 NIE 캠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유적지를 탐방하고 그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신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매일신문	NIE 방과 후 학교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강좌를 개최하고 신문사를 견학하는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영남일보	NIE 강사 파견	학교를 대상으로 NIE 강사 파견
제민일보	생각이 자라는 NIE 교실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교실 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부일보	기자학교 운영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자학교를 개설하고 NIE 강의 병행
한라일보	논술학교 운영	매주 목요일 신문을 활용한 논술교실 운영

### 3. 조직 및 인력 운용

신문의 NIE 지면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아본 결과 중앙 일간지의 경우 편집국이 아닌 다른 부서나 별도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는 경영기획실 소속 마케팅 전략팀에서 NIE를 담당했으며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자회사격인 별도 법인에서 NIE를 담당했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그리고 전자신문은 NIE를 편집국에서 담당했으며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편집국 내 경제관련연구소에서 NIE를 담당했다. 중앙 일간지의 NIE 담당부서는 다양한 데 반해 지역 일간지는 대부분 NIE를 편집국에서 담당했다. 대전일보의 경우 편집국과 문화사업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신문사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중앙 일간지는 대부분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했는데, 주로 사교육계의 논술 전문강사들이 많았다. 그에 반해 지역 일간지들은 대부분 외부 전문 인력 없이 편집국 내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부산일보와 전북일보는 교육청이나 교사연구회와 같은 공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다른 신문들과 차이를 보였다.

중앙 일간지 일부와 지역 일간지의 대부분은 편집국, 편집국 중에서도 사회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편집국의 인력 구조로 볼 때 이는 NIE가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되거나 본 업무의 보조업무로 취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NIE 지면을 게재하는 거의 대부분이 1주일에 1면 이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신문사가 1명 이내의 NIE 담당기자를 NIE 업무에 배치하고 있어서 인력 구조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한국신문협회, 2012).<sup>2)</sup>

NIE 담당기자들 역시 전문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

2) 한국신문협회가 NIE 지면을 만드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담당기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개 신문사 중에서 '2명 이상'이 6개사, '1명'이 5개사, '없다'가 1개사였다.

〈표 4-14〉 NIE 추진 부서와 외부 인력 활용 여부

신문	소속 부서(팀)	외부 지원단
동아일보	편집국 교육복지부 + 동아이지에듀(주)	각계 명사
세계일보	편집국	사교육계 논술전문 강사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마케팅전략팀	사업별로 별도 운영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주)	연구위원단 운용
한겨레	한겨레교육(주)	외부 전문가와 자사 기자로 강사진 운용
한국일보	편집국 정책사회부	독서토론논술연구원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논술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활용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논술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활용
전자신문	편집국 벤처과학부	
강원도민일보	편집국 문화부	
강원일보	편집국 어린이강원일보팀	
경남도민일보	편집국 시민사회부	
경남신문	편집국 사회부	
광주일보	편집국 사회부	
대전일보	편집국 뉴미디어팀 + 문화사업국	
매일신문	편집국 사회부	
부산일보	편집국	부산시교육청 중등 사이버NIE 지원단 운용
전북도민일보	편집국 문화교육부	
전북일보	편집국	전북 NIE 교사연구회 운용
제민일보	편집국 문화교육체육부	
중부일보	편집국 사진부	
한라일보	편집국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NIE 기자에 대한 연수과정 자체가 없을 뿐더러 워크숍 같은 기회도 연간 1~2회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sup>3)</sup>

NIE 지면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고정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신문사는 25.0%에 불과했다(한국신문협회, 2012). 41.7%에 이르는 신문사가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자비로 충당하는’ 신문사도 16.7%에 달해서 많은 신문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NIE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만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현재 신문사에 따라 규모나 상황은 다르지만 학교 현장에 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월 2,500부씩 연간 3만 부 정도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나머지 신문사들도 적게는 100부에서 많게는 천 부 가까이 신문을 지원했다.

〈표 4-15〉 신문사의 NIE 예산 확보 방식

	사례 수	비율(%)
고정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3	25.0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는다	5	41.7
부서비 또는 다른 항목으로 마련하고 있다	1	8.3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2	16.7
후원받는다	1	8.3
기타	0	0
계	12	100.0

자료: 한국신문협회(2012). 『국내 NIE 현황 조사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40쪽에서 재인용.<sup>4)</sup>

3) NIE 담당기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연 1회 개최하는 ‘미디어교육전국대회’와 신문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NIE 기자 워크숍’이 있다.

4) 한국신문협회가 47개 회원사 NIE 담당자 혹은 담당기자들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한 22개 신문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표 4-16〉 신문사의 학교 교육용 신문 지원 규모

신문사	지원부수(연/월)
동아일보	유동적
매일경제	부정기
조선일보	3만 부/2,500부
경남신문	8개월 7,904부/월 980부
경남일보	3,728부/466부
경북일보	일 550부
경인일보	연 988부
대구일보	2,608부/326부
전북도민일보	4,640부/580부
전북일보	월 400부
제주일보	8개월 월 600부
어린이강원일보	1,000부/100부

자료: 한국신문협회(2012). 『국내 NIE 현황 조사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40쪽에서 재인용.

〈표 4-17〉 학교 교육용으로 지원하는 신문 구독료 부담 방식

	사례 수	비율(%)
전액 후원	1	7.2
일부 후원	5	35.7
무료 지급	5	35.7
기타(상황에 따라 후원비 및 무료 지원)	3	21.6
계	14	100.0

자료: 한국신문협회(2012). 『국내 NIE 현황 조사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40쪽에서 재인용.

한편 신문사가 학교에 무료로 지원하는 신문사는 ‘일부 후원을 받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각각 35.7%)가 많았으며 ‘전액 후원을 받아’ 제공하는 신문사는 7.2%에 불과했다.

## 4. 학교 NIE 현황 및 교사들의 신문사 NIE에 대한 인식과 평가

### 1) 연구개요

####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NIE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업에서 NIE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NIE 지면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NIE와 신문사에서 생각하고 운영하는 NIE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NIE 관련 수업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 리스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용하는 미디어교육 포털(ForMe)에 등재된 NIE 교사 리스트<sup>5)</sup>를 참조했다. 조사는 이 리스트에 등재된 교사 9,120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16일~9월 2일까지 18일간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 중 1,023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다. 조사절차와 방법을 요약, 제시하면 <표 4-18>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만든 질문지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NIE 교육 현황에 관한 질문으로 담당과목과 수업을 할 때 신문을 활용하는지의 여부, 신문의 NIE 지면 활용 정도, NIE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 등이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교육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유용성과 실질적인 유용성을 질문했다. 이는 NIE를 통한 구체적인 교육영역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를

---

5) 이 리스트는 ForMe의 회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다양한 NIE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했거나 NIE 거점학교 교사,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는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표 4-18〉 설문조사 방법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input checked="" type="radio"/> 전국의 NIE 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사
표본크기	<input checked="" type="radio"/> 1,023명
표본추출	<input checked="" type="radio"/>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한 NIE 관련 교사리스트에서 무작위추출
표집오차	<input checked="" type="radio"/>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조사기간	<input checked="" type="radio"/> 2012년 8월 16일 ~ 9월 2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질문주제는 NIE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에 관한 것이다. NIE 교육 환경과 관련된 14개 문항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조건과 현실적인 충족도를 같이 질문했다. 이 역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서 정책적 대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문 구입과 관련된 질문이다. 여기에는 신문 구입방법, 교육용 신문에 대한 적정 할인율, 필요 신문 부수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종이신문과 전자형태의 신문이 구체적인 교육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2) 응답자 구성

설문에 응답한 NIE 관련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0.5%가

〈표 4-19〉 응답자 구성

(단위: %)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23)	100.0
성별	남자	(715)	69.9
	여자	(308)	30.1
근무학교	초등학교	(379)	37.0
	중학교	(362)	35.4
	고등학교	(282)	27.6
NIE 연수 경험	있음	(619)	60.5
	없음	(404)	39.5
신문활용 교육여부	활용	(688)	67.3
	활용 안함	(335)	32.7
별도담당 보직여부	있음	(463)	45.3
	없음	(560)	54.7
담당교과목 (중·고)	국어	(201)	31.2
	사회	(71)	11.0
	일반사회	(52)	8.1
	과학	(32)	5.0
	도덕	(31)	4.8
	기술·가정	(31)	4.8
	그 외	(226)	35.1
심화교과목 (초등)	초등교육	(99)	26.1
	국어	(45)	11.9
	기타	(30)	7.9
	사회	(27)	7.1
	수학	(19)	5.0
	그 외	(159)	42.0

NIE 연수를 받은 적이 있으며 67.3%는 조사시점에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또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3%의 교사가 보직을 맡고 있었으며 담당 교과목별로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국어’가 31.2%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사회’가 11.0%, ‘일반사회’ 8.1% 등의 순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초등교육’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가 11.9%였다.

## 2) 분석결과

### (1) 교과수업에서 신문활용 여부

현재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3명 중 2명의 응답자(67.3%)가 ‘신문활용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응답자의 인구학적 속성별로 구분해 보면, 성별로 ‘여교사’(70.5%)가 ‘남자교사’(65.9%)에 비해 신문활용 수업을 다소 더 많이 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72.8%와 68.1%로 나타나 ‘중학교 교사’(60.8%)보다 각각 12.0%, 7.3% 더 높았다.

연수경험 유무에서는 NIE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70.8%가 수업에 신문을 활용하고 있어서, 연수경험이 없는 응답자들(61.9%)보다 8.9%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과목별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도덕과 일반사회 교과에서 각각 83.9%와 82.7%가 신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교과목보다 20% 이상 높은 비율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국어, 사회, 수학 등을 제외한 기타 과목의 경우가 83.3%로 가장 높았지만, 중·고등학교와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2) 신문을 활용한 수업의 영역

최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시, 진로교육 강화, 주5일 수업제 실시 등

〈표 4-20〉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는지 여부

(단위: %)

신문활용 여부		사례 수(명)	예	아니오
전체		(1,023)	67.3	32.7
성별	남자	(715)	65.9	34.1
	여자	(308)	70.5	29.5
근무학교	초등학교	(379)	72.8	27.2
	중학교	(362)	60.8	39.2
	고등학교	(282)	68.1	31.9
NIE 연수 경험	있음	(619)	70.8	29.2
	없음	(404)	61.9	38.1
신문활용 교육여부	활용	(688)	100.0	0.0
	활용 안함	(335)	0.0	100.0
별도담당 보직여부	있음	(463)	71.7	28.3
	없음	(560)	63.6	36.4
담당교과 (중·고)	국어	(201)	63.7	36.3
	사회	(71)	66.2	33.8
	일반사회	(52)	82.7	17.3
	과학	(32)	56.3	43.8
	도덕	(31)	83.9	16.1
	기술·가정	(31)	64.5	35.5
	그 외	(226)	57.5	42.5
심화교과 (초등)	초등교육	(99)	73.7	26.3
	국어	(45)	77.8	22.2
	기타	(30)	83.3	16.7
	사회	(27)	59.3	40.7
	수학	(19)	68.4	31.6
	그 외	(159)	71.7	28.3

[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표 4-21〉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영역(1순위)

(단위: %)

신문활용수업 (1순위)	사례 수(명)	담당교 과목	방과 후 수업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기타	없음	
전체	(1,023)	43.4	14.1	15.6	10.8	5.1	0.8	10.3	
성별	남자	(715)	42.2	14.3	16.8	10.9	4.2	1.0	10.6
	여자	(308)	46.1	13.6	13.0	10.4	7.1	0.3	9.4
근무 학교	초등학교	(379)	34.8	14.2	28.0	6.9	4.5	0.8	10.8
	중학교	(362)	51.7	13.5	8.0	11.0	3.9	1.4	10.5
	고등학교	(282)	44.3	14.5	8.9	15.6	7.4	0.0	9.2
NIE 연수	있음	(619)	45.1	13.6	16.5	11.3	4.0	0.6	8.9
신문 활용	활용	(688)	53.2	16.0	15.6	9.3	4.5	0.3	1.2
담당 보직	있음	(463)	46.7	11.9	13.8	14.0	5.0	0.9	7.8
담당 교과목 (중·고)	국어	(201)	46.8	20.9	7.5	13.4	1.0	0.5	10.0
	사회	(71)	60.6	2.8	2.8	18.3	1.4	1.4	12.7
	일반사회	(52)	67.3	15.4	0.0	15.4	0.0	0.0	1.9
	과학	(32)	50.0	12.5	9.4	12.5	3.1	3.1	9.4
	도덕	(31)	74.2	12.9	0.0	6.5	0.0	3.2	3.2
	기술·가정	(31)	71.0	3.2	0.0	9.7	6.5	0.0	9.7
	그 외	(226)	35.0	12.8	15.0	11.9	12.8	0.4	11.9
심화 교과목 (초등)	초등교육	(99)	34.3	6.1	29.3	9.1	6.1	1.0	14.1
	국어	(45)	35.6	15.6	24.4	11.1	2.2	2.2	8.9
	기타	(30)	23.3	36.7	26.7	0.0	3.3	3.3	6.7
	사회	(27)	51.9	3.7	18.5	7.4	3.7	0.0	14.8
	수학	(19)	26.3	5.3	31.6	10.5	0.0	0.0	26.3
	그 외	(159)	35.2	17.6	29.6	5.0	5.0	0.0	7.5

[문]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무엇입니까? 2개 이상의 수업에서 활용하실 경우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적어주십시오.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영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이 활용되는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의 영역을 3순위까지 중복응답 형태로 알아보았다.

먼저 1순위 응답에 한정해서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 수업 영역을 알아본 결과, '담당 교과수업'이 43.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율 활동'(15.6%), '방과 후 수업' 14.1%, '동아리 활동' 10.8%, '진로 활동'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신문을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도 31.5%로 나타났다.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혼재돼 있는 방과 후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도 14.1%로 나타났는데, 방과 후 수업에서 비교과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과 활동에서 신문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영역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담당 교과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은 '중학교'(51.7%)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자율 활동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은 '초등학교'(28.0%)가 '중학교'(8.0%)나 '고등학교'(8.9%)보다 월등히 많았다.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은 '고등학교'(각각 15.6%, 7.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 수업영역을 3순위까지 통합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담당교과 수업'에서 신문활용 비율이 61.3%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비교과 활동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자율 활동'의 경우 1순위 응답에 한정했을 때, 15.6%였으나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쳤을 때 41.8%로 늘어났다. '동아리 활동' 역시 10.8%에서 31.1%로, '진로 활동'은 5.1%에서 27.4%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급별로 또 학년별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표 4-22〉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영역(3순위까지 중복응답의 합)

(단위: %)

	신문활용 수업	담당 교과	방과 후 수업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기타	없음
	전체	61.3	27.1	41.8	31.1	27.4	6.7	10.3
성별	남자	59.9	24.8	41.4	30.3	26.3	7.1	10.6
	여자	64.6	32.5	42.9	32.8	29.9	5.8	9.4
근무 학교	초등학교	56.7	20.1	65.7	19.8	31.9	9.8	10.8
	중학교	63.3	30.7	28.7	31.5	23.2	6.4	10.5
	고등학교	64.9	31.9	26.6	45.7	26.6	3.2	9.2
연수 경험	있음	64.1	25.5	43.9	31.7	28.8	7.8	8.9
	없음	56.9	29.5	38.6	30.2	25.2	5.2	12.4
신문 활용 여부	활용	74.4	29.1	45.5	32.1	27.8	8.0	1.2
	활용 안함	34.3	23.0	34.3	29.0	26.6	4.2	29.0
담당 보직	있음	65.4	25.7	37.6	34.6	30.0	8.0	7.8
	없음	57.9	28.2	45.4	28.2	25.2	5.7	12.3
담당 교과 (중·고)	국어	63.7	43.3	27.9	38.8	19.4	4.5	10.0
	사회	77.5	22.5	22.5	31.0	16.9	7.0	12.7
	일반사회	90.4	40.4	17.3	53.8	13.5	5.8	1.9
	과학	56.3	28.1	34.4	34.4	21.9	9.4	9.4
	도덕	80.6	22.6	29.0	22.6	22.6	3.2	3.2
	기술·가정	80.6	6.5	19.4	19.4	45.2	3.2	9.7
	그 외	50.4	26.1	31.9	40.3	32.3	4.4	11.9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60.6	9.1	67.7	18.2	31.3	10.1	14.1
	국어	57.8	26.7	60.0	26.7	31.1	4.4	8.9
	기타	30.0	43.3	66.7	16.7	23.3	16.7	6.7
	사회	70.4	3.7	66.7	18.5	37.0	14.8	14.8
	수학	42.1	5.3	52.6	31.6	31.6	10.5	26.3
	그 외	58.5	25.2	67.3	18.2	33.3	8.8	7.5

[문2]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무엇입니까? 2개 이상의 수업에서 활용하실 경우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적어 주십시오.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3년부터는 비교과 활동의 신문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3순위까지 통합한 응답은 ‘담당교과 수업’(56.7%)보다 ‘자율 활동’(65.7%)의 신문활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 활동’ 역시 31.9%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동아리 활동’(31.5%)에서의 신문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교는 45.7%가 동아리 활동에서 신문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 (3) 신문활용 빈도

신문활용 빈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2~3주에 한 번 정도’ 15.9%였고 ‘1주일 여러 번’이 8.3%로 나타나 절반 이상(52.5%)이 최소한 2~3주 이내에 신문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신문을 활용하는 빈도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신문활용 비율이 더 높았다. 1주일에 한 번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여교사는 45.1%(10.7% + 34.4%)가 수업에 신문을 활용했는데 반해 남자교사는 33.0%(7.3% + 25.7%)만 신문을 활용했다.

수업에 신문을 활용하는 비율의 차이는 학교급별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역시 1주일에 한 번 ‘이상’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40.9%(7.9% + 33.0%), 중학교 교사는 26.5%(4.7% + 21.8%), 고등학교 교사는 44.0%(13.5% + 30.5%)가 각각 신문을 활용했다.

담당교과목별로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일반사회에서 신문활용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1주일에 한 번 ‘이상’을 기준으로 53.9%(21.2% + 32.7%)가 신문을 활용했다.



〈표 4-23〉 수업에서 신문활용 빈도

(단위: %)

	신문활용 빈도	1주일 여러 번	1주일 한 번	2~3주 한 번	한 달에 한 번	2~3달 한 번	한 학기 한 번	활용 안함
	전체	8.3	28.3	15.9	16.8	9.4	8.1	13.1
성별	남자	7.3	25.7	15.7	16.8	11.5	9.8	13.3
	여자	10.7	34.4	16.6	16.9	4.5	4.2	12.7
근무 학교	초등학교	7.9	33.0	16.4	15.6	7.9	7.7	11.6
	중학교	4.7	21.8	16.9	18.5	13.3	10.8	14.1
	고등학교	13.5	30.5	14.2	16.3	6.4	5.3	13.8
연수 경험	있음	9.9	30.0	16.0	15.7	9.7	8.4	10.3
신문 활용	활용	11.8	38.2	19.8	17.7	8.7	2.8	1.0
담당 보직	있음	10.4	28.3	17.7	15.1	9.3	8.9	10.4
담당 과목 (중·고)	국어	10.4	28.4	12.4	17.4	9.5	8.5	13.4
	사회	5.6	22.5	18.3	23.9	9.9	7.0	12.7
	일반 사회	21.2	32.7	15.4	21.2	0.0	3.8	5.8
	과학	3.1	12.5	18.8	15.6	15.6	21.9	12.5
	도덕	12.9	38.7	19.4	9.7	16.1	0.0	3.2
	기술·가정	3.2	19.4	29.0	12.9	6.5	16.1	12.9
	그 외	5.8	23.5	15.0	16.8	12.4	8.0	18.6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9.1	29.3	21.2	16.2	7.1	3.0	14.1
	국어	11.1	35.6	11.1	17.8	13.3	0.0	11.1
	기타	10.0	33.3	23.3	16.7	3.3	6.7	6.7
	사회	7.4	29.6	14.8	18.5	3.7	11.1	14.8
	수학	5.3	36.8	15.8	5.3	0.0	0.0	36.8
	그 외	6.3	34.6	13.8	15.1	9.4	13.2	7.5

[문3] 담당하시는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4) NIE 관련 지면 구독 정도

NIE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NIE 지면을 어느 정도 구독하는지 알아본 결과, ‘정기적으로 구독한다’가 18.7%, ‘자주 구독하는 편이다’가 13.3%로 나타났다. 본 설문지의 응답자들이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교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NIE 지면 구독률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도 또한 낮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다(박진우·김예란, 2011, 197쪽).

자주 구독한다(‘정기적으로 구독한다’+‘자주 구독하는 편이다’)를 기준으로 NIE 지면 구독 정도를 세분해서 보면, 여교사(41.0%)가 남교사(28.1%)보다 더 많이 읽었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5.4%)와 초등학교(34.3%) 교사가 중학교 교사(26.8%)보다 더 많이 읽었다.

NIE 연수 경험과 현재의 NIE 수업 여부 역시 신문의 NIE 지면을 읽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NIE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36.7%가,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40.3%가 신문의 NIE 지면을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과별로는 중등학교의 경우 일반사회 담당 교사(50.0%)가 NIE 면을 자주 읽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교사(24.4%)가 NIE 면을 더 많이 읽었다.

〈표 4-24〉 NIE 관련 지면 구독 정도

(단위: %)

NIE 지면구독정도		사례 수 (명)	정기적 구독	자주 구독	가끔 구독	구독 안함
전체		(1,023)	18,7	13,3	33,6	34,4
성별	남자	(715)	16,2	11,9	35,8	36,1
	여자	(308)	24,4	16,6	28,6	30,5
근무학교	초등학교	(379)	21,4	12,9	29,8	35,9
	중학교	(362)	14,6	12,2	34,5	38,7
	고등학교	(282)	20,2	15,2	37,6	27,0
NIE 연수 경험	있음	(619)	23,3	13,4	33,8	29,6
	없음	(404)	11,6	13,1	33,4	41,8
신문활용 교육여부	활용	(688)	23,7	16,6	34,6	25,1
	활용 안함	(335)	8,4	6,6	31,6	53,4
별도담당 보직여부	있음	(463)	19,7	13,0	36,1	31,3
	없음	(560)	17,9	13,6	31,6	37,0
담당교과 (중·고)	국어	(201)	16,9	16,4	32,8	33,8
	사회	(71)	19,7	5,6	35,2	39,4
	일반사회	(52)	28,8	21,2	34,6	15,4
	과학	(32)	12,5	6,3	43,8	37,5
	도덕	(31)	16,1	19,4	29,0	35,5
	기술·가정	(31)	19,4	12,9	29,0	38,7
	그 외	(226)	14,2	11,9	39,8	34,1
심화교과 (초등)	초등교육	(99)	16,2	15,2	25,3	43,4
	국어	(45)	24,4	8,9	22,2	44,4
	기타	(30)	43,3	10,0	20,0	26,7
	사회	(27)	14,8	18,5	29,6	37,0
	수학	(19)	21,1	10,5	15,8	52,6
	그 외	(159)	20,8	12,6	38,4	28,3

[문4] 현재 일간지에서 제공하는 NIE 관련 지면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표 4-25〉 NIE 지면 구독이 NIE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매우 도움 된다	어느 정도 도움된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평균
전체		17,6	55,6	24,0	2,5	0,3	3,88
성별	남자	17,3	54,5	24,9	2,8	0,4	3,85
	여자	18,2	57,9	22,0	1,9	0,0	3,93
근무 학교	초	18,1	56,0	24,3	0,8	0,8	3,90
	중	19,8	52,3	24,3	3,6	0,0	3,88
	고	14,6	58,7	23,3	3,4	0,0	3,84
연수 경험	있음	19,7	56,7	20,6	2,8	0,2	3,93
	없음	13,6	53,6	30,2	2,1	0,4	3,78
신문 활용	활용	20,4	55,5	22,3	1,4	0,4	3,94
	활용안함	8,3	55,8	29,5	6,4	0,0	3,66
담당 보직	있음	15,4	57,9	23,0	3,8	0,0	3,85
	없음	19,5	53,5	24,9	1,4	0,6	3,90
담당 교과 (중·고)	국어	20,3	47,4	29,3	3,0	0,0	3,85
	사회	16,3	62,8	20,9	0,0	0,0	3,95
	일반사회	25,0	43,2	25,0	6,8	0,0	3,86
	과학	10,0	55,0	25,0	10,0	0,0	3,65
	도덕	15,0	75,0	10,0	0,0	0,0	4,05
	기술·가정	21,1	47,4	21,1	10,5	0,0	3,79
	그 외	13,4	62,4	21,5	2,7	0,0	3,87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19,6	51,8	25,0	0,0	3,6	3,84
	국어	28,0	52,0	20,0	0,0	0,0	4,08
	기타	27,3	54,5	18,2	0,0	0,0	4,09
	사회	5,9	58,8	35,3	0,0	0,0	3,71
	수학	33,3	33,3	33,3	0,0	0,0	4,00
	그 외	14,0	60,5	23,7	1,8	0,0	3,87

		매우 도움 된다	어느 정도 도움된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평균
신문 활용 수업 영역	담당교과	21.0	53.7	22.5	2.5	0.3	3.93
	방과후	16.7	52.9	26.5	3.9	0.0	3.82
	자율 활동	13.2	57.5	26.4	1.9	0.9	3.80
	동아리	10.3	64.7	25.0	0.0	0.0	3.85
	진로 활동	14.3	74.3	11.4	0.0	0.0	4.03
	기타	0.0	33.3	66.7	0.0	0.0	3.33

\* 평균: 5점 척도 : 매우 도움이 된다(5점)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

이어서 신문사의 NIE 지면이 NIE 방법을 습득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가 17.6%,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5.6%로 4명 중 3명꼴(73.2%)로 NIE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도움이 되는 정도는 NIE 연수경험과 현재 신문활용 수업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즉 NIE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19.7%,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6.7% 등 76.4%가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연구경험이 없는 교사는 67.2%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20.4%,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5.5% 등 75.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는 64.1%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를 담당 교과목별로 보면 중등학교의 경우 도덕과목과 사회과목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도움이 된다’를 5점으로 환산해서 평균을 산출한 결과 도덕과목 교사와 사회과목 교사가 각각 4.05, 3.95로 응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전공별로 볼 때 국어 전공 교사가 도움을 받는 정도는

4.08점이었다.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수학 전공 교사들이 도움을 받는 정도도 4.0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채롭다.

담당하는 수업 영역별로 볼 때 진로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 14.3%,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74.3% 등 진로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 10명 중 거의 9명(88.6%)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하면 4.03점이다.

이어서 신문사의 NIE 지면이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도움이 된다’ 14.8%,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9.5%로 64.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73으로 ‘NIE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3.88)보다 다소 낮았다.

신문사의 NIE 지면이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는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17.1%,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1.1% 등 68.2%가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7.1%,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4.2% 등 51.3%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담당 교과목별로는 중등학교의 경우 도덕 전공 교사에게서 특히 높았으며(5점 기준에 4.00),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 전공 교사(5점 기준에 3.89)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의 NIE 지면은 NIE에 관한 소식이나 동향을 아는 데도 비교적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 18.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2.5% 등 7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NIE에 관한 소식이나 동향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는 하부 유목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6〉 NIE 지면 구독이 NIE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평균
	전체	14.8	49.5	30.0	5.5	0.3	3.73
성별	남자	16.0	49.0	29.3	5.3	0.4	3.75
	여자	12.1	50.5	31.3	6.1	0.0	3.69
근무 학교	초등학교	15.6	48.1	31.7	4.1	0.4	3.74
	중학교	15.8	48.6	28.4	7.2	0.0	3.73
	고등학교	12.6	51.9	29.6	5.3	0.5	3.71
연수 경험	있음	15.4	52.3	27.1	4.8	0.5	3.77
	없음	13.6	44.3	35.3	6.8	0.0	3.65
신문 활용	활용	17.1	51.1	26.6	4.9	0.4	3.80
	활용 안함	7.1	44.2	41.0	7.7	0.0	3.51
담당 보직	있음	12.3	52.5	28.9	6.3	0.0	3.71
	없음	17.0	46.7	30.9	4.8	0.6	3.75
담당 교과 (중·고)	국어	16.5	49.6	29.3	3.8	0.8	3.77
	사회	14.0	44.2	34.9	7.0	0.0	3.65
	일반사회	20.5	43.2	29.5	6.8	0.0	3.77
	과학	5.0	40.0	40.0	15.0	0.0	3.35
	도덕	25.0	55.0	15.0	5.0	0.0	4.00
	기술·가정	21.1	36.8	36.8	5.3	0.0	3.74
	그 외	9.4	57.0	26.2	7.4	0.0	3.68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17.9	46.4	30.4	3.6	1.8	3.75
	국어	16.0	44.0	32.0	8.0	0.0	3.68
	기타	22.7	54.5	13.6	9.1	0.0	3.91
	사회	11.8	41.2	47.1	0.0	0.0	3.65
	수학	22.2	44.4	33.3	0.0	0.0	3.89
	그 외	13.2	50.0	33.3	3.5	0.0	3.73

\* 평균: 5점 척도: 매우 도움이 된다(5점)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

〈표 4-27〉 NIE 지면 구독이 NIE 소식·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매우 도움 된다	어느 정도 도움 된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평균
	전체	18.2	52.5	25.3	3.9	0.1	3.85
성별	남자	20.4	48.8	26.9	3.7	0.2	3.85
	여자	13.6	60.3	22.0	4.2	0.0	3.83
근무 학교	초등학교	22.6	48.6	25.5	2.9	0.4	3.90
	중학교	17.6	52.7	26.1	3.6	0.0	3.84
	고등학교	13.6	56.8	24.3	5.3	0.0	3.79
연수 경험	있음	22.0	51.6	22.2	3.9	0.2	3.91
	없음	11.1	54.0	31.1	3.8	0.0	3.72
신문 활용	활용	20.4	51.5	24.3	3.7	0.2	3.88
	활용 안함	10.9	55.8	28.8	4.5	0.0	3.73
담당 보직	있음	17.3	56.0	21.1	5.7	0.0	3.85
	없음	19.0	49.3	29.2	2.3	0.3	3.84
담당 교과 (중·고)	국어	18.0	55.6	23.3	3.0	0.0	3.89
	사회	16.3	58.1	23.3	2.3	0.0	3.88
	일반사회	22.7	47.7	25.0	4.5	0.0	3.89
	과학	5.0	45.0	35.0	15.0	0.0	3.40
	도덕	15.0	60.0	25.0	0.0	0.0	3.90
	기술·가정	21.1	42.1	31.6	5.3	0.0	3.79
	그 외	12.1	57.0	25.5	5.4	0.0	3.76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25.0	48.2	23.2	1.8	1.8	3.93
	국어	20.0	64.0	16.0	0.0	0.0	4.04
	기타	31.8	45.5	9.1	13.6	0.0	3.95
	사회	11.8	41.2	35.3	11.8	0.0	3.53
	수학	22.2	55.6	22.2	0.0	0.0	4.00
	그 외	21.9	46.5	30.7	0.9	0.0	3.89

\* 평균: 5점 척도: 매우 도움이 된다(5점)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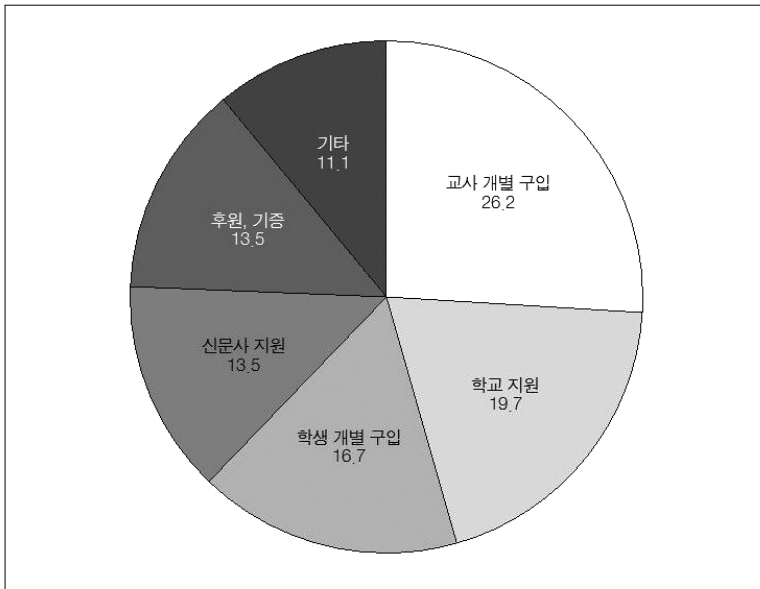


### (5) 신문 구입비용

교실에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신문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아보았다. ‘교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26.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의 지원’ 19.7%, ‘학생들의 개별 구입’ 16.7%, ‘신문사 지원’ 13.5%, ‘후원이나 기증’ 13.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신문 구입 방법

(단위: %)



이 같은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우선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26.7%가 개인 부담으로 신문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문활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학급당 10부 이상, 많게는 학생 1인당 1부씩의 신문을 필요로 하는데, 담당 교사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경제적 부담은 신문활용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용 신문을 구입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문활용 수업을 하는 교사 5명 중 1명(19.7%)이 학교의 지원을 받아 신문을 구입하는데, 이는 신문활용 교육의 가치와 유용성이 입증되면 학교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밖에 현재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후원이나 기증을 통해서 신문을 구입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공식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을 구입하는 방법은 인구학적 속성 등 하부 유목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소재지역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 지역’의 교사와 ‘인천·경기 지역’의 교사들은 다른 지역의 교사들에 비해 자부담으로 신문을 구입하는 비율(각각 45.1%와 41.2%)이 높았으며 ‘학생부담’으로 구입하는 비율(각각 30.9%와 29.8%)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이나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교육용 신문을 구입하는 방법이 교사나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고 외부 지원에 의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8〉 소재지역별 신문사의 NIE 예산 확보 방식

	학교 지원	신문사 지원	교사 구입	후원 기증	학생 구입	기타
서울	14.7	16.2	45.1	12.3	30.9	14.2
인천·경기	16.4	10.5	41.2	14.7	29.8	10.9
대전·충청	43.1	18.1	30.6	23.6	24.3	14.6
광주·전라	20.5	21.8	26.9	15.4	25.6	12.8
대구·경북	34.7	16.9	28.2	21.0	23.4	7.3
부산·울산·경남	25.2	27.1	29.7	18.7	18.1	16.1
강원·제주	33.8	23.8	30.0	27.5	16.3	7.5
계	25.0	17.9	35.2	17.9	25.3	12.3

〈표 4-29〉 교실에서 사용하는 신문 구입비 부담

(단위: %)

	신문 구입비용	학교 지원	신문사 지원	교사개별 구입	후원이나 기증	학생개별 구입	기타
	계	19,7	13,5	26,7	12,4	16,7	11,1
성별	남자	18,5	11,4	29,1	12,1	17,3	11,6
	여자	22,0	18,0	21,6	13,0	15,5	9,9
근무 학교	초등학교	18,0	14,2	25,2	17,3	17,2	8,1
	중학교	19,0	11,2	29,4	8,1	16,1	16,3
	고등학교	23,0	15,4	25,6	10,8	16,7	8,7
연수 경험	있음	19,9	15,3	26,5	12,5	15,9	10,0
	없음	19,3	10,5	27,1	12,3	18,0	12,9
신문 활용	활용	20,1	14,2	27,1	12,3	15,7	10,6
	활용안함	18,0	10,6	25,1	12,9	20,5	12,9
담당 보직	있음	20,6	14,8	22,5	12,3	16,7	13,1
	없음	18,8	12,4	30,5	12,5	16,7	9,2
담당 교과 (중·고)	국어	23,0	11,0	29,5	10,1	14,2	12,4
	사회	13,0	14,6	28,6	14,2	18,4	11,5
	일반사회	20,2	24,0	22,1	7,5	20,2	6,0
	과학	22,1	10,6	28,8	2,3	13,3	22,9
	도덕	8,0	5,0	40,9	3,9	25,7	16,4
	기술·가정	14,4	14,1	29,2	7,2	10,0	25,1
	그 외	24,2	13,0	24,8	9,7	16,4	12,1
	소계	20,7	13,0	27,7	9,3	16,3	12,9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15,4	12,0	20,9	21,0	20,5	10,3
	국어	9,5	22,0	33,9	16,6	10,4	7,6
	기타	14,8	8,5	35,2	14,4	13,3	13,7
	사회	26,8	10,0	14,7	25,3	18,7	4,4
	수학	17,5	9,4	11,3	27,5	11,3	23,1
	그 외	21,3	15,5	26,2	13,7	18,6	4,7
	소계	18,0	14,2	25,2	17,3	17,2	8,1

\* [문37] 선생님께서 주관하는 NIE 관련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신문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각각의 항목별로 대략적인 비율을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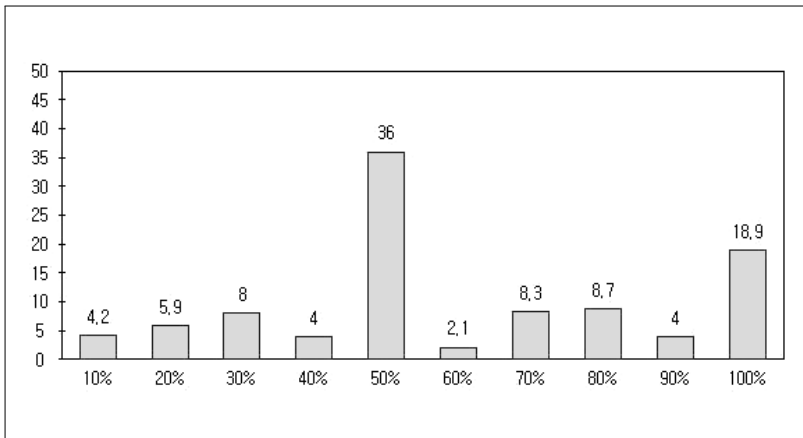
반면에 ‘대전·충청 지역’,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 지원을 받아 신문을 구입하는 비율(각각 43.1%, 34.7%, 33.8%)이 높았으며 후원이나 기증을 통해 지원받는 비율(각각 23.6%, 21.0%, 27.5%)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은 교육청 내에 담당 장학관 혹은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NIE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교육용 신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교사들은 신문사를 통해 지원받는 비율(27.1%)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았다.

#### (6) 적정 할인율

수업 및 학습용 이용 신문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알아 본 결과, ‘50%대’가 36.0%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10%대’가 4.2%, ‘20%대’가 5.9%, ‘30%대’가 8.0%, ‘40%대’가 4.0%였다. 평균값은 60.07%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할인율은 50~60%대임을 알 수 있다. 수업 및 학

〈그림 4-2〉 신문 유료 구입시 적정 할인율



습용 신문에 대한 적정 할인율은 하부 유목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7) 필요 신문 부수

이어서 교실 수업을 이끌어 가는 데 어느 정도의 신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학생 '1인당 2부 이상'이 11.1%, 학생 '1인당 1부씩'이 50.5%였다. 그밖에 '2~3인당 1부'가 19.9%, '4인 이상에 1부씩'이 12.1%였다. 이렇게 볼 때 수업에 적절한 신문 부수는 대략 1인당 1부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0〉 NIE 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문 부수 (단위: 평균 %)

필요신문 부수		1인당 2부	1인당 1부	2~3인당 1부	4~5인당 1부	부수 무관
합계		11.1	50.5	19.9	12.1	6.4
성별	남자	12.9	51.9	19.3	9.5	6.4
	여자	7.1	47.4	21.4	17.8	6.2
근무 학교	초등학교	11.5	55.8	20.4	8.0	4.4
	중학교	10.9	54.7	18.2	10.6	5.6
	고등학교	11.7	50.2	19.2	12.3	6.6
연수 경험	있음	9.9	42.9	24.1	15.3	7.9
	없음	20.0	40.0	10.0	20.0	10.0
신문 활용	활용	10.3	60.2	17.2	7.2	5.3
	활용안함	11.6	45.0	22.9	13.3	7.2
담당 보직	있음	11.7	44.7	19.9	17.0	6.7
	없음	11.0	50.4	19.1	13.4	6.1
담당 교과 (중·고)	국어	11.4	50.7	21.3	9.8	6.7
	사회	11.5	51.6	19.2	11.6	6.1
	일반사회	10.4	48.4	21.5	12.8	6.9
	과학	10.8	48.2	21.8	13.8	5.4
	도덕	11.4	52.5	18.4	10.6	7.1
	기술가정	12.9	51.2	19.4	10.5	6.0
	그 외	9.9	47.9	14.1	18.3	9.9

필요신문 부수		1인당 2부	1인당 1부	2~3인당 1부	4~5인당 1부	부수 무관
심화 교과 (초등)	초등교육	9.6	46.2	26.9	15.4	1.9
	국어	12.5	46.9	18.8	15.6	6.3
	기타	9.7	38.7	35.5	9.7	6.5
	사회	9.7	51.6	25.8	9.7	3.2
	수학	11.9	37.6	22.6	19.0	8.8
	그 외	6.1	62.6	20.2	7.1	4.0
신문 활용 수업 영역	담당교과목	10.6	51.4	19.4	13.1	5.6
	방과후수업	14.6	52.8	19.4	6.3	6.9
	자율 활동	11.9	50.6	21.3	11.2	5.0
	동아리 활동	10.9	44.5	19.1	17.3	8.2
	진로 활동	3.8	51.9	23.1	15.4	5.8
	기타	0.0	37.5	50.0	0.0	12.5

\* [문39] NIE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문의 부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NIE의 영역별 유용성에 대한 평가

NIE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NIE를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14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NIE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로 ‘매우 도움을 준다’ 44.7%,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48.0% 등 92.7%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매우 도움을 준다’에 5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에 1점을 부여하고 5점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한 결과 4.37에 이를 정도로 유용성의 수준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신문이 교과서의 내용을 연계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NIE는 ‘살아있는 교과서’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4-31〉 인지된 NIE 유용성

(단위: %, N = 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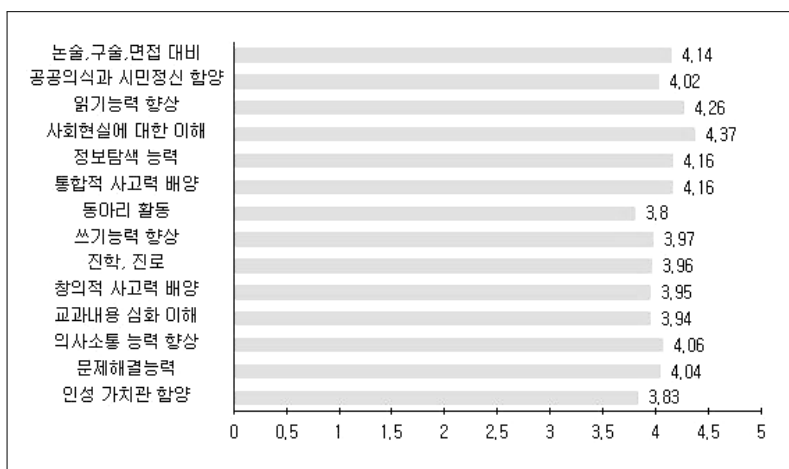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평균
읽기능력 향상	35.3	56.4	7.6	0.7	0.0	4.26
쓰기능력 향상	21.9	56.2	18.7	3.2	0.0	3.97
의사소통 능력 향상	24.1	58.7	15.6	1.5	0.0	4.06
교과내용 심화 이해	21.0	55.6	19.8	3.3	0.2	3.94
논술·구술·면접 대비	29.0	57.2	12.9	0.8	0.1	4.14
문제해결능력	23.9	58.2	16.3	1.6	0.1	4.04
진학	22.5	53.0	22.5	1.8	0.3	3.96
동아리 활동	17.4	49.6	29.1	3.4	0.5	3.80
정보탐색능력	30.8	55.6	12.4	1.2	0.0	4.16
인성 가치관 함양	18.6	50.3	26.5	4.4	0.2	3.83
창의적 사고력 배양	22.1	54.0	21.1	2.6	0.2	3.95
통합적 사고력 배양	31.0	55.7	11.7	1.4	0.2	4.16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	44.7	48.0	6.7	0.5	0.1	4.37
공공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27.0	51.2	18.7	3.0	0.1	4.02

\* [문23~36]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신문은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매우 도움을 준다(5점) -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1점)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을 준다’ 35.3%,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6.4% 등 91.7%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은 4.26이었다. 그 다음으로 유용성이 큰 영역은 통합적 사고력 배양으로 ‘매우 도움을 준다’ 31.0%,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5.7% 등 86.7%가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고 정보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준다’ 30.8%,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5.6% 등 86.4%가

〈그림 4-3〉 NIE 교육의 부문별 유용성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이 두 영역의 평균은 각각 4.16이었다. 그밖에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입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을 준다’ 29.0%,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7.2% 등 86.2%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각각의 세부 영역에 대해 학교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NIE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NIE 연수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NIE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매우 도움을 준다’ 37.2%,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5.7% 등 92.9%가 도움을 준다고 했으나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는 ‘매우 도움을 준다’ 32.4%,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7.4% 등 88.9%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NIE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NIE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매우 도움을 준다’ 38.1%,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5.4% 등 93.5%가 도움을 준다고 했으나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는 ‘매우 도움을



〈표 4-32〉 NIE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NIE 연수 경험 유무

(단위: %, N=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있다	37.2	55.7	6.6	0.5		92.9
없다	32.4	57.4	9.2	1.0		89.9

t=4.33 df=1, 1,021 p<.05

〈표 4-33〉 NIE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38.1	55.4	6.1	0.4		93.5
안 한다	29.6	58.5	10.7	1.2		88.1

t=12.68 df=1, 1,021 p<.001

준다' 29.6%,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58.5% 등 88.1%만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쓰기 능력 향상에서는 학교급별,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움을 준다는 비율('매우 도움을 준다' +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78.6%, 중학교는 80.4%, 그리고 고등학교는 74.5%가 NIE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해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IE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결과,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80.8% =

〈표 4-34〉 NIE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초등학교	25.1	53.6	17.4	4.0		78.6
중학교	23.2	57.2	17.1	2.5		80.4
고등학교	16.0	58.5	22.3	3.2		74.5

df = 2, 1,020 p < .05

〈표 4-35〉 NIE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24.0	56.8	16.6	2.6		80.8
안 한다	17.6	54.9	23.0	4.5		72.5

t = 11.61 df = 1, 1,021 p < .01

24.0% + 56.8%)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72.5% = 17.6% + 54.9%)보다 더 유용성이 크다고 인식했다.

현재 NIE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NIE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80.8%(24.0% + 56.8%)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는데 반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는 72.5%(17.6% + 54.9%)만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80.6% = 23.0% + 57.6%)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68.6% = 17.0% + 51.6%)보다 NIE가 교과 심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표 4-36〉 NIE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24.0	56.8	16.6	2.6		80.8
안 한다	17.6	54.9	23.0	4.5		72.5

t = 11.61 df = 1, 1,021 p < .01

〈표 4-37〉 NIE가 교과 심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23.0	57.6	17.4	2.0		80.5
안 한다	17.0	51.6	24.8	6.0	0.6	68.7

t = 21.77 df = 1, 1,021 p < .001

또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88.2%(30.5% + 57.7%)가 NIE는 논술·구술·면접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NIE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는 82.1%(26.0% + 56.1%)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NIE가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학교급과 현재 NIE 수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는 각각 83.6%(27.4% + 56.2%)와 83.7%(25.1% + 58.6%)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77.7%(17.4% + 60.3%)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84.4%(26.0%

〈표 4-38〉 NIE가 논술·구술·면접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30,5	57,7	11,2	0,6		88,2
안 한다	26,0	56,1	16,4	1,2	0,3	82,1

t = 7,30 df = 1, 1,021 p < ,01

〈표 4-39〉 NIE가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초등학교	27,4	56,2	15,0	1,3		83,6
중학교	25,1	58,6	14,4	1,7	0,3	83,7
고등학교	17,4	60,3	20,6	1,8	3,2	77,7

F = 5,08 df = 2, 1,020 p < ,01

〈표 4-40〉 NIE가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26,0	58,4	14,4	1,2		84,4
안 한다	19,4	57,6	20,3	2,3	0,4	77,0

t = 12,16 df = 1, 1,021 p < ,01

+ 58.4%)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는 77.7%(19.4% + 57.6%)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NIE가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77.2% = 24.7% + 52.5%)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71.9% = 17.9% + 54.0%)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표 4-41〉 NIE가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24.7	52.5	21.2	1.3	0.3	77.2
안 한다	17.9	54.0	25.1	2.7	0.3	71.9

t = 7.51 df = 1, 1,021 p < .01

NIE가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역시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69.6% = 19.3% + 50.3%)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61.5% = 13.4% + 43.1%)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4-42〉 NIE가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19.3	50.3	26.7	3.1	0.6	69.6
안 한다	13.4	48.1	34.0	4.2	0.3	61.5

t = 7.96 df = 1, 1,021 p < .01

NIE가 정보탐색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학교급과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표 4-43〉 NIE가 정보탐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초등학교	37.2	50.1	12.1	0.5	0.5	87.3
중학교	30.1	57.2	14.4	1.7	0.3	87.3
고등학교	23.0	61.0	14.5	1.4	1.4	84.0

F = 5.08 df = 2, 1,020 p < .01

(87.3% = 37.2% + 50.1%)와 중학교 교사들(87.3% = 30.1% + 57.2%)이  
고등학교 교사들(84.0%)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87.8% = 33.3% + 54.5%)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83.6% = 25.7% + 57.9%)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표 4-44〉 NIE가 정보탐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33.3	54.5	11.3	0.9	0.9	87.8
안 한다	25.7	57.9	14.6	1.8	1.8	83.6

t = 8.12 df = 1, 1,021 p < .01

NIE가 인성·가치관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는 중학교(72.1% =  
18.8% + 53.3%)와 초등학교 교사(70.7% = 22.4% + 48.3%)가 고등학교  
교사(62.4% = 13.1% + 49.3%)가 더 높게 평가했다.

〈표 4-45〉 NIE가 인성·가치관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단위: %, N=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초등학교	22.4	48.3	25.6	3.4	0.3	70.7
중학교	18.8	53.3	23.8	4.1		72.1
고등학교	13.1	49.3	31.2	6.0	0.4	62.4

F=6.27 df=2, 1,020 p<.01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70.8%=20.3%+50.4%)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65.1%=14.9%+50.1%)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4-46〉 NIE가 인성·가치관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한다	20.3	50.4	25.0	4.1	0.1	70.8
안 한다	14.9	50.1	29.6	5.1	0.3	65.1

t=5.70 df=1, 1,021 p<.05

NIE가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학교급, NIE 연수경험, NIE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 초등학교 교사(79.4%=26.9%+52.5%)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중학교 교사(77.3%=21.5%+55.8%), 고등학교 교사(69.9%=16.3%+5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7〉 NIE가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학교급별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초등학교	26.9	52.5	18.5	1.8	0.3	79.4
중학교	21.5	55.8	20.2	2.5		77.3
고등학교	16.3	53.5	25.9	3.9	0.4	69.9

F = 7.61 df = 2, 1,020 p < .01

또 NIE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77.7% = 24.4% + 53.3%)가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73.5% = 18.6% + 55.0%)보다 더 도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표 4-48〉 NIE가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연수 경험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있다	24.4	53.3	19.7	2.4	0.2	77.7
없다	18.6	55.0	23.3	3.0	0.2	73.5

t = 6.12 df = 1, 1,021 p < .05

또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78.6% = 24.3% + 54.4%)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70.7% = 17.6% + 53.1%)보다 도움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NIE가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도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89.2% = 34.7% + 54.5%)가 그렇지 않은 교사(81.5% = 23.3% + 58.2%)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4-49〉 NIE가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있다	24.3	54.4	18.9	2.3	0.1	78.6
없다	17.6	53.1	25.7	3.3	0.3	70.7

t = 10.27 df = 1, 1,021 p < .01

〈표 4-50〉 NIE가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연수 경험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있다	34.7	54.5	9.9	0.7	0.1	89.2
없다	23.3	58.2	15.5	2.7	0.3	81.5

t = 22.35 df = 1, 1,021 p < .001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94.6% = 48.5% + 46.1%)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88.7% = 36.7% + 51.9%)보다 NIE가 사회 현실 이해에 더 크게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표 4-51〉 NIE가 사회 현실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도: 현재 NIE 수업 실시 여부  
(단위: %, N = 1,023)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 준다의 합
있다	48.5	46.1	5.1	0.1	0.1	94.6
없다	36.7	51.9	10.1	1.2		88.7

t = 19.32 df = 1, 1,021 p < .001

### (9) NIE 환경에 대한 평가

1990년대 중반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NIE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1930년대에 NIE를 시작한 미국이나 1980년대에 NIE를 도입한 일본에 비해 NIE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에서 NIE를 하고 있는 교사들은 현재의 NIE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NIE의 발전을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에서의 충족 정도를 같이 조사했다. 이는 NIE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건과 현재의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NIE의 발전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14개 문항을 제시하고 질문했다. 14개 문항 모두 5점 만점 기준으로 최소 4.10에서 최대 4.65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조건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조건은 ‘e-NIE를 포함한 신문 저작물의 무료 이용’이 4.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NIE용 교수·학습자원 제공’과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보급’(각각 4.54점), ‘NIE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4.52점), ‘신문 구독료 지원’(4.51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 개발’(4.50점) 등의 순을 보였다.

〈표 4-52〉 NIE 교육의 바람직한 조건

(단위: %, N=1,023)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보통	별로 필요 안함	전혀 필요 안함	평균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56.0	40.3	3.5	0.2	0.0	4.52
학교 차원의 지원	44.8	48.3	6.5	0.5	0.0	4.37
NIE용 교수학습 자원 제공	58.8	37.0	3.7	0.4	0.0	4.54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59.2	35.8	4.6	0.4	0.0	4.54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보통	별로 필요 안함	전혀 필요 안함	평균
NIE 학습 담당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44.7	46.8	7.8	0.7	0.0	4.35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54.9	40.6	4.1	0.3	0.1	4.50
교사들의 NIE 연수기회 확대	53.6	40.3	5.8	0.4	0.0	4.47
신문 구독료 지원	58.6	34.4	6.3	0.6	0.2	4.51
교육 관련 신문기사 및 콘텐츠 확대	54.5	39.7	5.5	0.2	0.1	4.48
e-NIE 포함, 신문저작물 무료 이용	68.4	27.9	3.5	0.2	0.0	4.65
신문지면에 대한 학생 참여기회 확대	40.2	47.0	12.1	0.7	0.0	4.27
신문기자 특강 등 신문사 지원	40.3	43.0	14.8	1.7	0.3	4.21
NIE 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지원	47.1	42.7	9.4	0.7	0.1	4.36
가정에서의 NIE 지원 및 협조	32.2	47.5	18.9	1.1	0.4	4.10

\* 1) [문40~53]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NIE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NIE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5점 척도 : 매우 필요하다(5점) -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NIE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에 이어 각 부문의 현실적인 충족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다. 14개 문항 모두 5점 만점에 2점대에 분포해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환경은 열악했다.

그나마 가장 충족도가 높은 것은 ‘교사들에 대한 연수 기회’로 5점 만점에 2.74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NIE 교수·학습 자원 제공’과 ‘e-NIE를 포함한 신문 저작물의 무료 지원’(각각 2.71점),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2.65점), ‘교육관련 신문기사 및 콘텐츠 확대’(2.59점),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2.56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53〉 NIE 교육의 실제 현실 평가

(단위: %, N = 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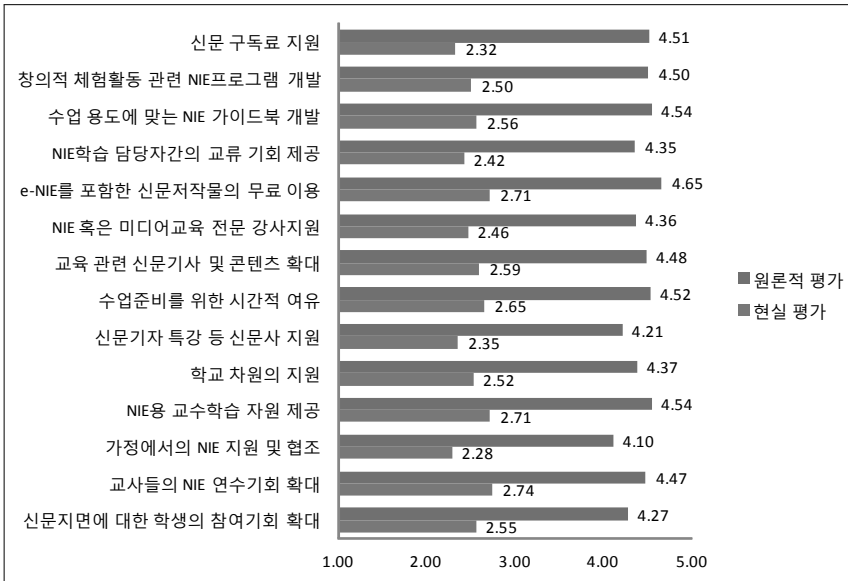
	매우 충족	어느 정도 충족	보통	별로 충족되지 않음	전혀 충족되지 않음	평균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2.5	17.7	32.5	37.0	10.4	2.65
학교 차원의 지원	4.7	15.3	27.3	32.6	20.0	2.52
NIE용 교수학습 자원 제공	4.8	20.9	29.1	31.0	14.2	2.71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3.1	15.2	32.6	32.9	16.1	2.56
NIE 학습 담당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2.9	11.8	28.6	37.3	19.3	2.42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3.1	14.0	29.3	36.6	17.0	2.50
교사들의 NIE 연수기회 확대	3.6	19.0	35.7	31.4	10.4	2.74
신문 구독료 지원	5.4	14.5	19.0	29.4	31.8	2.32
교육 관련 신문기사 및 콘텐츠 확대	3.3	15.7	32.2	34.2	14.6	2.59
e-NIE 포함, 신문저작물 무료 이용	6.5	19.5	28.7	29.7	15.6	2.71
신문지면에 대한 학생의 참여기회 확대	3.4	12.3	33.2	37.7	13.3	2.55
신문기자 특강 등 신문사 지원	3.5	12.1	24.8	34.5	25.0	2.35
NIE 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지원	5.4	14.3	24.9	32.0	23.5	2.46
가정에서의 NIE 지원 및 협조	2.8	9.3	26.0	37.0	24.9	2.28

\* [문54~67]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NIE를 하는 데 아래의 조건들은 실제로 얼마나 충족되고 있습니까?

\* 5점 척도: 매우 충족되고 있다(5점) -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1점)

이어서 각 부문별 환경요인에 대해 바람직한 조건과 현실 여건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편의상 바람직한 조건을 100으로 놓고 현실 여건이 어느 정도 인지를 %로 환산해서 ( )로 부기했다. 먼저 바람직한 조건과 현실 여건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신문 구독료 지원’이었다. 바람직한 조건을 100으로 했을 때 현실 여건은 51점에 불과했다. 필요로 하는 조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 NIE의 부문별 환경



그 다음으로 미흡한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 개발’,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NIE 학습 담당자 간의 교류 확대’, ‘NIE 전문 강사 지원’, ‘신문 기자 등 신문사 인사 특강’, ‘가정 NIE 확대 및 지원’ 등으로 모두 100점 만점에 56점 정도의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다.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면 시행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은 가운데, NIE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합한 학습자원이라는 인식과 기대가 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자 등 신문사 인사 특강에 대한 요구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문사 기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에 대한 특강 요구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54〉 NIE의 부문별 환경

(단위: 평균점수, N = 1,023)

	바람직한 조건1)		실제 현실 평가2)		(1) - (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신문 구독료 지원	4.51	5	2.32	13	2.18	1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4.50	6	2.50	9	2.00	2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4.54	3	2.56	6	1.98	3
NIE 학습 담당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4.35	11	2.42	11	1.94	4
e-NIE 포함, 신문저작물의 무료 이용	4.65	1	2.71	2	1.93	5
NIE 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지원	4.36	10	2.46	10	1.90	6
교육 관련 신문기사 및 콘텐츠 확대	4.48	7	2.59	5	1.89	7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4.52	4	2.65	4	1.87	8
신문기자 특강 등 신문사 지원	4.21	13	2.35	12	1.87	9
학교 차원의 지원	4.37	9	2.52	8	1.85	10
NIE용 교수학습 자원 제공	4.54	2	2.71	3	1.83	11
가정에서의 NIE 지원 및 협조	4.10	14	2.28	14	1.82	12
교사들의 NIE 연수기회 확대	4.47	8	2.74	1	1.73	13
신문지면에 대한 학생 참여기회 확대	4.27	12	2.55	7	1.72	14

\* 1) [문40~53]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NIE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NIE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문54~67]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NIE를 하는 데 아래의 조건들은 실제로 얼마나 충족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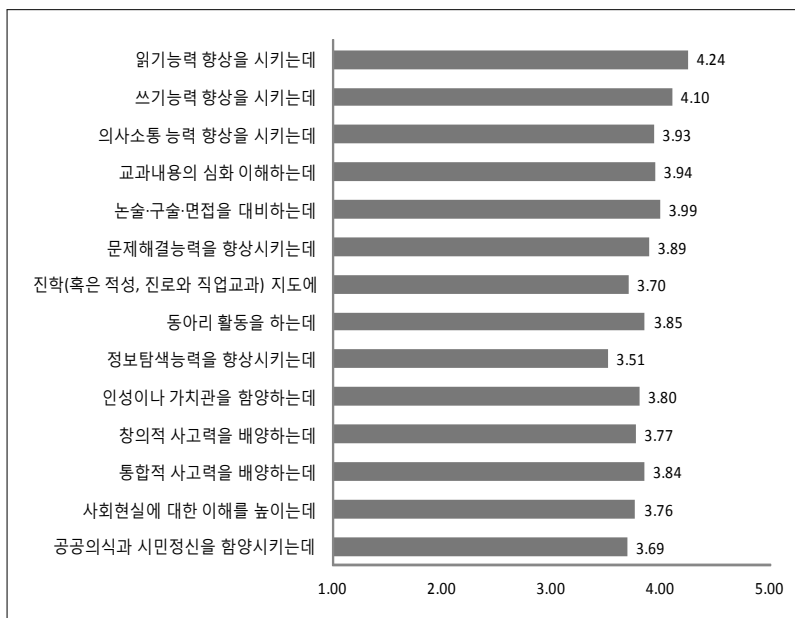
\* 5점 척도 : [문40~53] 매우 필요하다(5점) -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문54~67] 매우 충족되고 있다(5점) -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1점)

## (10) NIE 교육에 사용되는 종이신문과 전자(디지털)신문의 차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함께 NIE의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NIE의 디지털화에 찬성 입장을 가진 측은 미디어 환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NIE의 디지털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반대 입장을 가진 측은 NIE의 가치는 종이신문이 가진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

〈그림 4-5〉 NIE 교육에 사용되는 종이신문과 전자(디지털)신문의 차이점



이신문 NIE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배경에서 NIE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종이신문과 디지털신문의 영역별 NIE 효과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NIE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NIE를 한 적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효과 면에서 종이신문이 디지털 형태의 신문보다 월등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읽기 능력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종이신문이 전자신문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5.4%, ‘어느 정도 그렇다’ 40.6% 등 전체의 86.0%가 이 진술에 동의를 표했다.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매우 그렇다’ 38.1%, ‘어느 정도 그렇다’ 41.0% 등 전체의 79.1%가 ‘종이신문이

〈표 4-55〉 NIE 교육에 사용되는 종이신문과 전자(디지털)신문의 차이점(단위: %, N=1,023)

종이신문이 전자신문보다... 더 효과적이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읽기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	45.4	40.6	8.1	4.9	1.1	4.24
쓰기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	38.1	41.0	15.0	4.8	1.2	4.10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	30.1	41.3	21.3	6.5	0.9	3.93
교과내용의 심화 이해에	30.6	41.2	20.7	6.7	0.9	3.94
논술·구술·면접을 대비하는 데	31.8	42.1	20.2	5.2	0.7	3.99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27.0	42.7	23.4	6.3	0.7	3.89
진학이나 진로 지도에	22.3	37.2	30.1	9.4	1.0	3.70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27.0	39.8	25.7	6.6	1.0	3.85
정보탐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21.5	32.4	25.0	18.2	2.9	3.51
인성이나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25.8	38.2	27.4	7.5	1.1	3.80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25.1	38.0	26.6	9.7	0.6	3.77
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27.4	39.4	24.1	8.7	0.5	3.84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25.7	35.5	28.4	9.7	0.8	3.76
공공의식과 시민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23.3	34.0	31.8	10.2	0.8	3.69

\* 1) 5점 척도: 매우 그렇다(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전자신문보다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 밖에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교과내용에 대한 심화 이해’, 그리고 ‘논술·구술·면접 준비’ 등에도 종이신문이 전자신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서 종이신문 NIE가 전자신문 NIE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 동의를 했지만 ‘정보탐색 능력 향상’, ‘공공의식과 시민의식 함양’, ‘진로 진학지도’ 등의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11) 신문사에 대한 요구사항

신문활용 교육과 관련하여 신문에 대한 요구사항을 교사들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알아보고 ‘신문 및 e-NIE 지원’, ‘저널리즘 관련 요구’, ‘NIE 지면 및 콘텐츠’, ‘신문사 주도 행사’, ‘기타’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이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NIE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내용은 NIE 지면 및 콘텐츠에 관한 요구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이를 세분류하면 ‘NIE 지면 및 콘텐츠 확대’가 23.2%, ‘수준별 세분화’가 9.9%, ‘NIE 가이드북 제공’이 3.5%였다.

NIE 지면 및 콘텐츠에 관한 요구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NIE 지면 및 콘텐츠 확대’에 관한 요구는 고등학교는 26.9%로 많은 데 반해 초등학교는 19.1%로 적었다.

교사들이 요구한 수준별 세분화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서 NIE 지면이나 콘텐츠의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16.8%)에게서 특히 많았다.

NIE 지면 및 콘텐츠에 관한 요구에 이어 교사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은 ‘신문 및 e-NIE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2.8%가 응답했는데 이를 세분류하면 ‘신문 무료 지원’이 23.5%, ‘e-NIE 무료 지원’이 5.2%, ‘신문 구독료 할인’이 4.1%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신문 무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위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으로써 신문에 대한 요구가 매우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신문 무료 지원에 관한 요구는 초등학교(27.1%)에서 더 많았으며 신문 구독료 할인은 고등학교(7.2%)에서 특히 많았다. 그리고 e-NIE 무료 지원은 중학교(6.9%)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저널리즘에 관한 요구도 22.8%로 많았는데, 주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다. 세분화해서 보면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10.6%였으며 이념적 균형을 기해달라는 요구는 5.2%였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저널리즘 측면에서 지면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널리즘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 외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3.7%였다.

저널리즘에 관한 요구사항을 학교급별로 세분해 보면 중학교 교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15.1%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요구비율도 높았다.

신문사가 주도하는 NIE 관련 행사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응답자의 20.8%가 이를 요구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연수나 세미나 확대’가 10.7%, ‘기자 특강 확대’가 5.7%, 그리고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4.4%였다.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지면 외 NIE 프로그램들이 학생 참여 행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요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선 연수 부분이다. 교사들이 현재 참가하고 있고 또 참가할 수 있는 연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교사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문사에 대한 연수 및 세미나 확대 요구는 신문사가 주도하는 연수 및 세미나의 확대를 요구할 뿐 아니라 교사와 신문 관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사 주도의 행사에 관한 요구를 학교급별로 보면 연수 및 세미나 확대의 경우 중학교 교사(13.4%)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56〉 NIE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개선희망사항(오픈문항) (단위 : %)

		초등학교 (N=299)	중학교 (N=291)	고등학교 (N=223)	전체 (N=813)
신문 및 e-NIE 지원	신문 무료 지원	27,1	21,3	21,5	23,5
	신문 구독료 할인	3,3	2,4	7,2	4,1
	e-NIE 무료 지원	5,4	6,9	2,7	5,2
	소계	35,8	30,6	31,4	32,8
저널리즘 관련 요구	이념적 편파성 탈피	4,7	5,5	5,4	5,2
	정확성, 객관성 확보	6,4	15,1	10,3	10,6
	정제된 용어 사용	2,0	1,4	0,9	1,5
	긍정적인 기사 확대	2,7	1,4	1,3	1,8
	학생 관심기사 확대	2,7	3,8	4,9	3,7
	소계	18,5	27,2	22,8	22,8
NIE 지면 및 콘텐츠	NIE 지면 · 콘텐츠 확대	19,1	24,8	26,9	23,2
	수준별 세분화	16,8	7,2	4,9	9,9
	가이드북 제공	4,4	2,7	3,1	3,5
	소계	40,3	34,7	34,9	36,6
신문사 주도 행사	연수 · 세미나 확대	9,0	13,4	9,4	10,7
	기자 특강 확대	5,3	5,8	5,8	5,7
	학생 참여프로그램 확대	3,0	4,8	5,8	4,4
	소계	17,3	24,0	21,0	20,8
기타	비수익화 지향	1,0	1,0	1,8	1,2
	적극적인 홍보	2,0	1,7	0,9	1,6
	기타	5,4	5,5	6,7	5,8
계		100,0	100,0	100,0	100,0

\* [문82]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관련하여, 신문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오픈설문 문항을 분류 후 재코딩/복수응답

## 5. 한국신문의 NIE 운용실태와 문제점 요약

### 1) 신문사 NIE 실시 현황

2012년 현재 NIE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신문사는 전국 일간지 9개사, 지역 일간지 13개사 등 22개였다. 이는 2009년(13개사)에 비해 9개사가 늘고 2010년(26개사)에 비해 4개사가 줄어든 수치다.

이 중에서 NIE 지면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는 종합 일간지 6개사, 경제지 2개사, 전문신문 1개사, 지역 일간지 5개사 등 14개사였다. 우리나라 전체 일간지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73%나 미국의 63% 수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신문사의 NIE가 장기적인 비전이나 체계성 없이 단발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2) NIE 지면의 내용

#### (1) NIE 면의 주제 및 형태

NIE 지면에 게재되는 기사 수는 신문사당 1주일에 평균 3.0건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크게 ‘공공의식과 시민정신 함양’과 ‘학습방법 안내’를 포함한 ‘학습력 향상’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밖에 ‘사회 현실 이해’, ‘교과연계나 교과 심화 학습’, ‘읽기 및 쓰기’, ‘논술 대비’ 등에 관한 주제도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진로 활동’이나 ‘창의적 사고력 향상’, ‘인성 및 가치관 함양’ 등에 관한 주제는 드물었다.

NIE에 관한 기사의 형태 역시 다양했지만 ‘사고력 확장’과 ‘논술문제 가이드’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고력 확장 코너는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사고력의 폭을 넓혀가도록 NIE 방법을 가이드하는 형태였으며 논술문제 가이드는 신문에 나오는 시사 이슈

를 논술문제와 연관시켜 해결해 보도록 안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2) 필진 구성

NIE 지면의 기사는 약 3분의 2가 외부 기고에 의한 기사였으며 자체 제작 기사와 콘텐츠는 약 3분의 1정도에 불과해 NIE 지면의 외부 의존도가 높았다.

## (3) NIE 면의 주요 대상

NIE 면의 기사나 콘텐츠는 90% 이상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사였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주요 대상으로 한 기사는 8% 이내였다. 학생 대상 기사 중에서도 초등학생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는 학교급별 학령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불특정 대상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신문사에서 만드는 NIE 지면이 뚜렷한 목표 대상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깃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NIE 면은 본래적 의미의 NIE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안내서 성격이 짙다. 즉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NIE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대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대상은 교사나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 (4) 교육면(섹션)의 주제 및 주요 취재원

중앙 종합 일간지와 지역 종합 일간지 등 23개 일간지의 교육면 혹은 교육 섹션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당 매주 평균 3.1면에 8.3건의 교육 기사를 고정적으로 게재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었다.

주제별로는 대학입시를 직접 겨냥한 기사(28.1%)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학습방법이나 학습력 향상에 관한 기사(26.3%) 학교생활

과 관련된 기사(17.0%) 등도 많았는데 이 기사들 역시 간접적이지만 대입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면은 전체적으로 대입 중심의 지면임이 드러났다. 그에 반해 청소년의 고민, 취미·여가생활, 그리고 교우관계나 이성문제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학업 외적인 관심사에 대한 기사는 모두 합쳐도 2.0%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한편 ‘대학입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사만 골라 지향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주요대나 명문대가 전체의 44.1%로 나타나 교육면이 명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면의 주요 대상 역시 학생이 대부분(72.7%)이었지만 학부모를 겨냥한 기사도 24.1%로 많은 편이었다.

교육면의 주요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 전문가가 38.9%에 이를 정도로 사교육 채널 의존도가 높았다. 그에 반해 공교육 교사나 교육관계자는 27.6%였다.

### 3) 지면 외 NIE 프로그램

NIE 지면 제작 외에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문사는 16개사였는데 가장 대부분 ‘신문 관련 경진대회’와 ‘NIE 관련 강의 혹은 교실 운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6개사 중 각각 8개사가 이 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각 신문사별로 나름의 차별을 기하려는 흔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신문사의 NIE 프로그램은 유사하고 단조로운 특징을 띠었다. 외국의 신문사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 4) 신문사 NIE 조직 및 인력 운용

##### (1) NIE 담당 부서

신문의 NIE 지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중앙 일간지는 편집국이 아닌 다른 부서나 별도 법인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방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NIE를 편집국에서 담당했다.

##### (2) 외부 전문가 활용

중앙 일간지는 NIE 지면을 제작하면서 대부분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했는데, 주로 사교육계의 논술 전문 강사들이 많았다. 그에 반해 지역 일간지들은 대부분 외부 전문 인력 없이 편집국 내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부산일보와 전북일보는 교육청이나 교사연구회와 같은 공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다른 신문들과 차이를 보였다.

NIE 업무를 부서별로 보면 편집국에서 NIE를 담당하는 경우 특히 사회부 기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편집국의 인력 구조로 볼 때에는 NIE가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되거나 본 업무의 보조업무로 취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NIE 지면을 게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가 1주일에 1면 이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신문사가 1인 2역 이상을 해야 하는 기자를 NIE 업무에 배치하고 있어서 인력 구조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했다.

##### (3) NIE 연수 기회

NIE 담당기자들 역시 전문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연수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NIE 기자에 대한 연수과정 자체가 없을 뿐더러 워크숍 같은 기회도 연간 1~2회에 불과했다.

#### (4) 관련 예산 확보

NIE 지면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신문사는 전체의 25.0%에 불과했고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는다는 신문사가 41.7%였으며, 자비로 충당하는 신문사도 16.7%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NIE를 하고 있는 신문사의 상당수가 NIE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만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학교 신문 제공

NIE를 하고 있는 신문사의 절반가량인 11개 신문사가 많게는 월 2,500부에서 적게는 100부까지 학교에 신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 제공용 신문은 ‘일부 후원을 받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각각 35.7%)가 많았으며 ‘전액 후원을 받아’ 제공하는 신문사는 7.2%에 불과했다.

### 5) 학교 NIE 현황과 신문사 NIE에 대한 평가

학교 NIE의 최근 현황과 함께 교사들이 신문사의 NIE 지면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2년 8~9월에 걸쳐 NIE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1) NIE 수업영역

NIE를 실시하고 있는 수업영역은 ‘담당 교과수업’이 43.4%로 가장 많았지만, ‘자율 활동’(15.6%), ‘동아리 활동’ 10.8%, ‘진로 활동’ 5.1% 등과 비교과 활동 영역도 31.5%로 나타났다.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혼재돼 있는 방과 후 수업에서 NIE를 하는 비율도 14.1%였다.

이어서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 수업영역을 중복응답을 포함해서 3순위까지 통합해서 알아본 결과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영역이 각각 41.8%, 31.1%, 27.4%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이 학교급별로 또 학년별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3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비교과 활동의 신문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2) 신문활용 수업 빈도

전체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가 28.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3주에 한 번 정도' 15.9%, '1주일 여러 번'이 8.3%로 나타나 절반 이상(52.5%)이 최소한 2~3주 이내에 신문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NIE 관련 지면 구독 정도

NIE 담당 교사들 중에서 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NIE 지면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교사가 18.7%, '자주 구독하는' 교사가 13.3%로 나타났다. 본 설문지의 응답자들이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교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NIE 지면 구독률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도 또한 낮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다(박진우·김예란, 2011, 197쪽).

한편 NIE 지면을 자주 읽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용성을 파악한 결과 NIE 방법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그밖에 NIE에 관한 정보나 소식을 알거나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 (4) 신문 구입비용

교실에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신문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26.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의 지원' 19.7%, '학생들의

개별 구입' 16.7%, '신문사 지원' 13.5%, '후원이나 기증' 13.5%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우선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26.7%가 개인 부담으로 신문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문활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학급당 10부 이상, 많게는 학생 1인당 1부씩의 신문을 필요로 하는데, 담당 교사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경제적 부담은 신문활용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용 신문을 구입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문활용 수업을 하는 교사 5명 중 1명(19.7%)이 학교의 지원을 받아 신문을 구입하는데, 상황에 따라 학교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밖에 현재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후원이나 기증을 통해서 신문을 구입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데 이는 향후 교육용 신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신문을 구입하는 방법은 소재 지역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 지역'의 교사와 '인천·경기 지역'의 교사들은 다른 지역의 교사들에 비해 자부담으로 신문을 구입하는 비율(각각 45.1%와 41.2%)이 높았으며 '학생 부담'으로 구입하는 비율(각각 30.9%와 29.8%)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이나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교육용 신문을 구입하는 방법이 교사나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고 외부 지원에 의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대전·충청 지역',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 지원을 받아 신문을 구입하는 비율(각각 43.1%, 34.7%, 33.8%)이 높았으며 후원이나 기증을 통해 지원받는 비율(각각 23.6%, 21.0%, 27.5%)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은 교육청 내에 담당 장학관 혹은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NIE를 정책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교육용 신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교사들은 신문사를 통해 지원받는 비율(27.1%)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았다.

#### (5) 적정 할인율

수업용으로 이용하는 신문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알아본 결과, ‘50%대’가 36.0%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10%대’가 4.2%, ‘20%대’가 5.9%, ‘30%대’가 8.0%, ‘40%대’가 4.0%였다. 평균은 약 60%대였다.

#### (6) 필요 신문 부수

신문활용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신문 부수는 학생 ‘1인당 2부 이상’이 11.1%, 학생 ‘1인당 1부씩’이 50.5%로, 60% 이상이 최소 1부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2~3인당 1부’는 19.9%, ‘4인 이상에 1부씩’은 12.1%였다.

#### (7) NIE의 영역별 유용성에 대한 평가

NIE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효과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였다. ‘매우 도움을 준다’ 44.7%,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48.0% 등 92.7%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는데, 5점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면 4.37에 이를 정도로 유용성의 수준이 높았다.

‘읽기 능력 향상’에도 91.7%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그밖에 ‘통합적 사고력 배양’에는 86.7%가, ‘정보 탐색력 향상’에는 86.4%가,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입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도 86.2%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NIE 연수경험’은 NIE의 영역별 유용성 평가에 다양한 의미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E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 그리고 현재 NIE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수준에서 NIE의 유용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연수경험 및 NIE 수업 실시 여부가 NIE의 유용성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NIE의 유용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연수 확대와 NIE를 지속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 (8) NIE 환경에 대한 평가

NIE 활성화에 필요한 14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NIE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e-NIE를 포함한 신문 저작물의 무료 이용’으로 5점 기준에 4.65점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NIE용 교수·학습자원 제공’과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보급’(각각 4.54점), ‘NIE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4.52점), ‘신문 구독료 지원’(4.51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 개발’(4.50점)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NIE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에 이어 각 부문의 현실적인 충족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다. 14개 문항 모두 5점 만점에 2점대에 분포해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환경은 열악했다.

이어서 각 부문별 환경요인에 대해 바람직한 조건과 현실 여건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편의상 바람직한 조건을 100으로 놓고 현실 여건이 어느 정도 인지를 %로 환산해서 ( )로 부기했다. 먼저 바람직한 조건과 현실 여건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신문 구독료 지원’이었다. 바람직한 조건을 100으로 했을 때 현실 여건은 51점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미흡한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 개발’,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NIE 학습 담

당자 간의 교류 확대', 'NIE 전문 강사 지원', '신문 기자 등 신문사 인사 특강', '가정 NIE 확대 및 지원' 등으로 모두 100점 만점에 56점 정도의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NIE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다.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면 시행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은 가운데, NIE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합한 학습자원이라는 인식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문사 인사 특강에 대한 요구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문사 기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에 대한 특강 요구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 (9)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효과 차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함께 NIE의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NIE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종이신문과 디지털신문의 영역별 NIE 효과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NIE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NIE를 한 적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효과 면에서 종이신문이 디지털 형태의 신문보다 월등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읽기 영역이었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종이신문이 전자신문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질문에 응답 교사들의 86.0%가 이 진술에 동의를 표했다. 그밖에 '쓰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교과내용에 대한 심화 이해', 그리고 '논술·구술·면접 준비' 등에도 종이신문이 전자신문보다 압도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서 종이신문 NIE가 전자신문 NIE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 동의를 했지만 '정보탐색 능력 향상', '공공의식과 시

민의식 함양, ‘진로 진학지도’ 등의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10) 신문사에 대한 요구사항

교사들의 현실적인 바람과 함께 설문조사에서 분석하지 못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실시했다. 교사들의 응답내용을 ‘신문 및 e-NIE 지원’, ‘저널리즘 관련 요구’, ‘NIE 지면 및 콘텐츠’, ‘신문사 주도 행사’, ‘기타’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NIE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내용은 ‘NIE 지면 및 콘텐츠’에 관한 요구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이를 세분류하면 ‘NIE 지면 및 콘텐츠 확대’가 23.2%, ‘수준별 세분화’가 9.9%, ‘NIE 가이드북 제공’이 3.5%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요구한 사항은 ‘신문 및 e-NIE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2.8%가 응답했는데 이를 세분류하면 ‘신문 무료 지원’이 23.5%, ‘e-NIE 무료 지원’이 5.2%, ‘신문 구독료 할인’이 4.1%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신문 무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위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으로써 신문에 대한 요구가 매우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저널리즘에 관한 요구도 22.8%로 많았는데, 주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다. 세분화해서 보면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10.6%였으며 이념적 균형을 기해 달라는 요구는 5.2%였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기증하는 핵심요소로 저널리즘 측면에서 지면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널리즘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 외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3.7%였다.

신문사가 주도하는 NIE 관련 행사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응답자의

20.8%가 이를 요구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연수나 세미나 확대’가 10.7%, ‘기자 특강 확대’가 5.7%, 그리고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4.4%였다.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지면 외 NIE 프로그램들이 학생 참여 행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요구는 특히 연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교사들이 현재 참가하고 있고 또 참가할 수 있는 연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교사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문사에 대한 연수 및 세미나 확대 요구는 신문사가 주도하는 연수 및 세미나의 확대를 요구할 뿐 아니라 교사와 신문 관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05

## 결론 및 제언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NIE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와 함께 NIE 활성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신문사의 NIE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 진단함으로써 신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 신문의 NIE 동향과 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했다. NIE에 관한 과거의 외국 사례연구가 시의성이 떨어지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번 외국 사례연구에서는 세계신문협회와 일본, 미국의 NIE 활동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한국 신문이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신문사의 지면분석을 통해 ‘NIE 지면’과 ‘지면 외 NIE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신문사 내의 NIE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NIE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신문사 NIE 지면 및 운용방식에 관한 평가와 NIE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 내용 등에 관해 분석했다. 이는 NIE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신문사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점 1: NIE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신문사들의 집합적이고 조직화된 힘인데, 이 힘이 보이질 않았다. 일차적으로 신문사 경영진들의 NIE에 대한 관심과 비전 부재 때문이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NIE가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NIE 강국 중 하나인 일본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수준 높은 학교 NIE 자원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또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신문이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서 한국은 정부가 NIE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sup>1)</sup> 그러나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한국의 NIE에는 ‘신문만 있을 뿐’ 신문사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문사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NIE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현장과 접점이 이뤄지는 분야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우선 한국 신문사에는 NIE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만한 조직이나 인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NIE를 담당하는 기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취재활동을 하면서 NIE 업무를 병행했다. 또 NIE 사업을 하는 신문사 중 고정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신문사는 4곳 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업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는 신문사 내에서 NIE에 관

---

1)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활용 교육(NIE)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 현장 중심의 신문활용 교육’, ‘사회 신문활용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한 이 계획에는 3년간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 일은 뚜렷한 위상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물론 열악한 환경 아래서 적지 않은 규모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신문사들도 있다. 그러나 NIE의 성공은 몇몇 신문사들만의 노력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IE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는 NIE 성공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신문사들의 집합적이고 조직화된 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조건은 신문활용 교육을 넘어 신문읽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이 역시 신문사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문제점 2: 신문사 NIE의 대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NIE 지면이 특화되지 못하고 또 교습 및 학습 자원으로서 신문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대입이나 논술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

국내 13개 신문사가 1주일에 최소 1면 이상의 NIE 지면을 발행하고 있으나 내용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타깃이 불분명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또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NIE면을 논술면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신문사 내에서 'NIE는 곧 입시나 논술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NIE면만 아니라 교육면 혹은 교육 섹션 전반에 깔려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신문이 전략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부응해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나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입이나 논술 관련 내용에 치우쳐 있고 그것도 사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면을 장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신문은 그야말로 대중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입 정보나 논술에 관한 한 지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문 사교육 업체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 경향은 '대학 입학의 한 수단'이라는 일시적

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교육 강화’라는 국가 교육정책에 반하면서 장기적으로 외면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도 ‘입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오히려 신문에서 멀어질 수 있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 독자 확보’라는 NIE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점 3: 한국의 신문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기사나 콘텐츠가 거의 없다. 이는 청소년의 미래 신문 리더십 기반을 구축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신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한 룬달렌과 스티(Raundalen & Steen, 2004)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에 대한 신문의 무관심이 신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신문협회가 3차에 걸쳐 실시한 시리즈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NAA, 2005; NAA, 2006; NAA, 2011a). 즉 학생 시절의 신문 접촉 경험은 이들의 미래 신문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문접촉 경험 중에서도 ‘신문활용 수업을 한 경험’, ‘자신이 직접 기사를 써 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 학생이 쓴 기사를 보거나 또는 일반 기자가 학생들을 위해 쓴 기사를 읽은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관심사를 다룬 기사는 현재적으로 학생들이 신문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하고 미래의 신문독자가 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는 ‘학생을 위해’, ‘학생이 직접 쓴’ 기사가 기성 일간지의 주요 면을 장식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일간지 『헤일브로네 스티메』 같은 신문은 초·중학생들이 만든 기사를 1면 전면에 배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 지면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쓴 기사는 전무하고 학생들의 관심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 신문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문의 교육면 분석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고민, 취미나 여가생활, 그리고 교우관계나 이성문제 등과 같은 청소년의 관심사를 다룬 기사는 2% 남짓에 불과했다.

물론 ‘교육에 관한 기사가 넘쳐 나고, 또 별도의 교육 섹션을 만들 정도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 현재의 교육 섹션에 긍정적인 면도 많다. 독자에게 교육에 관한 기사만을 집중적인 형태로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교육 정보에 목말라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정보 채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기사를 자세히 보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나라는 기사가 아니라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과 같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사건 중심으로 접근한다. 교육 섹션 역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교육면은 입시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시에 치중해 있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난의 대상이 아니면 입시정보에 관한 기사가 다인 셈이다.

문제점 4: NIE 활성화 차원에서 신문사들이 다양한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千篇일률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NIE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의 신문 독자 확보’라는 취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신문의 지면 외 NIE 프로그램은 ‘NIE 경진대회’와 ‘NIE 강의 혹은 교실’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많은 신문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진대회 성격의 행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신문 제작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한 스펙 쌓기’에 그치고 마는 경우까지 있다. 또 행사 자체가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정해진 틀을 강조하

고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되고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점 5: NIE를 담당하는 인력이 비체계적일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연수나 재교육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NIE 담당자들은 신문사 내에서 명확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IE 지면을 게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가 1주일에 1면 이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신문사가 1인 2역 이상을 해야 하는 기사를 NIE 업무에 배치하고 있어서 인력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조직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NIE 담당자들은 전문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연수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NIE 기자에 대한 연수과정 자체가 없을 뿐더러 워크숍 같은 기회도 연간 1~2회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 관행적인 제작에 익숙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콘텐츠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점 6: 저널리즘의 신뢰도 문제가 학생들이 신문을 가까이 하는 데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NIE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 내 NIE 활성화를 위해 신문사에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신문기사의 질, 즉 저널리즘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문의 '이념적 편파성' 대한 문제 제

기가 많았다. 한국 신문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편파성으로 인해 특정신문의 견해가 학생들에게 주입될 우려가 높고 신문 간 관점이나 논조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신문에 고유한 저널리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논조가 다른 두 신문을 같이 읽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립적인 두 시각이나 의견을 같이 접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시각을 동시에 볼 때, 오히려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어느 한 쪽으로 더 편향된 의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황치성, 2009).

신문사 간 이념적 편파성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신문을 구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 교사들이 신문의 논조만큼이나 신문 선호도가 뚜렷하고 비선호 신문에 대한 배척 경향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신문을 들여올 것인가에 대해 항상 논란이 많았다.

문제점 7: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인 ‘교육용 신문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NIE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NIE 담당 교사들은 물론 일반 교사들도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혹은 학습자원으로서 신문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고 있지만 교육용 신문 확보에 대한 부담 때문에 NIE를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NIE를 논의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원론적으로 보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교나 학생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학교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유

료로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육 혹은 학습자원으로서 신문의 가치와 잠재력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신문은 여러 정보미디어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도 사양길에 접어든 미디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NIE’, ‘미래 독자 확보’ 나아가 신문읽기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관건은 학생들이 신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용 신문 확보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2. 결론: 신문사 NIE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언 1. 신문사 경영진들의 NIE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의 출발점은 NIE를 단기간의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NIE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미래 독자를 확보한다는 경영 철학의 정립이다. 그리고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신문사 내에서 NIE 업무에 대한 명확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도의 전담 인력과 고정 예산 투입이 포함된다.

제언 2. 신문사 경영진이 포함된 신문계 공동의 NIE 실행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NIE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문사 경영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적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신문계 공동의 실행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신문협회 사무국에서 NIE

업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핀란드의 경우 신문사 경영진들이 참여한 NIE 위원회를 운영했고 일본 신문협회 산하의 NIE 위원회는 신문사의 경영진들을 포함, 80명이 넘는 상근 인력을 전담 배치하고 있다.

제언 3. 현재의 NIE 지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부적인 NIE 방법보다는 NIE에 대한 동기 부여나 대입이나 논술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긴 호흡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필요 충족’, ‘참여’, ‘재미’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IE 지면은 학생들에게 ‘대입’이라는 단발성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NIE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 신문 기사를 학교 교과과정에 쉽게 접목시키기가 어렵고 NIE를 할 만한 시간과 교습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NIE 콘텐츠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실 신문이 인력이나 지면 제작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언어, 영어, 수학과 같은 정규교과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규교과목에서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외에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해 비교과과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비중도 커진 만큼 이 분야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또 하나의 방법은 NIE 지면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신



문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해결과 참여 그리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현재의 신문의 NIE면은 NIE를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도입부이자 동기 부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실질적인 NIE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NIE 면을 신문읽기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형태의 NIE 활동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내 일부 신문사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외국 신문의 경우 거의 일반화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지면 제약 때문에 종이신문에서 할 수 없었던 상호작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언 4. 청소년들이 신문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그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신문독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사를 지면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미래 리더십 구축 차원에서 청소년의 관심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별지 섹션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소한 현재의 NIE면이나 교육 섹션의 일부를 할애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이를 신문사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세계신문협회 산하 청소년독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독자상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신문지면에 청소년들이 직접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역시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신문의 오랜 관행 때문인지 이를 반영한 신문이 거의 없다. 일부 신문에서 학

생기자단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논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기사 쓰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교육과 입시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학생이 직접 기사를 써 보는 경험은 흔히 ‘언론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대입용 스펙’ 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기사를 직접 써 보는 경험은 인생 전반의 진로에 큰 의미를 가진다. 취재나 편집활동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전형이다. 학생이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이자 소통자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전면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기존의 NIE 면이나 교육 섹션의 일부를 할애해 시도해 보자.

제언 5. 신문읽기 장려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신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이 신문사가 주도하는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와 재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경제적 보상일 필요는 없다.

세계신문협회가 2012년에 시행한 마이드림 인터뷰 콘테스트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행사는 신문사가 ‘학생들이 평소 만나고 싶어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는 롤모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한 한국의 교육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롤모델을 설정하고 인터뷰를 포함한 다양한 자기주도적 진로탐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다.

또 경진대회를 통해 신문읽기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활동을 시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언론인 강사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 그리고 진로교육 강화로 인해 외부 전문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NIE 담당 교사들이 ‘기자들의 교실특강’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언론인은 다른 전문가 직업군에 비해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 언론인은 현장 정보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핵심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터뷰하는 방법’, ‘파편화된 정보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내는 방법’들까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필요로 하면서도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교육자원들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올해 ‘교육서포터’란 명칭으로 95명에 달하는 사내인력을 학교 현장 강사로 파견해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제언 6. NIE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치하고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NIE 전담자가 반드시 편집국 소속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NIE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내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 NIE 업무는 교육 현장의 변화와 독자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NIE 전담자들에게는 일반 기자 이상의 재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NIE 관련 정보를 취재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다. 현재의 NIE 기사가 손쉽게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역에 집중되고 한정된 소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사 NIE가 정착될 때까지라도 각 신문사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재원 및 정보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신문사 인력 구조로 볼 때 NIE 담당자들이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은 불가피하다. 이런 면에서 부산일보와 전북일보가 교육청이나 교사연구회와 같은 공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명분도 맞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다.

제언 7. 저널리즘의 신뢰도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최소한 NIE 활성화 차원에서 관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NIE 담당 교사들이 요구하는 균형성과 공정성은 바로 관점의 다양성 문제다. 갈등 사안을 다룰 때 대립되는 관점을 고루 다루는 것은 언론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양측의 입장을 고루 다루기보다는 어느 한 쪽 관점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이념의 편파성은 사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기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사실 위주로 보도해야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까지 일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대립되는 관점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제3, 제4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지개 색깔

에는 빨간색과 보라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황색에서 남색에 이르는 다양한 중간 영역이 있다. 이런 중간 영역을 배제할 때 극단적인 갈등이 증폭된다. 관점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한국 신문의 저널리즘에 고착화되어 있는 고나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담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제언 8. 교육용 신문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NIE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신문읽기의 유용성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최소한 초기 몇 년간이라도 교육용 신문 구독료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신문사를 포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관계 기관이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신문활용 교육은 '미래 독자 확보'라는 신문사의 사업적 취지를 넘어 전국적으로 약 2,000개의 학교가 도입할 정도로 주요한 교습 및 학습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의 언어능력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전국 학교의 모든 도서관에 신문을 비치하도록 2012년부터 연간 15억 엔씩 5년간 75억 엔의 신문 구독료 예산을 지원한 것이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제언 9. 지역별로 산재된 NIE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NIE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각계 단체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센터는 물론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진로 활동 혹은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 NIE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형태로든 NIE가 확산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전국 각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IE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에서 전문성과 체계화가 담보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율성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운동 차원으로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지에서 분산돼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제언 10 : NIE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NIE가 세계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실제적 현상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내에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이고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자로서 신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NIE가 미래 독자 확보를 포함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디지털 시대에 NIE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등. 이러한 내용들은 NIE에 관한 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료나 정보가 거의 없다. NIE에 관한 학문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NIE는 우수한 사례와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축적, 발전되지 못함으로써 사례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를 통합, 체계화시킬 수 있는 학문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 부록: NIE(신문활용 교육) 이용현황 및 환경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NIE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학교 현장의 NIE 이용현황 및 환경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NIE 환경을 구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쭙볼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집계되어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선생님의 평소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www.hrc.co.kr)
- 책임연구 : 황치성 02-2001-7745

선문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선문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 다음은 NIE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문2.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무엇입니까? 2개 이상의 수업에서 활용하실 경우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② 방과 후 수업  
③ 자율 활동(창의적 특색활동)  
④ 동아리 활동  
⑤ 진로 활동  
⑥ 기타( )  
⑦ 활용하는 교과목이 없음

문3. 담당하시는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주일에 여러 번                      ② 1주일에 한 번 정도  
③ 2~3주에 한 번 정도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⑤ 2~3달에 한 번 정도                  ⑥ 한 학기에 한 번 이하  
⑦ 활용하지 않는다

문4. 현재 일간지에서 제공하는 NIE 관련 지면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구독한다                  ② 자주 구독하는 편이다  
③ 가끔 구독한다                          ④ 전혀 구독하지 않는다

문5. 현재 NIE 지면을 구독하고 계신 신문은 무엇입니까? (주로 읽는 신문순으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순위( )  
② 2순위( )  
③ 3순위( )  
④ 구독하지 않는다

문6~8. 현재 구독하시는 NIE 지면은 다음 사항에 대해 선생님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6. NIE 방법을 익히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 신문활용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8. NIE 관련 소식이나 동향을 아는 데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신문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신문은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다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문9. 읽기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10. 쓰기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11. 의사소통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12. 교과내용 심화 이해	①	②	③	④	⑤
문13. 논술 · 구술 · 면접 대비	①	②	③	④	⑤
문14. 문제해결능력	①	②	③	④	⑤
문15. 진학(혹은 진로)	①	②	③	④	⑤
문16.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문17. 정보탐색능력	①	②	③	④	⑤
문18. 인성 가치관 함양	①	②	③	④	⑤
문19. 창의적 사고력 배양	①	②	③	④	⑤
문20. 통합적 사고력 배양	①	②	③	④	⑤
문21.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문22. 공공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신문은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을 준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보통이다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23. 읽기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24. 쓰기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25. 의사소통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26. 교과내용 심화 이해	①	②	③	④	⑤
문27. 논술·구술·면접 대비	①	②	③	④	⑤
문28. 문제해결능력	①	②	③	④	⑤
문29. 진학(혹은 진로)	①	②	③	④	⑤
문30.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문31. 정보탐색능력	①	②	③	④	⑤
문32. 인성 가치관 함양	①	②	③	④	⑤
문33. 창의적 사고력 배양	①	②	③	④	⑤
문34. 통합적 사고력 배양	①	②	③	④	⑤
문35.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문36. 공공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NIE 교육용 신문구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NIE 교육용 신문구독과 관련한 이용현황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7. 현재 진행하고 있는 NIE 관련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신문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각각의 항목별로 대략적인 비율을 적어 주십시오.(전체 합계 100%)

- |                              |         |
|------------------------------|---------|
| ① 학교 지원을 받아서                 | (    )% |
| ② 신문사 지원                     | (    )% |
| ③ 교사 개별 구입                   | (    )% |
| ④ 후원이나 기증                    | (    )% |
| ⑤ 학생들이 개별적 구입                | (    )% |
| ⑥ 기타(                      ) | (    )% |

계 : 100 %

⑦ NIE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문38. 수업이나 학습용으로 이용하는 신문에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할인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
| ⑥ 60% | ⑦ 70% | ⑧ 80% | ⑨ 90% | ⑩ 100% |

문39. NIE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문의 부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학생 1인당 2부 이상  | ② 학생 1인당 1부    |
| ③ 학생 2~3인당 1부   | ④ 학생 4~5인당 1부  |
| ⑤ 학생 6~7인당 1부   | ⑥ 학생 8~10인당 1부 |
| ⑦ 학생 11인 이상에 1부 | ⑧ 신문 부수는 관계없다  |

•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NIE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NIE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충족되고 있다	충족되고 있다	보통이다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문40.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문41. 학교 차원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42. NIE용 교수학습 자원 제공	①	②	③	④	⑤
문43.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①	②	③	④	⑤
문44. NIE 학습 담당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문45.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NIE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문46. 교사들의 NIE 연수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47. 신문 구독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48. 교육 관련 신문기사 및 콘텐츠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49. e-NIE를 포함한 신문저작물의 무료 이용	①	②	③	④	⑤
문50. 신문지면에 대한 학생의 참여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51. 신문기자 특강 등 신문사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52. NIE 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53. 가정에서의 NIE 지원 및 협조	①	②	③	④	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NIE를 하는 데 아래의 조건들은 실제로 얼마나 충족되고 있습니까?

	매우 충족되고 있다	충족되고 있다	보통이다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문54.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문55. 학교 차원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56. NIE용 교수학습 자료 제공	①	②	③	④	⑤
문57. 수업 용도에 맞는 NIE 가이드북 개발	①	②	③	④	⑤
문58. NIE 학습 담당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문59.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NIE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문60. 교사들의 NIE 연수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61. 신문 구독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62. 교육 관련 신문기사 및 콘텐츠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63. e-NIE를 포함한 신문저작물의 무료 이용	①	②	③	④	⑤
문64. 신문지면에 대한 학생의 참여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65. 신문기자 특강 등 신문사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66. NIE 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67. 가정에서의 NIE 지원 및 협조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교육효과 면에서 종이신문과 전자(디지털)신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ㄱ 표 해 주십시오.

종이신문은 전자신문보다 ... 더 효과적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68. 읽기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69. 쓰기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0.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1. 교과내용의 심화 이해에	①	②	③	④	⑤
문72. 논술 · 구술 · 면접을 대비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3.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4. 진학 혹은 진로지도에	①	②	③	④	⑤
문75.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6. 정보탐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7. 인성이나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8.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79. 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80.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81. 공공의식과 시민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①	②	③	④	⑤

• 배경문항

배문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배문2.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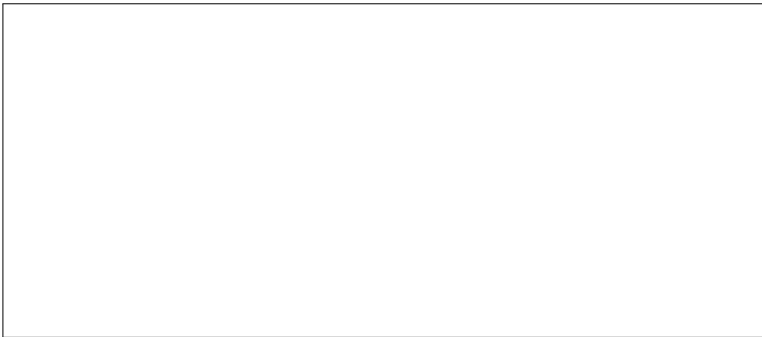
배문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만으로 몇 년이 되셨습니까?

만\_\_\_\_\_년

배문4. 선생님은 NIE관련 연수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5.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관련하여, 신문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참고 문헌

- 강석우 외(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용 주5일 수업제 운영 매뉴얼.
- 김기태 · 권혁남 · 김양은(2007). 『NIE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 검증』. 서울: 신문발전위원회.
- 김기태 · 이연 · 허병두 · 이소현 · 고은희(2010). 『한국적 NIE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국내 NIE 실태 및 해외사례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숙 · 김경희(2012). 청소년들의 매체별 뉴스 읽기 행태 분석: 신문 읽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뉴스 읽기 활성화방안. 세미나 발제 논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2년 9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18.
- 김해창(2005). 『일본을 움직이는 힘: 일본 신문』. 서울: 전망.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NIE)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원 연구서: 청소년과 인쇄매체』.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337~373.
- 나성은 · 공영태 옮김(2008). 『핀란드 교육의 성공』. 서울: 북스힐.
- 미디어전략연구소(2011).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동숙 · 이경숙 · 정수영(2010). 『글로벌 읽기문화 프로젝트: 신문읽기문화 진흥 실태조사 및 읽기문화 진흥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성희 · 김세은 · 전경란(2010). 『어린이 신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진우 · 김예란(2011). 『디지털 시대의 읽기 문화: 쟁점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설규주 · 김명정 · 이봉민(2011).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정치 · 정보연구』, 14권, 77~100.
- 설규주 · 이두희 · 김명정(2010). 『학교 NI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성태모(2003). 자기주도적인 NIE 학습방법 연구: 통합적인 국어 능력 향상 모형. 『교육연구』, 26, 115~118.
- 손승혜 · 황하성 · 장윤재(2011). 『교육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윤영태(2011). 『사회 NIE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광호(2006). 『학교 주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31~32.
- 이상현(2009). NIE 관련 지면과 프로그램 현황. 『신문과방송』, 6월 호, 122~125.
- 이정훈·이두황(2011). 『디지털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철우·문종대·안치수(2010). 『한국 NIE 실태 분석과 개선방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현선·옥현진(2010). 『NIE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신문과 생활’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수선(2010). 중앙 일간신문의 교육 섹션 비교분석. 『동서언론』, 13, 89~115.
- 최상희(2010). 사회와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효과적인 재구성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16권 1호, 197~224.
- 최상희·오주석(1999). 『NIE 지도전략』. 서울: 내일.
- 한국신문협회(2009).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신문협회.
- 한국신문협회(2011).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재단(2006). 『2006 한국의 NIE』.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10a). 『2006 한국의 NIE』.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10b). 『학교 NI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유선·박진우·김위근(2011). 『NIE와 교육효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치성(2007). NIE의 메카로 떠오른 핀란드. 『신문과방송』, 2월 호, 122~125.
- 황치성(2012).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대응방안: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오늘의청소년』, 7~8월 호, 2~11.

NAA(2005). Growing lifelong readers: The impact of student involvement with newspapers on adult readership.

NAA(2006). Lifelong readers: The role of teen content.  
<http://www.naafoundation.org/Resources/Awards/Youth-Content-Awards.aspx>

NAA(2011a). Newspaper in education is alive and well in 2010.  
<http://www.naafoundation.org/Resources/Awards/Youth-Content-Awards.aspx>

NAA(2011b).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erceptions newspaper in

- education.  
[http://www.americanpressinstitute.org/Research/Foundation/NIE/~  
/media/NAAFoundation/Files/Research/NIE\\_focus\\_group\\_report.as  
hx](http://www.americanpressinstitute.org/Research/Foundation/NIE/~media/NAAFoundation/Files/Research/NIE_focus_group_report.aspx)
- Rausch, A. S. (2004). 'Newspaper in education' in rural Japan. *Journal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14(2), 223 ~ 244.
- Raundalen M. & Steen, J. V (2004). *Children in newspapers-A global content study*. WAN.
- Sullivan, B. L. (2001, June). Newspapers: In the classroom and beyond. *Quill*, 72 ~ 73.
- WAN & IFRA (2010). World Press Trends 2010.  
<http://www.pressnet.or.jp/adarc/data/data01/02.html>

# 2010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 • 2010년 자체연구

- 2010-01 글로벌 미디어기업과 미디어정책
- 2010-02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 2010-03 2010 국민의 뉴스소비
- 2010-04 신문광고비 형성변인과 결정요인
- 2010-05 한국의 인터넷뉴스서비스
- 2010-06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현황과 전망
- 2010-07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 2010-08 한국의 파워블로거
- 2010-09 뉴스미디어의 미래: 델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 2010-10 디지털 미디어환경과 뉴스 콘텐츠 유료화
- 2010-11 한국신문의 미래전략

# 2011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 • 2011년 자체연구

2011-01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뉴스 콘텐츠

2011-02 트위터에서의 뉴스 생산과 재생산

2011-03 신문기사업의 혁신경영: 저널리즘, 비즈니스, 조직구조

2011-04 저널리즘의 복원: 고품격 저널리즘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한국의 비전

2011-05 NIE와 교육 효과

2011-06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문화: 쟁점과 전망

2011-07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후 광고시장 전망과 과제

2011-08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2011-09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모바일 뉴스 이용

2011-10 한국의 뉴스미디어 2011

#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 • 2012년 자체연구

2012-01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과 저작권

2012-02 정부광고를 활용한 정책홍보 효율화 방안 연구

2012-03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소비

2012-04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글로벌 뉴스 미디어 2012: 현황과 쟁점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정보 습득과 정치적 의사결정

한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과 쟁점

한국의 뉴스미디어 2012